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존계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5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이 생을 부처의 생으로 한다. 곧 가장 마지막 생으로 한다. 나는 오직 이 생에 있어서 마땅히 일체를 건져야 한다." 싯달타태자로 화현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자 걸음처럼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한 이치를 환히 깨달아 중생을 일깨운 부처님. 사월초파일 5월24일은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의 성탄을 노래한 법구 싯구를 감상한다.
〈편집자주〉

부처님 오셨네

때는 사월 초파일.
맑고 화한 기운 고르고 알맞은데, 그는 재계하고 깨끗한 덕 닦았기에 보살의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도다

큰 자비로 온 세상을 건지려 하였기에 그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았나니.

환하게 태에서 나타나는 것, 마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보살이 이 세상에 나신 까닭은 세간의 온갖 고통 건지려 함이어니, 오직 저 악마의 하늘 왕만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근심하였네.

신령스런 상서로움이 이 나라에 모였으니 지금부터 갈수록 흥하고 성하리라.

이제 난 특별하고 훌륭한 아들, 반드시 등정각을 이루오리라. 〈마명 '붓다차리타'〉

부처를 상기하면 마음 속에서 나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80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도 역시 이 위대한 분의 아름다운 덕행을 공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타고르 '불교에 있어서의 신앙관'〉

왕비의 품에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에 들어왔으니 이 아들 더러운 때가 없으며 천상 인간이 머리숙여 절하리다. 일체를 모르는 것이 없고 나게 되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요.
〈불본행경〉

보살이 탄생하자 사람의 부축이 없이 곧 4방으로 거닐며 각 방면으로 7보를 걸었고 걸음마다 발을 들면 큰 연꽃이 솟아났다. 7보씩 걷고나서 4방을 둘러보고 눈을 깜짝이지도 않으며 입에서 절로 말이 나왔다. 먼저 동쪽을 바라보며 갓난아기의 말답지 않게 스스로 글귀에 맞게 바른 말로 게송을 읊으셨다. "이 세간 가운데 내가 가장 높구나, 나는 오늘부터 목숨받는 일이 끝났네."
〈불본행집경〉

부처님 오신날 특집 28면 발행

특별기고—한국불교자화상 ❺
해외석학 인터넷 대담 ❻
연꽃세상 ❾
특집 I
다종교사회 종교화합 ❿⓫
캄보디아 · 베트남 불교 ⓬
특집 II 새싹불자를 키우자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 탄생 ⓴
좌담—어린이교화 체험담 ㉓
새싹불자 설문조사 ㉔㉕
어린이 신행돕는 불교용품 ㉗



"사바세계에 연꽃을 피우자"

서울 한 복판에 부처님이 연꽃으로 나투셨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는 지난 14일 저녁, 시청앞 광장에서 시민과 불자 5백여명의 발원속에 연꽃점등식을 봉행했다. 파란연잎, 붉은 꽃봉우리가 활짝 피면서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 뜻을 기렸다.

금년 봉축 조형물은 예년과 달리 탑 대신 대형 연꽃(높이 7m 폭 18m)으로 제작되어 삭막한 도심속에 은은하면서 화려한 연꽃의 멋을 시민들에게 전하게 됐다.
시청앞을 오가는 시민들은 어느덧 진흙속에서도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의 가르침을 음미하는듯 했다.
〈서울 시청앞=고영배 기자〉



◇지난 14일 화계사에 이교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대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을렸다.

"불교입문 부모 영향" 80%

본지 새싹불자 564명 설문 스님 인자하고 편안…포교프로 빈곤

불자어린이 10중 8명은 부모님 권유로 사찰 어린이법회에 나가고 있으며 스님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법회 회원의 절반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오계를 받았으며 처음 절에 갔을 때 낯설고 무서웠다는 어린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새싹불자를 키우자'를 연중캠페인으로 벌이고 있는 본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4월6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사찰 어린이법회 회원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싹불자 기초신행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분석 24 · 25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자어린이는 법회가 유익한 반면 염불할때(33.8%), 절(108배)할때(26.2%)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응답해 어린이포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미래불교의 동량이 될 초등학교 불자어린이들의 불교의식을 살펴보기위한 것으로 전국 6백여 어린이법회 가운데 지역을 고려해 50개 법회를 임의선정해 실시했다. 특히 금년은 조계종이 정한 '청소년의 해'로 포교원 관계자는 "불자 어린이관련 자료가 빈약한 가운데 의식조사가 실시되어 중요한 자료가 될것이다"고 밝혀 설문조사 내용이 청소년 포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근 기자〉

승복색깔 논의

조계종 의제위 실무회의

조계종 의제위원회(위원장 법타)는 지난 11일 1차 실무회의를 갖고 승복의 색깔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타스님(전계대화상)을 위원회 증의(證義)로 추대하고 무비(범어사) 중원(관음사 주지)스님을 지도위원으로 선임하는등 위원회를 보강했다. 위원회는 또한 행자의 승복을 고동색으로 하고 사미(니)는 현행 회색승복에 깃과 소매 끝부분만 고동색으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화계사에 또 대낮방화

14일 대적광전 경찰 안일수사 '교계 비난'

삼성암 본원정사 연쇄 방화에 이어 지난 14일 정오 화계사에서도 이교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화사건이 발생해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화계사 방화는 강북구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화재인데다 백주대낮에 일어나 집요하고도 치밀한 표적방화라는 점에서 교계는 더욱 경악하고 있다.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발생한 화재는 비로자나불이 위치한 불단 뒷편을 전소시키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2일과 5월 12일 두차례에 걸쳐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미수에 그친 데다 경찰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번째 일어난 방화다. 북부경찰서 김영일 형사과장은 "사건발생시 화계사에 사복경찰 5명이 배치돼 있었다"면서 "사찰은 다른 곳과는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계사측은 "이틀전인 지난 12일 오후 5시경에 발생한 방화미수사건이후 경찰에 특별경계근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인 경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 경찰측은 범인을 목격한 오명숙씨(봉사부장, 38)와 장봉순씨(합창단원, 37)의 진술을 토대로 40대 초반의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몽타즈를 작성 배포하는등 범인 검거와 재발방지에 들어갔다.

한편 화계사 신도 30여명은 지난 14일 관할 북부경찰서를 방문 강력 항의 했다.

조계종 총무원도 지난 15일 총무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더이상 전통사찰이 방화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범인을 조속히 검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사회복지 시설중 교계운영 4.9%

보건복지부 현황분석

전국 6백53개소의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중 82.8%가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교관련 복지시설은 전체 4.9%에 불과한 32개소로 개신교 4백17개소(63.9%), 천주교 74개소(11.3%)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현황자료에 대한 종교성향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교계 복지시설이 숫적으로 개신교는 13배, 천주교와는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은 3백6개소 중 개신교 2백27개소, 천주교 22개소, 불교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은 95년 현재 1백44개소로 스님 및 재가신도가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곳은 15개소에 머물렀다.

奉祝 - 부처님 오신날
• 인도 부다가야의 부처님 탄생지
스스로를 의지하라.
眞理의 가르침을 의지하라.
眞理의 나무아래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가르침의 긴 旅行은 시작되었다.
영겁의 歲月이 흐른 지금에도
인도라는 땅 곳곳에서
배어나오는 苦行의 발자국 —
인도旅行은 大韓航空으로 편안히 다녀오십시오.
• 뭄바이(구 봄베이) 週 2回 (木, 土)
예약 및 문의 : (02)756-2000
21세기 꿈하늘을 여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봉축 사설

불기 2540년의 불교성찰

한반도의 5월은 눈부시다. 이런 눈부신 절기에 불기 2540년의 초파일-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부처님을 2540년의 긴 시공을 뛰어넘어 예찬한다.

룸비니동산에는 마야부인당이 세워져 있다. 그 당 안에는 마야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아기를 받아내는 돋을새김의 석각(石刻)이 있다. 그곳을 동산이라고 하지만 따지고보면 아쇼크나무(무우수) 몇그루가 서 있는 길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진대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셨고 80평생을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한국불교 지금 어디 서있나

이처럼 부처님은 길의 사람이었으므로 그이가 펼치신 진리 역시 길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근본법륜에서 열반경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길이 그것이다. 이 가없는 길이 이어져서 1천6백년의 벅찬 역사를 가진 한반도도 그 진리로 하여금 고대 이래의 삶과 문화의 주조(主潮)를 이룰 수 있었다.

오늘날이라해서 다를 바 없이 우리는 근세의 교조적인 배불정책이나 현대의 서양종교문화에 의한 광신적인 적대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랜 고등종교로서의 길을 지켜오고 있다. 아니, 제2차대전과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를 겪은 세계의 새로운 전망은 동양사상 특히 불교사상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일련의 정신활동은 놀라운 것이 되었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간 독일의 하버마스도 한국은 불교등의 고유한 정신적 유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하며 불교의 순수성 지향이야말로 그 재해석에 따라 현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불교계에 새삼스러운 힘이 되어 마땅하거니와 이밖에도 우리는 구미 각 지역의 두드러진 사상동향에서 불교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과연 현대 서구 실존주의 이래 불교는 철학적 우월성을 꽃피워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종교사상으로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유일신의 배타적 종교와 과학 그리고 유물사관에 의한 계급투쟁노선 등으로 동양사상의 발상지와 그 분포지역인 아시아는 거의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전통시대의 국가이념과 대중에의 위안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내면화되거나 상투화된 불교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지적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대 중세의 불교국가 이래 근세 성리학의 완강한 유교, 근대화과정의 기독교라는 통사적(通史的)인 문화단층으로 구분해서 무방한 한반도의 정신사에서 이제 불교는 새로운 당위를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한말의 뜨거운 열정으로 뭉쳐진 개화당이 유교의 공리공론과 당쟁과 부패를 불교적 이념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일이나 60년대 이래의 불교중흥정책 이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불교의 새 기원에 바탕을 둔 한국불교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먼저 불교계 안의 여러 현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교계의 물질주의와 물량화로 인한 방일(放逸)이다.

이와 함께 지나친 출세간주의의 허실로 인한 진정한 대승쿨교 구현이 매우 어렵게 된 점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출가자의 수행과 실천문제나 재가자의 기복신앙 위주의 안이한 생활이야말로 광명 지혜의 길인 불교 자체와 어긋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가 하면 산중생활의 규범이 풀어진데서 올 수 있는 일탈이나 고질적 책임회피야말로 부처님 당시의 원시교단이 세워온 한없는 미덕과 멀어진 사실은 엄중히 비판받아야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2의 원효에 의한 화쟁과 상즉사상, 제2의 보조에 의한 결사정신을 제고시킴으로써 한국불교의 격조와 역사적 역량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은 다만 교조 석가모니부처님의 거룩한 탄신을 봉축하는 것만을 뜻한다면 그 날의 의미는 크게 감소된다. 과연 부처님오신날이야말로 당장 1천6백년의 불교로 살아온 우리가 다시한번 아기부처님으로 태어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아기부처님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진지한 종교적 의무를 다하자는 서원의 날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 불교계가 불교외적인 사태에의 심각한 대응이 필요한 바 있다. 특히 불교에 대한 온갖 음해의 탄압 그리고 과괴행위가 어떤 타종교측의 일부 광신도들이나 지도자에 의해 자행되는 최근의 불상사는 더이상 묵과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간 신군부의 군화발에 의한 법난을 겪었거니와 그뒤로도 타종교의 박해와 소외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지 못한 상태를 확인한다.

지금 근대 이후의 세계는 동서이념체제의 한쪽이 무너진 이래 탈이념적인 불투명성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것이 표류인가 모색인가를 인식하기 전에 현실적으로는 너무 절박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구도대신 이번에는 세계 도처에서 인종·종교간의 원시적 불화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보스니아와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지역은 인류의 양심을 묻는 비극의 땅이다. 힌두교와 회교의 갈등으로 팽팽한 인도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이 그 자비의 손바닥으로 펴보이신 불국토나 뛰어난 사상가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세계정부, 지구사회들의 평화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나 냉혹하게 시험받고 있는 중이다.

아기부처님으로 다시 나자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건대 다원화를 위한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사회라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다종교시대의 상호 비적대화 및 상호연대화의 미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든지 포착된다. 심지어 일부 타종교는 불교의 관용을 무기력한 것으로 착각하고 단속적인 훼불의 악행을 거듭하기 일쑤이다.

이러다가는 종교적 갈등이 군사적으로 심화되어가는 다른 지역을 걱정하기에 앞서 한국에서의 종교전쟁에 대처해야 할 처지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의 한 염원은 종교와 정치뿐 아니라 종교와 종교 사이의 자비를 성립시키는데서도 강렬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성찰은 불교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에 주어진 몫이다.

불기 2540년 초여름은 앞으로의 2540년의 정법구현을 위한 신록의 계절이다. 오래된 진리는 늘 새로운 진리로의 탐생에 의해서 공중의 새처럼 물 속의 고기처럼 살아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생명 자비 평화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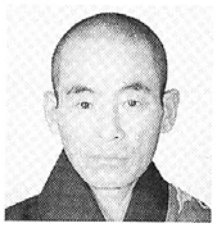
보성 〈태고종 종정〉

부처님께서는 바람없는 바다에 파도가 일듯, 자취없는 보름달이 호수에 비치듯 사바에 오셨습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을 찾아내서 현실의 미망을 부수고 조촐한 마음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마음 속에 자비와 평화가 있으며, 그 마음속의 미래세를 움직이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언어(言語)를 가지고도 알 수 없고 사상(思想)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적묵(寂默)으로 통하는 것도 아닌 바로 그 마음을 통달해야만 모든 인류가 평화를 얻을 수 있고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통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품들을 걷어내고 가라앉혀서 순일한 큰꿈을 가지고 크게 정진해서 큰 서원을 이루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공존공영하는 자비사회 이루자



도용 〈천태종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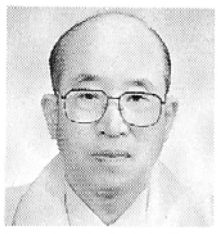
부처님 생명은 영원히 불변하며, 우주 만유의 본체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불성(佛性)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임을 깨달을 때 스스로 보살(菩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생명을 황폐하게 하고 번뇌(煩惱)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제3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또다른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때 나와 이웃이 한마음이 되고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광명사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참나실현'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



각해 〈진각종 총인〉

오늘 이곳 방함과 갈등의 현장에 부처님은 인류구난(人類救難)의 대법기를 높이 들고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생명존엄과 인간존중의 존재 실상입니다. 참 나는 독선과 이기와 아만에 찬 나가 아니라 나와 남, 나와 우주가 하나인 나이고, 참 삶이란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평등과 자비로써 일구어 나가는 평화임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인간존엄의 바탕 위에 생명의 실다운 모습이 참다운 나요, 큰 나라면 그러한 나의 실현이야말로 가장 인간답게 사는 참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을 밝혀 나와 주위에 산재한 어둠을 걷어내고 인류를 밝혀 체제와 이념의 벽을 허물어 불신과 증오, 대립과 투쟁이 없는 평화와 안락의 복전(福田)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기를 서원합시다.

각 종단 봉축법어

허공이 내외없듯 진여 통달하라

월하 〈조계종 종정〉



千里의 긴 강이요 萬年의 푸른물이로다
화창한 봄바람에 호랑나비가 東山에 한가히 놀도다
주장자를 바로 하시고
대중은 일러보라 무엇을 聖諦이라 하는고?
잠시 계시다가
보살의 참된 住處는 寂滅이 第一義라
본래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또한 다시 머물을 곳도 없나니라.
그러나 無位眞人이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연민하사
널리 불찰을 장엄하시고 이 사바에 출현 하셨도다.
대중은 다시 들어라,
無位眞人이 세간에 주하고 일체의 지혜를 닦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함을 보이신 것은 다 이 방편일 뿐이로다.
이와같은 무량공덕이 법계에 충만할세 모든 성현들이 함께 찬탄하고
뭇 사람들은 춤을 추며 태평가를 부르도다.
게송으로 이르시되
허공이 내외가 없듯이 心法 또한 이와 같도다
만약에 허공과 같을진대 곧 진여의 이치를 통달하리라.
주장자를 한번 치시고 단에서 내려오시다.

법계에 두루 비추는 부처님 광명

대천 〈관음종 종정〉



世尊出現 娑婆界
(세존출현 사바계)
爲光徧照 三千土
(위광변조 삼천토)
於焉忽至 丙子歲
(어언홀지 병자세)
未悟衆生 尙數在
(미오중생 상수재)

세존께서 사바세계에 출현하신지 어언 삼천년이 되사
광명이 널리 법계를 두루하사 비추어 주셨지만
인연없는 중생은 아직도 못 깨우친채 남아있으니
부처님 탄식 또한 남아 있도다!

지견 열어 보이셨네



혜안 〈보문종 종정〉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날마다, 매순간 오십니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부처의 자리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이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으로, 해맑은 동자승의 모습으로, 중생의 갖가지 염원을 담은 모습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며, 하고 싶은 것 많고, 해야 할 일 많은 저희 중생들은 그 행하신 바가 모든 세간에 이익을 주는 위대한 성자, 무사의한 힘을 지닌 최상의 성자인 부처님께 저희 모두 귀의합니다.

고통·번뇌 씻어주리



구암 〈법화종 종정〉

佛現世間中
爲度衆生苦
扶生盲眼者
擺去煩惱塵

부처님께서 세간에 화현하심은
뭇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자 함이니
눈뜬장님을 바르게 보게 하고
번뇌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주시리니

보살정신 되찾아야



록정 〈총지종 종령〉

지혜와 자비의 화신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계에 나투시어 진리의 길을 밝히신지 2540년!
어리석은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고 끝없는 미망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고 따르지 아니한 죄업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삶은 오늘의 우리에게 더욱 큰 가르침으로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살정신이 이 시대에 발휘되어야 할 가장 으뜸되는 불교정신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같이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어두운 무명의 장막을 걷어내고 불국정토를 건설하는데 최선봉에 서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보자



동광 〈총화종 종정〉

鐵牛不怕獅子吼
恰似木人見花鳥
木人本體無情
쇠소는 사자의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두려워 하지 않는지라 마음에 잠시의 흔들림도 없으니 미동도 하지 않는지라 흡사 나무사람(장승)이 꽃과 새를 보는 것 같다.(부동심, 평등심) 나무사람의 본체엔 스스로 정과식이 없으니 오온이 모두 공한 상태니.
화조가 이 사람을 만나도 또한 놀라지 않는다. 마음의 경계가 여여하여 단지 이와 같으니 어찌 보리도를 성취못함을 염려하겠는가.

"출가 4박 5일"

-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수련생 모집 -

불기 2540년 제26회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수련생 및 지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996년 여름수련법회 일정

차 수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	연 령	대 상
1차	1996년 7월 7일-7월11일	100명	6월 10일	20세-50세	불일회
2차	7월 14일-7월18일	〃	〃	〃	일반인
3차	7월 21일-7월25일	〃	〃	〃	〃
4차	7월 28일-8월 1일	〃	〃	〃	교 사
5차	8월 4일-8월 8일	〃	〃	〃	일반인
☆6차	8월 11일-8월15일	〃	〃	〃	〃

●모집요강

❶신청서 작성 : 별도의 참가 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자필신청서를 5월 20일부터 6월10일까지 우편이나 전송(FAX)으로 신청

1.이 름	(한글) (한문)	2. 주민등록 번 호	
3.주 소	(우편번호 필히 기재)	4.직업(구체적으로)	
5.전화번호	(자택) (직장)	6.종 교	
7.수련법회 경험유무(있으면 연도, 수련법회참가 사찰명)		8.원하는 차 수	제 차 수련법회 ( ) 제 차 자원봉사 ( )
9.참가하고자 하는 소견(상세히 기재)			

❷신청대상

■ 제1차 불일회 수련법회 신청대상 : 송광사 전국불일회 임원과 각 사암 신도회 임원 및 청년회 임원
■ 제4차 교사수련법회 신청대상 : 현직 교수 및 교사
■ 제6차 고급반 수련법회 신청대상 : 최근 3년이내 삼보사찰(송광사, 해인사, 통도사)에서 2회 이상의 수련경험이 있는 사람
■ 자원봉사 신청 지원대상 : 최근 3년이내 송광사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한하며 매차수별 7명까지 선착순 선발

● 참가허락 : 신청서류 전형후 6월 20일 이전 개별통보 함
(동참허락 통보를 받은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법회 불참사유가 발생하였을시는 6월 30일까지 필히 불참연락을 바랍니다.
● 동참금 : 60,000원(교재대금 포함)
수련법회 참가자에 한하여 자원봉사자는 동참금 없습니다.
● 문의처 : 전화 (0661)755-0109, 전송 (0661)755-0408
● 접수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우)540-930
송광사 여름수련회 담당자 앞
(전송 〈FAX〉으로 신청하실때는 접수후 꼭 전화 확인 바랍니다.)

불기 2540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21 교구본사 **송 광 사** 주지 현 고

부처님 오신 기쁨 온누리 '넘실'

세계인들은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 날을 어떻게 봉축하고 있을까. 부처님께서 밝히신 법등은 온 인류의 희망이며 삶의 지표로 세계인의 가슴을 밝히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센타 부다피아에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축하메시지가 속속 등재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인터넷 이용자는 각국의 인터넷 불교사이트를 비롯해 스님 및 권위있는 학자,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4월 20일부터 접수된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봉축 메시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본사 인터넷 부다피아에 보내온 봉축메시지

한국불자 행복을 기원

비마라난다 〈네팔 · 룸비니사 주지〉

오는 음력4월 보름은 '이삭' 축제로서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 깊은 위삭축체를 맞이해 한국인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깨달음의 '법비' 옵니다

하워드 버마 〈미국 · 명상지도스님〉

70이 되는 늙은 일본 정토종 승려로서 부처님 탄신을 함께 축하합니다. 지금 비가 옵니다.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단지 비가 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모든 불교단체에 경축

루이 랭카스타 〈미국 · 캘리포니아대 교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한국의 모든 불교단체에 축하를 보냅니다

인류번영에 관심 갖자

바산타 비다리 〈네팔 · 고고학자〉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한국 불자들의 번영과 행복, 평화로운 생활을 기원합니다. 이곳 룸비니 동산에서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마음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계인과 함께 기쁨을

머빈 토마스 〈호주 · 통계학자〉

이곳 호주의 브리스벤에 있는 대광사에서도 지난4월 8일 불탄 봉축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관음선센타의 승산스님에 의해 창건된 곳으로 세계인과 함께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 노력에 감사

앤드류 〈'선사들' 웹마스터〉

부처님 탄신일을 경축하는 현대불교신문에 먼저 축하와 감사를 보냅니다. 저희 '선사들(Zen Ancestors)' 홈페이지에서도 이 편지를 올려놓고 회원 모두와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오며, 축하합니다.

다양한 의식·행사즐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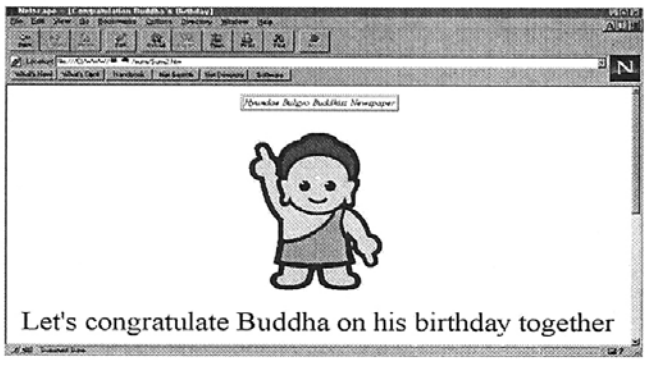
젠카츠 퍽 〈미국 · '법우선센타' 웹마스터〉

우리는 부처님 탄신일이 되면 불상앞에서 법회를 봉행합니다. 관욕의식과 게임 피크닉도 준비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법우선센타'에는 스님이 두 분으로 매일 명상을 가르치시고 예불도 드립니다. 회원들은 약 1백명 정도로 많은 불교단체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들이 한국의 불교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붓다넷 축하인사 올려

펜야바로 〈호주 · 붓다넷〉

사이버 상가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불자들에게 붓다넷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부다피아에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세계인의 봉축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부다피아 화면에 뜬 봉축메시지〉

부처님이 우는 까닭…

부루스 몰츠 〈창가학회 인터내셔날〉

만일 아이가 비는 어디서 내리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말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울기때문이란다" 또 아이가 왜 부처님이 우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너 때문일 것이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불자 깨달음 이루길

프랭크 테데스코 〈세종대 조교수〉

부처님 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국제적인 불교단체와 세계불자들은 한국과 한국불교와 더 가까워질 것이며 부다피아를 통해 많은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보호에 힘쓰는 많은 불교도들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는 제종단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들 그리고 남북한 불교도들이 모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 바랍니다. 제각기의 불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상과 욕심을 버리자

림 다나티 〈캐나다 · 고교교사〉

쿠카이의 詩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겠습니다.

「탐욕과 광기에 찼여 있을 때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
만약 우리의 아욕을 마음에서 밀어낼 수 있다면 숭고한 질서가 나타날 것을
가엾도다! 불행한 사람이란 명상을 멀리하고 미혹에 빠진 자.
불멸의 세계에서 초월과 완성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

부다피아 활약상 기대

불교도우회 〈미국〉

우리는 전세계의 불교활동과 계획들을 지원하며 불교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다피아가 한국의 불교소식을 널리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행복한 불탄축제 되길

달리 키스만 〈캐나다 · 전기전문가〉

이곳 캐나다에서도 불탄일 축하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캐나다인 모두모여 연등을 준비하고 음악 시 등의 발표회, 채식주의자를 위한 축제등도 벌입니다. 이곳은 삼우스님이 설립한 사찰로서 한국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행복한 날을 보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널리 퍼지는 봉축물결

알프래드 부룸 〈미국 · 호눌룰루〉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멀리 퍼져가길 바랍니다. 이곳은 하와이불자협회에서 봉축행사를 벌이며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불탄일 축제준비 한창

벤쟈민 브로프 〈미국 · MIT학술연구원〉

저는 FWBO (서구 불교도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뉴헴프셔 알로카(Aryaloka)선원에서 부처님 탄신일을 축하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합니다. 한국의 불자들도 함께 불탄일을 축하합시다.

새해를 맞는듯 기뻐

팁 친타라시 〈라오스〉

우리 라오불교 회원들은 매년 4월 13일 위대한 부처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인터넷통한 봉축 환희

올리 리쉬 〈미국〉

인터넷을 통해 불탄일 봉축 소식을 접하게 되니 무척 기쁩니다. 한국의 부다피아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법이 분쟁 끝낼 것

피터 노턴 〈美 프로그램 엔지니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는 모든 분쟁을 끝나게 할 것입니다.

전세계인 평화의 날로

캐리 트램베트 〈호주〉

이곳 호주에서는 5월 축하행사 이삭축제(Vesak Celebration)를 진행합니다. 남웨일즈에 있는 불자협회는 5월12일 난티엔(Nan Tien) 사찰에서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팔리어 중국어 한국어 티벳어 베트남어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힌두교 유대교 회교 개신교 등의 다른 종교인사들도 초청되었습니다. 이날은 전세계의 평화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온세계로

크리쉬나 쿠링 〈미국 · 하와이대학생〉

저는 부처님이 나신 곳 네팔에서 왔습니다. "평화는 우리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온 세계로. 평화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

노김수 〈호주 · 퀸스랜드대학생〉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생활합시다.

평화와 환희 가득하길

제인 안나랭리 〈호주 멜버른대학〉

1996년 부처님 오신날이 평화와 환희로 가득차길 기원합니다.

법의 수레바퀴 영원히

큰가 상제 〈호주국립대학생〉

온 인류가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부처님의 법의 수레바퀴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불탄경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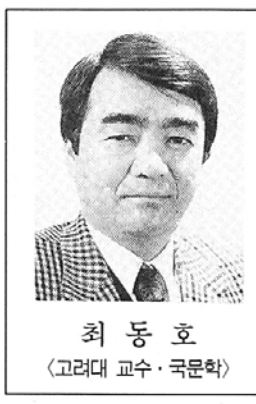
클레어 피터스카이 〈미국 · 주부〉

부처님의 탄신을 우리 가정에서도 축하합니다.

정리=남수미 기자

봉축칼럼

어둠 속에 빛이 있다



최 동 호
〈고려대 교수 · 국문학〉

몇 달 동안이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던 동경체재시절 나의 답답함을 들어주는 것은 가마쿠라(鎌倉)에 가 문화유적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바닷가를 거닐어 보는 것이었다. 가마쿠라는 지리적으로는 서울에서 인천과 같은 거리이지만, 천년 전 옛 유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문화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경주 같은 곳이었다.

말없이 보고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일본 체재의 울적함이 어느 정도 가셔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나의 마음이 끌리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불(大佛)이었다. 바다를 바라보고 말없이 미소짓는 듯한 이 청동의 부처님은 지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포용한 채 잔잔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옛스러운 모습에서 어떤 한국적 자취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일본 문화에 대한 알 수 없는 저항감 때문일 것이다.

말 없이 미소짓는 大佛

그러나 정작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부처님 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선뜻 부처님의 뱃속에 들어가 볼 수 없었다. 아마도 내 자신의 마음속 더러움이 혹시 발각되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번째 방문했을 때 우연히 같이 갔던 대학 후배로부터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 결혼할 상대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어쩐지 일본식의 얄팍한 상술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떻든 그 후배의 권유를 받아들여 용기를 내 들어가 보기로 했다.

계단을 내려가 부처님 뱃속으로 들어가니 어둠뿐이었다. 아이들은 신난다는 듯이 웃고 떠들었다. 바느질 자국처럼 불퉁불퉁 융접한 자국들 그리고 검푸른 녹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사람들이 쓰다듬고 간 굴곡진 자리는 윤기가 반들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물론 한국인답게 먼저 사진을 찍었다. 그 후래쉬 불빛 속에서 어둠의 공간이 번쩍 스쳐갔다. 사람들에 밀려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왔을 때, 나에게는 이 세상의 빛이 더욱 이상스럽게 밝게 느껴졌다. 멀리서 반짝이던 가마쿠라 앞바다의 물결들도 한결 잔잔하게 다가와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분명히 부처님 뱃속에서 보았던 것은 어둠뿐일 터인데, 왜 그러한 새로움이 느껴지는가 생각해 보았다. 부처님이 배면으로 하고 있는 산들도 더욱 친근하도록 느껴지는 것은 어쩐 일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주일이 지난 다음 다시 가마쿠라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 보았다. 역시 부처님은 말이 없으셨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의 전체상으로만 보이던 부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가왔다. 입술과 눈썹과 코가 새롭게 부조되어 다가왔으며, 어깨와 가부좌한 발의 모습까지 눈에 들어왔다. 처음 사진만 찍었을 때는 눈길을 주지 못했던 부처님 앞 청동의 공양물들이 매우 잘 배치되어 있음을 보았다.

뒤로 돌아가 부처님의 뒷 모습까지 살펴 보고, 다시 더 뒤켠으로 나아가 한국에서 뜬어왔을 것이라는 '무량수전(無量壽殿)'을 보았다. 무량수전의 돌계단과 창살을 유심히 보았다. 역시 일본의 건축 양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나는 일본의 문화적 수탈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 부처님의 뱃속에서는 어둠만 보았을 터인데 그것이 세상의 빛을 다르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일까 하는 것이 나의 의문점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그때 찍었던 사진을 들여다 보았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나의 일굴에서 그때 내가 보았던 것은 어둠이었을까 빛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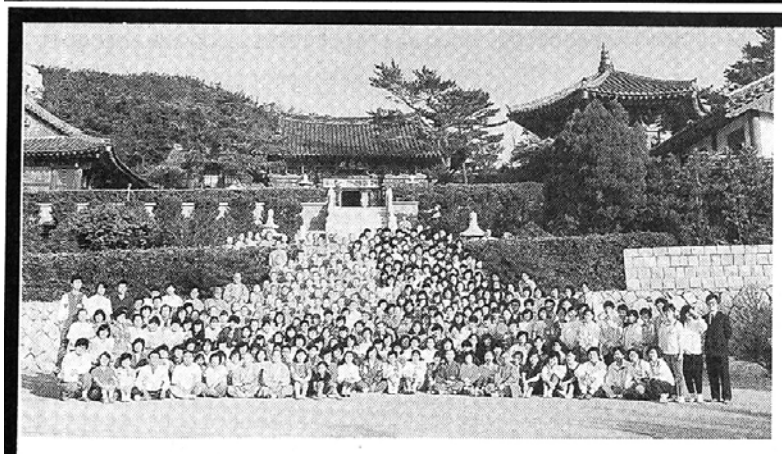
결국 돌이켜 보니 그것은 부처님 뱃속의 어둠이 빛을 새롭게 만들어 준 탓일 것이고, 빛 속에서 어둠이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해석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본이냐 한국이냐를 따지는 편협한 배타성이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인도인이냐 한국인이냐를 따지는 어리석음과 유사하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그것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공통된다. 어리석음을 밝히는 빛으로서 부처님이 깨우친 불교의 진리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폭 넓은 생명력을 갖는다. 인간의 육신 속에 어둠이 있고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근원적 깨달음은 오늘도 생동감을 갖는다.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라는 화두를 여러 해 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다. 그것은 달마는 '왜 서쪽에서 왔는가'라는 화두에 대한 반문이다. 깨달음은 서쪽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번뇌의 어둠 속에 깨달음의 빛이 있다.

세상 일이 뒤엉키고 글의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 때면 산에 가는 것이 나의 습관이다. 최근 어느 산에서 어둠 속에 켜 놓은 연등을 보았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끊긴 산 속에서 불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문득 '부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속적 물신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의 대중들에게 청정한 마음을 일깨우려 부처님은 오신 것이다. 등불이 부처님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는.



제21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진리의 어린이 모든 이의 행복"

반갑습니다.

미래불교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해 끝없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해가 갈수록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본회에서는 여름불교학교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고자 올해도 여념없이 제21차 연수회를 부처님의 자비심아래 대구 동화사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되는 이번 연수회는 PC·인터넷을 통한 어린이교육, 첨단 영상기법으로 보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특별법회, 찬불가, 저학년·고학년과 함께하는 부처님공부, 여름불교학교 운영과 교재·교구 활용법,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민속음악 등 다양하고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 어린이 불자 양성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어린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사부대중은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가슴속에 청정한 발원을 새겨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5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원장 성 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정 관 합장
회장 철 오

주 요 강 의	강 사	비 고
어린이는 모든 이의 행복	철오스님	본회회장
여름불교학교 교재 활용법(1) -저학년과 함께하는 부처님 공부	운성스님	본회이사
여름불교학교 교재 활용법(2) -고학년과 함께하는 부처님 공부	덕진스님	본회 이사
여름불교학교 교재 활용법(3) -여름불교학교 운영과 교재, 교구 활용법	김 미 욱	옥련유치원 원감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민속음악 -궁중음악, 마당놀이, 어린이들에게 국악의 소중함을	김 종 엽	KBS, EBS 전통문화 및 국악프로그램진행, 계원예술대학강사, 마당놀이 극인
예쁘게 만들어요! -여러가지 창의적 도구를 이용한 만들기	김 영 만	KBS1 TV 유치원 하나, 둘, 셋 만들기 강사
영상으로 보는 여름불교학교 -각종 특별프로그램 소개	본회사무국	
아기자기 깜짝놀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놀이 -여름불교학교에서 쓰이는 재미있는 놀이	박 철 수	도레미 이벤트 대표
멀티미디어 세상! 우리도 준비합시다.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첨단 어린이 교육	데이콤	
부처님 노래를 배워봅시다. -여름불교학교에 쓰이는 찬불가 운동	배동순/박정화	

■ 일 시 : 불기 2540년 6월 8일 오후 5시
~6월 9일 오후 3시
■ 장 소 : 대구 동화사
■ 준비물 : 동참금 3만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강의준비물(양면색종이 5통, 풀, 가위, 색도화지 8절 4장, 고무밴드, 유리테잎, 종이컵 4개, 우유팩 1개)
※강의 준비물은 본부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 의 : TEL (051)808-4569, 4570
FAX (051)808-4571

■ 미리접수받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당일 접수가능
• 기 간 : 5월 15일~5월 31일까지
• 우체국 : 601310-0037877-11
• 예금주 : 대불어(조 중 환)
■ 실명제 관계로 송금하신 분은 꼭 전화 주십시오.
(연수회 당일 영수증 필수 지참)

• 군종병은 사단법인 불국토에서 동참금 50%를 지원합니다.

법회 안내

마하연부평포교원
(032)513-5328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천수경강좌 금 오전10시30분

자재암 포교당(032)865-514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5시

명법사(032)655-3215

거사림법회 1·3주 일 오전10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종로 경승실(02)732-7613

정기법회 매월8·15일(음) 정오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4시
토요법회 매주 토 오후6시

미타사(02)662-4736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철야참선 매주 토 저녁10시

법운 포교원(02)889-4003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거사림법회 매월1·3주 일 저녁7시
가족법회 첫째 일 오전10시30분
학생회동문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30분
신중기도 3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사(053)421-3700

불일법회 매월 9일 오전10시
바라밀회 매월 15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저녁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은적사(053)653-1572

산림기도 및 108참회 정진법회
매월1~3일(음) 오전9시30분
거사림회 1·3주 수 오후7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월 오후7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구 구도회(053)654-8533

수요경전법회 수 오후7시30분
토요정진법회 매주 토 오후8시
철야정진법회 마지막 일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대구 한마음선원(053)426-2779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저녁7시30분
신도법회 둘째 일 오전10시30분
거사림회 매주 목 저녁7시30분
금요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조계종 '깨달음의 사회화' 후원의 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15일 롯데호텔에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교계를 비롯 정·재계, 후원자등 1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후원의 밤에서 월주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금일봉을 전달,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격려했다.



제15대 국회 불자의원 당선자 축하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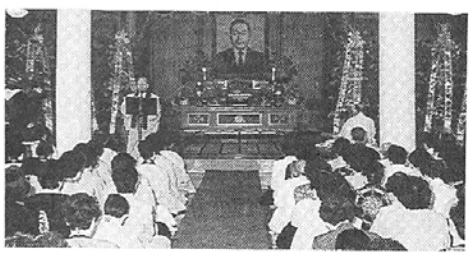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13일 롯데호텔에서 제15대 국회의원 불자 당선자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좌로부터 김근태 국민회의부총재 대호 대한법화총무원장 김명윤 신한국당당선자 이홍구 신한국당대표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혜초 태고종총무원장 권익현 신한국당의원 서석재 신한국당당선자 락해 진각종통리원장.



원효성사 열반 1310주년 추모대재

원효종(총무원장 무진)은 지난 16일 서울 효창공원에서 원효성사 열반 1310주년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원효종정 법흥스님 석주스님 전 태고종종정 덕암스님 봉선사주지 운경스님 진언종 총무원장 호인스님 한승광 용산구의원 주영선 신도회장 일본관서지역대표 아카스카 타오시등 내외빈 2백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종조탄생절 기념법회

진각종은 지난 10일 통리원 종조전에서 각해 총인 락혜 통리원장 성초 교육원장 혜일 종회의장 손제석 위덕대총장을 비롯 서울·경기지역 스승 50여명과 신도 4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제95회 종조탄생절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락혜통리원장은 "종조의 뜻을 받들어 남북이 하나되는 그날이 오도록 용맹정진하자"고 말했다.

"컴퓨터·어학실 늘려 명문교 육성"

설립 50돌맞은 종립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



"1백년 앞을 내다보는 고육여건을 조성하여 경기도의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종립학교의 위상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오는 26일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스님(흥국사주지)은 경기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명문학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동학원은 94년 14억원, 올해 5억원을 투자하여 컴퓨터실습실, 어학실습실을 마련했으며, 학생장학금을 늘리고 우수교사에게는 격려금 지급과 외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일면스님은 "종립 학교이니만큼 불교의 자비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교사채용위원회에 교법사를 참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앞으로 기숙사와 실내강당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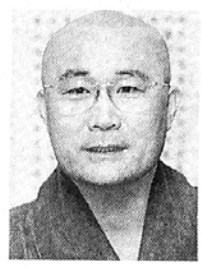
광동학원은 1945년 봉선사등 5개사찰 승려대회 결의에 따라 1946년 4월8일 광동중학교(초대교장 운허스님)가 개교했다.

광동학원에는 광동여고 광동중 광동종고등 3개학교와 교직원 1백75명, 학생 3천5백명이 있다.

김원우 기자

20년간 재소자 돌보며 불심 심어

교정대상 본상 자비상 받은 삼보사 지원 스님



서울 삼보사주지 지원스님(서울구치소 종교위원)이 서울신문사와 KBS, 법무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4회 교정대상본상 자비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지원스님은 "더 열심히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분들이 많은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지원스님은 76년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불교교리 지도, 사형수 교화, 불우재소자 생활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87년에는 서울구치소 구내에 관세음보살상을 건립, 수용자들에게 불심을 전해줌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주기도 했다.

또 그동안 15차례의 수계법회를 열어 7백여명의 수용자들을 삼보에 귀의케 했다.

"잠깐의 잘못으로 몸은 갇혀있어도 그들의 불성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물에게도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상식은 29일 오전11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정성운 기자

교차로

원광대서 명예박사학위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오는 28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불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는다.

종태스님 열반 2주기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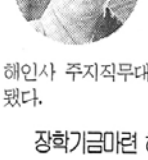


지선스님(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지난 17일 동산반야회 법당에서 종태스님 열반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보조국사 선사상 강연회

현광스님(보림사 주지)은 지난 17일 신검당, 종각, 조사전, 보림당 회향준공법회 기념으로 불일보조국사의 선사상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



성법스님(전 원로회의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조계종 12교구본사 해인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장학기금마련 하루찻집



송묵스님((사)자비와 행함이 하나되어 회장)은 오는 6월6일 종로 가릉빈가에서 고아원생 장학금 조성을 위한 하루찻집을 개최한다.

소년가장에 2천여만원 성금

혜월스님(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소년소녀돕기 대행스님법회와 불교음악제에서 모금한 2천3백20여만원을 2백11세대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했다.

통일 연수후 판문점 방문

법혜스님((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은 지난 11~12일 간부 40여명과 함께 통일연수를 마치고 판문점을 방문했다.

안양사암련 법요식서 공연

지범스님(제주 극락사 주지)은 지난 18일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사암연합회 주최의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우담바라, 님께로 가오니 등을 공연했다.

<에세이> 추천 수필가 등단

성목스님(산이깊은절 주지)은 월간 〈에세이〉 5월호에 수필 '차 한잔의 향기'로 추천받아 수필가로 등단했다. 시인으로 활동해 온 스님은 지난 94년 구도에세이집 〈결망 하나로 넘는 세월은〉을 펴내기도 했다.



라이온스 부산지구 총재취임

류진수씨(부산불교신도회장)는 지난 11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제라이온스 부산지구 제25차 총회에서 부산지구(309-B지구) 총재로 취임했다.

창립15주년 韓·印 학술행사



김양식회장(한·인문화연구회)은 한·인문화연구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인도의 시성 타고르 탄생 135주년 한·인 학술행사를 지난 20일 오후3~6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모스크바대서 명예박사

정경연교수(홍익대 미대)는 지난 7일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미술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정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충남 미술대전서 특선

박주부씨(대불청 보령청년회장·조각가)는 지난 13일 충남미술대전에서 '마음 찾아가는 길'로 특선에 입상했다.

게시판

▲후원물품 모집=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원장 각현)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봄나들이를 개최키로 하고, 이에따른 간식 모자 돗자리 등 물품후원을 기다린다. (02)203-3677

▲비전 동국100년 후원의 밤=동국대 개교100주년 기념사업본부는 오는 29일 오후6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동국대 1백년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260-3027

▲불교교리강좌=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3개월과정의 교리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도법사는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이며 6월2일 개강. (02)732-1206

▲사서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인표도서관 사서자원봉사자를 연령제한없이 모집한다.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02)852-0525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구룡사(주지 정우) 문화센터는 제2기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경전연구, 선체조, 수지침, 서예, 다도 등이며 접수마감은 5월말. (02)575-7766



'디지털불경' 시사회 및 출판기념회

봉선문도회(대표 월암)와 불교문헌자동화연구실(대표 혜묵)은 지난 13일 조계사문화회관에서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불경 시사회 및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불교성전〉 〈밀린다왕문경〉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한개의 CD롬에 담은 '디지털불경'은 다양한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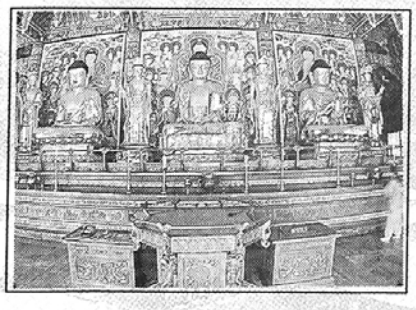
현대불교문학상 시상 및 시낭송회

현대불교문학회(회장 수완) 주최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및 봉축 시낭송회가 지난 12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청화(청평사 주지)스님, 정한숙 황필호 정공채 김재홍씨등 문단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1부는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2부는 청화 지원 로담스님 등 현대불교문학회원의 시낭송회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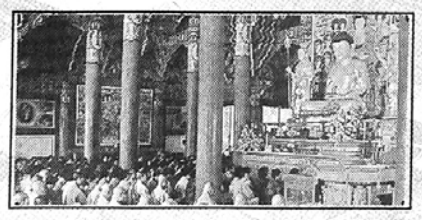
불기 25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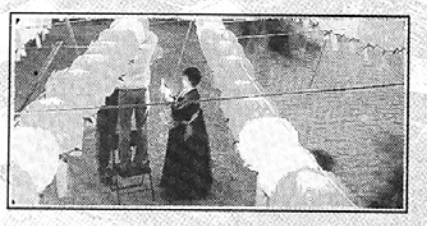
봉 부처님 오신날 축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大韓佛教曹溪宗 第21教區本社
僧寶宗刹 曹溪叢林 松廣寺
방 장 : 회광승찬
주 지 : 현 고
총림대중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12 전화 (0661)755-0107,8,9 전송 (0661)755-0408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강 안 내

1. 전문반(강원코스)
 ◦사미과=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사집과=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사교과=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의전과=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교리강좌=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경전강독=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교양의식=삼화행도집
 ◦교양불교사=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①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②수업료 : 각과목마다 월 2만5천원
 ③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④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문의처 :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 장 金 月 雲

교세집착 … 교리왜곡 관심밖

특별기고

한국불교 자화상

왜 불교를 사랑하는데 이웃과 도반과 친구를 이익이나 이권보다 사랑하지 않나 서로 양보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올바른 사람보다 제 패거리에 치중하는가



휴 암
〈팔공산 기기암〉

'윤리의식 붕괴' '가치관 부재' '지성 빈곤' 승가 병폐

"우리는 진실을 찾다 불교를 만나야 한다 진실에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구제요 세상구제다"

종교 지도자의 모습 이상의 교도(敎徒)는 없다. 어떤 집단보다 종교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 교도의 모습을 결정한다. 한국불교의 자화상, 그것은 결국 한국승가의 자화상 이외의 것일 수 없다.

오늘날 한국불교 승려들의 일상의 관심 그 의식상태는 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은 반문 속에 함축시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지금 당장 한국민 4천만 모두가 100% 불교도가 되는 사태가 내 눈 앞에 벌어졌다면 그 순간 한국 승가인의 심경은 대체 어떠할까? 과연 그럴 때 오늘의 승가인은 진심으로 환호작약할 것인가? 아, 나는 오늘에사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할 것인가? 어쩌면 갑자기 구실과 굉계를 박탈당한 사람의 공허한 심경이 되지나 않을지?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교세(敎勢)같은 것이 인간 내면의 궁극적인 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의 깊은 진실은 한국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인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나의 허위의식이다. 나의 진실은 진실하고 참된 인간을 원하는 것이다. 그가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는 2차적인 문제다. 이게 내가 내 자신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나의 진실인 것이다.

오늘의 한국승가는 이 진실을 망각하고 잃었다. 이것은 다름아닌 자기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불교 한국승가가 이 진실에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를 구제함이요 세상을 구제함임을 알아야 한다.

교세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사회를 구제할 수 없다. 자기를 구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불교를 먼저 사랑해선 안된다. 그건 거짓이다. 우리는 진실을 사랑해야 한다. 그 진실을 찾다가 불교를 만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진실을 찾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불교의 '진실'을 캐야 할 것이다. 그는 필경 불교를 자신의 엄격한 비판의 필터를 통해 수용하고 그렇게 수용된 불교를 자신의 책임 자신의 진실로서 사랑해야할 것이다. 이런 이는 그 불교를 자신의 삶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자기이며 자신의 진실 자신의 생명 양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가 비로소 자기 자신의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지 않는 이가 종단 외치고 불교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속임수요 거짓인 것이다.

보라!

왜 불교를 사랑하는데 이웃과 도반과 친구를 이익이나 이권보다 더 사랑하지 않나? 왜 불교를 사랑한다면서 서로 양보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올바른 사람보다 제 패거리 제 문중 제 사람에 더 치중하는가? 여기에 자신의 진실이 허위임이 바로 폭로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불교한다는 것이 어찌 바른 불교가 되겠는가?

나는 한국불교가 진실의 능력을 잃은지가 오래 됐다고 본다. 나는 적어도 20 수년 전 중이 된 초창기 걸망중으로서 오고 가는 행각의 길 어귀에서 한국승가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마음속으로 외치곤 했었다—즉 윤리적 긴장감의 붕괴, 가치관의 부재, 지성의 빈곤,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승가의 현실이라고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다. 그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며 개선은 커녕 어떤 항목은 그 증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듣건데 해방 후 불교가 자기 발전에 대한 자각과 열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지금인데도 한국불교는 지금 원대한 불교적 이상이 없지 않은가? 애써 실현해야할 가치도 증심된 정신도 없지 않은가?

있는 것은 교세에 대한 관심 뿐이다. 지금 한국불교의 모든 가치는 교세요, 종단이고 집단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또다시 정치승이 발호할 토양만 마련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모든 성도대회가 불교사랑 종단사랑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지금 어디에도 진실한 불교적 삶 불교적 양심 불교적 진실을 살려는 뼈져린 현실을 보지 못했다. 이런 자기 모순과 이중성 양면성, 이것이 한국불교의 지금의 자화상이라고 본다.

오늘날 절대 다수 99% 대부분의 불교승려들의 의식은 기독교인보다 무당이 그래도 낫다고 하는 것이다. 불교인은 가치라는 말은 낯선 외국어다. 그래서 자신의 진리가 어떻게 왜곡돼 나타나든 크게 상관이 없다. 과거의 호국불교도 또 정화불교도 그 이름 밑에서는 뭐를 하든 다 호국이고 정화였다.

재작년의 4월 사태 때도 개혁이란 이름 밑에서는 어떤 아스라판도 역시 다 정의로 용인됐었고 자기들에 이의를 걸면 부처도 반개혁자고 자기들에 지지를 하면 부도덕한 전력(前歷)의 소지자도 개혁세력이었다. 실지로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긴 부도덕한 무리들이 적지 않았다.

한국불교의 지금의 열기는 그것이 참여이고 비기독교이기만 하면 무당도 외도도 다 진리인 의식이다. 그래서 비구도 비구니도 불교인은 지금 우리 불교 하면서 폴짝폴짝 뛰고 있지 않나?

이런 불교가 어떻게 내일의 주인이 될까?

한국불교는 지금 참여 지상주의 운영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덧 한국승가에 현실참여의 구호가 모든 비수행의 발호의 토양이 되고 있음을 본다.

나는 가끔 한국불교의 현실정을 생각할 때면 극장에서 우루루 몰려 나오는 관객들을 상상하게 된다. 극장에서는 어느 영화가 관객을 2천만명을 동원했다고 어머어마한 흥행의 성공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영화관에서 무수히 몰려 나오는 관객들일뿐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극장의 세과시 수입과시 이상의 큰 의미는 아니다. 거기엔 어떤 공통된 정신도 이상도 온몸이 시리도록 살지 않으면 아니될 어떤 양심도 아무 것도 없다. 잡다한 화제 거리들 속에는 그저 재미라는 하나가 연결고리일 뿐이다.

한국불교의 오늘의 정신은 자신의 피해의식에 대한 반사적 생존의식이 기본이며 교세확장 의식이 그 표현이며 불교진리가 어떻게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다.

불교의 근본은 존재의 구제다.

그러나 존재의 구제를 위해서는 불교가 역사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실 역사를 위해서는 불교가 자신의 존재의 구제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 이 상반된 모순에 대해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한국불교의 자화상인 것이다.

한국불교가 가치 무방향인 것은 이 갈등의 부재에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은 이 갈등과 긴장의 골이 어느 정도 깊으냐 여하에 따라 내일의 불교적 역사실현의 깊이와 높이와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마음은 청정한데 왜 중생인지요

문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데 어째서 부처와 중생으로 벌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문영 · 경기 화성군 봉담면〉

답 청정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해서만 청정하다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더러운 물, 깨끗한 물, 구정물, 고름물, 눈물, 핏물 등이 모두 한데 합쳐 돌아가는 것이 청정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내 어찌 자성이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청정함을 알게하기 위해 여러분께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곳에서 들고 나는 그 청정함을 모르겠기에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청정함을 알지 못하지요. 자연 그대로 시공을 초월해 공생 · 공용 · 공식 · 공체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으면 그대로 청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바탕은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아서 본래로 밝아 있습니다. 거울에 때가 끼었을뿐 거울 바탕은 오염되지 않았듯이 본바탕의 성품도 밝고 청정합니다. 중생의 생멸심이야 탐진치에 물들고 죄업에 찌들어 있겠지만 자성불 주인공은 본래로 물들지 않아서 청정합니다. 본래 그러하니 그걸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만 닦아내면 본래의 모습인 부처인 것이지요.

'무엇을' 맡기고 관해야 합니까

문 스님께서는 일체를 맡기고 관하라 하시는데 일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관하라 하시는지요? 〈최진선 · 광주 남구 양림동〉

답 일체를 관하라 할 때의 일체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찰나로 돌아가며 상대에 따라 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있기에 상대가 있고 우주도 있으며 그 상대와 우주가 같이 돌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일체가 곧 화두라는 것이지요. 따로 화두를 들고 따로 화두를 받아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있고 나로 인해 모든 게 벌어졌고 눈부시게 찰나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대로 공부재료인 것이지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거늘, 그러기에 고정되지 않은 일체를 관하라 한 것입니다. 관한다는 것은 닥치는대로 놓고 안으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비롯되어 어떻게 예까지 운전해 왔으며 지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찰나찰나에 화하며 같이 돌아가는 근본은 무엇일까 그점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 오묘함을 우선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차적으로 자기를,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근본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주인공이라 하는데 불성이라해도 좋고 참나라해도 좋습니다만 아무튼 만사는 주인공 거기서 해나가니 거기에다 믿고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체험하여 당당하게 주장자가 섰을 때 비로소 나툼의 도리도 알게 됩니다. 절대로 밖에서 찾지말고 모든 것을 나온 곳에 놓고 지켜봄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과 한마음 될 수 있나요

문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사람도 부처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송인영 · 부산 남구 우암동〉

답 부처님 생명과 이 스님 생명과 댁의 생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얽매입니다. 그것만 벗어나면 똑같은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일체가 나아닌게 없기에 티끌 하나도 버릴게 없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다 자비라 하는 것은 다 버려서 버릴게 없고 버릴게 없으니 버린 것도 없는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그 뜻이 참으로 감사한 줄 아셔야지요. 부처님 오신날은 날마다가 오신 날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공부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감사함을 모를 것이니 공덕이 하나도 없게 되지요. 현실에서 잘살든 못살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고통받고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따로 있고 너 나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부처님과 한마음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생각있는 중생 생각없는 중생, 보이는 중생 보이지 않는 중생을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들 원하는대로 보살로 화해 응해주셨기에 32응신으로 나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를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구해야지요.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발견하고 부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중생들 마음 속에서 부처를 이룸이지요. 부처도 중생이 있기에 그 모두를 버릴게 없이 얻었던 것입니다.

화두로 공부해도 괜찮습니까

문 '이뭐꼬' 화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두참선이야말로 전통적인 선공부라고 생각합니다만 스님 생각은 다르신듯 합니다. 〈이중호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답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방법은 도중에 생긴 방법이지 부처님 재세시에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엔 사람들이 아는게 너무 많아서 화두참선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부가 더딜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활하는 중에 들고나는 일체를 맡기고 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三和寺 鐵佛

약사불(藥師佛)이라 하였는데 신라 효성왕 3년(739)에 봉안된 것이다.
임진왜란에 절(寺)이 다 타버렸으나, 이 철불을 안치하여 놓은 약사전(藥師殿)만은 타지 않았으며 이조 현종 경자년에 중대사 자리에 옮겨 놓았다가 영조 무진년에 삼화사에 안치하였다.
순조 23년(1823. 9. 8.)도 화재가 있었으나 이때에도 역시 약사전(藥師殿)만은 타지 않았다. 그후 도둑이 철불을 철거하여 솥발에 버리고 鐵佛의 손을 훔쳐 달아 나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고 중이 떨어진 손을 붙여 놓았더니 다음날 아침에 鐵佛은 제자리에 가 있었다 한다.
일제시대에 일본 관헌이 손을 잘라 동구밖 이로리(尼老里) 석탑(石塔)안에 간직하여 두었는데 그 후일은 분명치 않다.

삼화사 약사전 신축 및 천불조성 모연문

귀의 삼보하옵고

두타산 삼화사는 동해시 무릉계곡에 위치하여 신라시대 선덕여왕11년(AD · 642)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여 『흑연대』라 하였고, 그후 범일국사가 재건하였으며 임진왜란때 불타버리고 약사전만 남았었는데 현종과 순조때에 중건하였으며, 고종43년(1906년)에 의병의 거점이 되자 일본수비대가 불태워버린 것을 중건하였으며 최근 1977년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채석 관계로 이곳 중대사 에터로 옮겨 세웠습니다.

원력이 있는 곳에 보살이 있고 보살이 상주하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며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불국정토가 이룩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워 신라 효성왕3년(739년)에 봉안된 철불(도문화재자료 제112호)을 재현하여 조성 봉안하고, 천불 및 약사전 신축을 발원하오니 무루 동참하여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약사전 신축기공식

▶일시 : 2540年 5월 19일(음 4월 3일) 11시
▶장소 : 두타산 삼화사
▶증명 : 비룡 큰스님
인허 큰스님
▶법어 : 현해 큰스님
■천 불 - 일불:3십만원
■규 모 - 목재 30평
■공사액 - 3억원

※접수처 : 강원도 동해시 삼화사 176번지
· 전화 : 0394-34-7661~2, 7546
· 팩스 : 0394-34-7663

두타산 삼화사
주지 이 원 행(遠行)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집

해외석학 인터넷 대담

"현대과학의 한계 극복 인류행복 새 지평 열어"

물러교수가 보는 「21세기 불교역할」

물질과 정신통합 바탕 인간성 회복 지향
'허무감 극복' 서구 젊은지성 불교에 매료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미래 사회에 불교는 인류에게 어떤 역할을 할것인가.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본사가 운영하는 부다피아 인터넷을 통해 일본 도요가쿠엔 대학에서 동아시아 종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찰스 뮬러 박사와 본지 최정희 편집국장이 대담했다.

〈편집자주〉



◇미국출생인 찰스 뮬러는 뉴욕주립대학에서 한국학(불교)을 수학하고 1993년 조선시대 기화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일본의 도요가쿠엔 대학에서 종교철학 조교수로 재직중인 뮬러교수는 〈원각경(圓覺經) 영역본〉 등을 비롯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에 개설된 대담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최정희 편집국장(사진 왼쪽 끝)이 찰스뮬러교수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부다피아대담 홈페이지 주소:http://www.buddhapia.co.kr/sympo/〉

대 담 : 최정희 편집국장
정 리 : 오종욱 기자
기술지원 : 황성록 전락정보실팀장

인터넷대담

-박사님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몇 안되는 학자중의 한분이신데 한국불교학은 세계 불교학계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부한 불교의 전통과 유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학의 역할은 미비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종교학자 중 한국불교학을 전공한 학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말해주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금 서구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한국불교에 갖는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 조만간 전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류 지성사 이끌어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한국불교학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를 사용한 저술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불교학자·포교사들이 '한국불교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국제종교학술회의에서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불교에 호기심을 갖는 외국 종교학자를 멀리 쫓아버리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세계 속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종교가 차지한 비중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문화와 생활이 크게 영향받고 심지어 전쟁도 종교적 원인으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인류역사에 있어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불교가 동아시아를 비롯 세계 속에 대중화된 종교로 확산되어 인류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불교가 인류 역사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한계 지어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헌을 꼽자면 인류의 고통·이기성·결점 등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종교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불교가 제시한 방법은 그동안 다각도로 행해졌는데, 인류를 정화시키는데 있어 타종교에 비해 월등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불교는 인류 철학·지성사의 눈부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는데, 이를 토대로 예술·문학의 영역에서 인간의 창조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동아시아 여러 국가 중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중국의 당(唐), 송(宋), 한국의 신라, 일본의 나라(奈良) 등이 불교의 사상에 더욱 고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에 이르러 불교의 영향을 받아 철학·지성·예술·문학 등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누렸던 고대국가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불교는 불교의 사상적 배경이 없는 지역으로 점점 확산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화란 불교학뿐 아니라 신행까지 세계인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처음 서구사회에 소개 됐을때와 지금의 상황은 얼마나 변했는지요.

▲불교를 처음 만난 서구인들은 힌두·도교 등과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연구와 단지 소집단 중심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 집단 역시 몇 권의 경전과 연구서에 의존했기에 불교의 정수를 배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 상황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티벳·인도·스리랑카·버마·베트남·대만·한국·일본 등지에서 승려들이 대거 들어와 선원을 열고 서구인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동양 승려가 직접 가르친 불교전통이 대학과 학계에 큰 관심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불교의 서구화'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술어학, 종교적 의식행사, 서양철학·자연과학을 통한 불교 연구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인이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 들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불교에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은 불교의 속성인 '유연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경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강좌에 학생 몰려

개인적으로 저는 불교가 서구에 전해진지 고작 백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구문화에 적응해 나아가는 불교의 중요한 변화를 더욱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불자 분포를 놓고 볼 때, 서양의 경우 지식인 중심의 불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불자 분포 차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불교가 서구에 전래될 당시 깊은 철학적 사유를 요하는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 보다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만 조심스러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천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는 이미 문화 내면에 여러 형태로 변형돼 다양한 계층, 교육수준의 사람들까지 접근하기 쉬운 종교였습니다.

그 후 서양에서 동양종교로써 불교의 대중성은 대학가에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현대의 허무주의·물질주의 등에 저항하고 과학·기술 등에 의해 분석된 냉철한 사실보다는 인간 영혼의 근저를 찾기 위한 젊은 지식인의 노력으로 획득되었습니다.

종교학으로써 불교를 수강신청하는 학생 수가 날로 늘어났으며,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에 어김없이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불교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 서구문명의 정신적 불균형이 '허무감'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둘째 많은 대학생들이 기독교나 이슬람보다는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에게 불교가 정직한 종교로서 비쳐졌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비판하는 불교의 특성이 '과학적 물질주의자에게 난해했던 문제'를 유연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기 때문입니다.

-'수행과 사회참여의 적절한 조율'은 현대의 불교가 안고 있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수행과 사회참여의 두 방향이 안고 있는 장·단점과 두 방향의 조율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역사를 돌이켜볼 때, '새롭게 유입된 불교'는 서구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항상 기대 받고 고무되었습니다. 만약 불교가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종교로서의 불교의 위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서구에 정착한 불교가 사회참여적 경향을 지녔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인이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에게 평온함을 안겨주는 것을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아와 다른 객체를 분리한다든지 세속을 부정하는 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해서 갖는 이중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나 정직·청렴·활력 등과 같은 불교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의 혼돈을 끊을 수 있는 엄격한 사원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교는 정부나 여타 사회조직들로부터 불교의 의지를 억압하고자하는 방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불교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지눌·기화(己和) 등에 의해 수용된 '상호관계의 근본적인 전형'을 형성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관계의 근본적인 전형'이란 부처님 '진리'를 중시하는 수행 불교로써의 확고한 위상과 정부·타기관 등과 같은 사회집단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와 포용으로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정신가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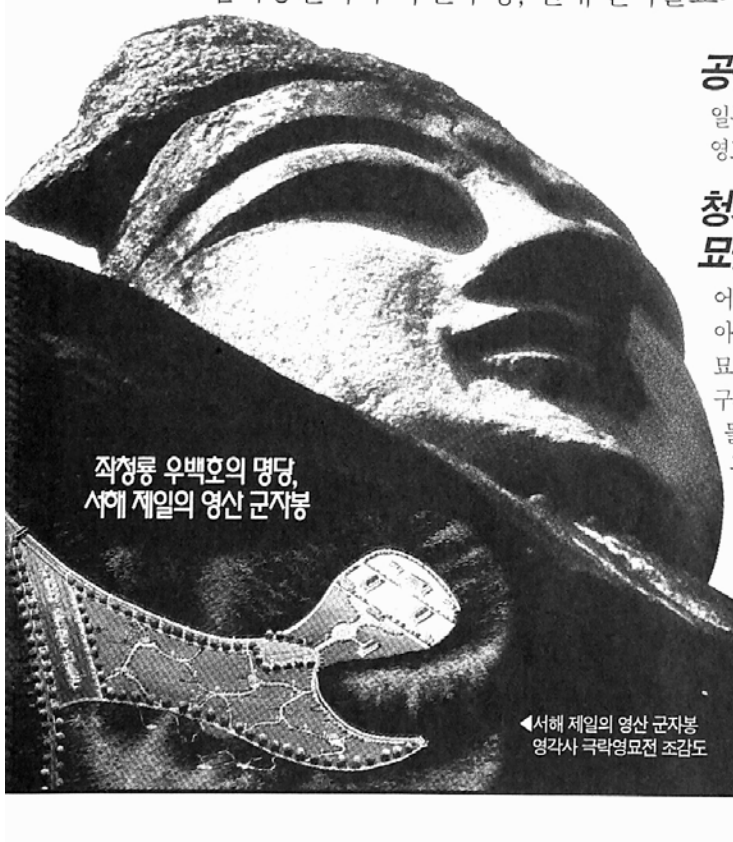
-시대와 상관 없이 불교는 수행의 전통을 지킬때 깨달음이란 궁극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현대의 고도화된 물질문명은 철저한 수행을 멀리하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보사회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다 준 편리함 뒤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는데 이에대한 불교적 치유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불교는 현대과학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주요 종교로 균형 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순전히 분석적 기술에 의존해 발전되었기 때문에, 항상 단상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과학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개별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간은 타인과 세계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현대과학의 분석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합적인 면을 더욱 강조합니다. 통합적인 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존재가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갖는 우주적인 인간으로 자신을 보도록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르러 불교가 능동적인 수행을 통해 '모든 객체의 연관성'을 천명했던 것과 같이 현대과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인류의 터전인 우주가 거대한 연결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현대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곳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비관주의가 팽배해진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교는 인간의 생명과 정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확고한 체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때문에 21세기의 불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화장(茶毘) 하셨습니다!!

삼국통일의 주역 문무왕, 현대 한국불교의 큰 별 성철 큰스님 등 역대 고승대덕과 수많은 위인들도 모두 화장하였습니다.



◀서해 제일의 영산 군자봉 영각사 극락영묘전 조감도

공원형 납골당 (영묘전) 탄생!!

일본 보다 훨씬 앞선 기술로 호텔과 궁전식을 조화한 영묘전 (납골당)에 귀중한 분의 영골을 봉안 해 드립니다.



청개구리는 냇가에 어머님의 묘를 쓰고 비가오면 슬피 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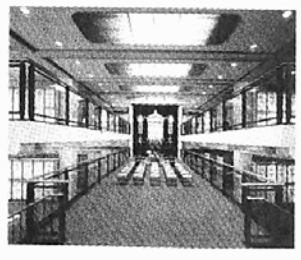
어머니의 묘가 비에 떠내려갈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묘소가 유실되는 일이 허다 합니다. 묘소가 유실되면 영령은 안주처를 잃고 육신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지 못해 중음신으로 구천을 떠돕니다. 화장하여 사찰 납골당에 봉안하면 육신은 화염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령은 천도염불로 극락정토의 길을 찾아갑니다. 조상님의 영령을 부처님의나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것, 후손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영묘전 회원모집

●**개인단** 최고급 도자기의 납골기와 원목 전통공에 나전칠기로 제작된 납골함에 소중하게 안치됩니다.

●**부부단** 불상과 제단이 설치되고 영령의 유품을 보관하실 수 있으며,부부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 극락으로 천도됩니다.

●**가족단** 불상, 제단,유품보관함들을 설치하고 3대가 영원히 봉안되므로 우리 고유의 조상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종발생 → 영묘전 사업본부 → 장례 서비스 → 케딜락 영구 세단제공 → 영묘전 영구관리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영각사 영묘전의 4가지 특장점

價 명당을 찾기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利 기존의 장의사의 문제점을 감안 토탈 써비스화으로 회원분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信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 조상의 묘를 언제든지 후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립니다.

安 한번 회원가입후 천재지변 등 외에 손상 ·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자자손손 관리할 수 있게 책임져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재단법인 영각사 극락 영묘전
TEL: 0345)498-7700~2 / FAX: 0345)498-7703

사업본부 JIHO 지호실업(주)
TEL:(代)02-3443-2788,7270 / FAX:02-3443-2787



초파일 지상법석

"매일 매일 참회진언 합시다"

벽 암 스 님 〈신원사 조실〉

약력

- 1924년 경남 남해 生
- 25년 일본 관서공업전문대 졸
- 46년 서울 호국사 역경원서 적음 스님 은사로 득도
- 49년 역경원 대교과 졸업
- 60~66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 68~75년 선학원 원장, 이사장 역임
- 68~73년 동국학원 이사장
- 72~75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86년~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

"2620년전 부처님 이땅에 오심으로 모든 중생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았고 인류는 자비·평등에 눈뜨기 시작"

인과믿고 선업 저축하면 '잘사는 길' 절로 열려

사월 초파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우리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신 것입니다. 자신만이 깨달은 진리를 가엾은 중생들에게 회향하기 위해 그 몸을 우리곁에 드러내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불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불성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존엄하고 평등하며 자비로워야함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한 생을 어떻게 살고 왜 사는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오심으로 삶의 나침반을 찾은 셈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위한 무주상 보시

따라서 우리 민족은 불법(佛法)을 만난 이후부터 사월 초파일을 최대의 명절로 기려왔습니다. 무지를 깨고 지혜를 밝히는 등을 만들어 달아 그 빛을 폈으며,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등을 밝히고 보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무리를 지어 탑을 돌며 부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전 백성의 민속축제로 치러지던 이런 초파일 의식과 놀이들도 서구의 종교와 문물이 밀려들면서 요즘은 점점 위축되고 있기는 합니다. 마치 물질 앞에 가위눌린 현대인들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외형이 변한다고 해서 근원과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각고의 6년 고행결과 마침내 성도하시고 45년 전법도생에 나서신 그 생애와 진리는 불변인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이 진가를 드러내느냐 못드러내느냐 하는 것은 중생 각자의 인연 소치인 것입니다.

귀한 가르침을 뼈저리게 가슴깊이 인지하고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실천해내는 중생은 복이 있는 중생이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밝은 깨침이 무엇인지 조차 알기는 커녕 들어보지도 못한채 무명 속에 살다 가는 것입니다. 박복중생인 것이지요.

부처님은 법신불(法身佛)로 처처에 상주하고 계신데 오고감이 있지 않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로 끝없는 가지가지의 중생을 요익케 하십니다. 물에 사는 중생은 물의 요익을 얻고, 육지의 중생은 땅의 요익을 얻고, 물속의 중생은 물속의 요익을 얻고, 허공의 중생은 허공의 요익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특별히 챙기면서 기리는 것은 우리 인간과 곡 같은 모습으로 나투셔서 눈높이를 맞추신 화신불(화신불)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무량억겁 전에 연등불소에서 수행하실 때에 그 부처님에게 "너는 미래세에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석가모니불이 되어 무량중생을 제도하리라"하는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 여러 부처님이 출현할 때마다 수행을 쌓아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는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천인(天人)들을 교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교화할 인연이 닥쳐옴에 흰 코끼리를 타시고 사바세계에 내려오셔서 마야부인에게 탁태하시어 마침내 강탄하셨습니다. 사생의 자부 이시고 삼계의 도사이신 부처님은 그렇게 나투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 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생들 사이에서 보기에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많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부처님의 종자인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 나 없이 부처님과 같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천 6백 20년전 부처님이 이땅에 오시면서 인류는 자비와 평등이라는 사상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 중생들은 한결같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부르고 몸편한것 입니까. 거기다가 맘도 편하면 더욱 좋겠고.

그러나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인간의 완성인 성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서 성불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어쩌면 세속과는 다른 출세간의 스님이나 하는 풀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런 자세의 기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인과를 이해하면 더 극명하게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작은 악도 가벼이 말라

흔히들 이렇게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대는 다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다 같아야할 터인데 어찌해서 어떤 사람은 추악하며, 어떤 사람은 현세에서 과보를 받고 어떤 사람은 후세에 가서야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답은 그 행위를 따라 이런 과보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거울을 들여다 보면 내 모습이 거울에 나타납니다. 연꽃을 거울에 비치면 연꽃이 거울에 나타납니다. 즉 거울이 그 대하는 사물의 모양에 따라 비추이는 모습이 각기 다른 것과 같습니다. 밭에 배추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고 무씨를 뿌리면 무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가 각기 자각하지 못하지만 저절로 싹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업(業)의 본성도 이러합니다.

온갖 중생은 제 번뇌로 지어진 업에 의해 그 몸과 사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받는 고락(苦樂)의 과보 모두가 다 현세의 업 때문만은 아니며, 그 원인이 과거세에도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어서 인(因)을 짓지 않는다면 미래에 받아야 할 과(果)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우주와 인생은 모든 유정물들이 제각기 지은 업력에 의하여 각자의 환경과 그 자신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업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지장보살님이 보현보살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업력이란 매우 큰 것이어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며, 능히 큰 바다 보다도 깊으며, 능히 성도(成道)의 장애가 되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작은 악이라 해서 가볍게 알아, 죄가 없는 듯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죽은 뒤에는 과보가 있어서 아무리 미소한 것이라도 모두 받게 마련입니다. 피를 나눈 부자사이라 할지라도 사후에 갈 길이 각기 다르며, 설사 만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과보를 대신하여 받아줄 수는 없는 터입니다." 참으로 업력은 준엄하며 공평하고 철저한 것입니다. 지은 만큼 받는 도리외에는 달리 피할 길이 없는게지요.

그리고 나는 어려서 큰스님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업은 외상도 에누리도 없다"는 말씀 말입니다. 이것이 업인업과(業因業果)의 철칙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잇게하는 곡식도 씨로부터 싹이 나오고, 싹으로 부터 줄기와 잎을 치고 그 결과 열매가 있어서 생겨납니다. 씨를 떠나서는 열매가 생길 도리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과(業果)도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상속해 생겨나 이에 과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극락 지옥도 마음따라

그렇다고 좌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무슨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숙명론이니 하는 것처럼 정해진 이치대로 불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찰나찰나 선과 악이 교차합니다. 순간순간 극락이 되었다가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주만물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변화무쌍합니다. 선업과 악업을 무수하게 쌓으니까요.

따라서 '잘 사는 길'이란 인과를 믿고 인과가 무서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 앞에서 고생스럽다고 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인연으로 초래된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할 수 밖에 없겠구나 하고 헤아리는 그 생각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많이 배워서 얻는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인과를 살피는 혜안입니다, 지혜있는 이는 설사 전생의 악업으로 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풀어나가야 하는 길을 스스로 찾게됩니다. 그래서 힘든 삶도 가닥을 잡아가며 해결해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세상말로 잘난척을 합니다. '대현대우(大賢大愚)'라는 말도 있지않습니까. 크게 현명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과를 믿다보면 인과에 작용하는 업력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업력이 무섭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업력이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성불에 이르는데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악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두터운 업장을 모두 녹여야만 완성된 인격인 성불에 이르게 되니 말입니다. 알게 또 모르게 지은 업장을 눈 녹이듯이 녹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참회하십시오. 두터운 업장을 소멸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중생들은 육도의 거리에서 숨바꼭질 하듯이 삼계에 윤회합니다. 탐, 진, 치 삼독망념을 내서 삼계고해에 윤회하는 자신을 구제하겠다는 자각에서 참회를 하도록 하십시요. 나는 건강이 좋지않을 때라도 매일 하는 참회진언을 반드시 합니다. 다생겁래로 신(身) 구(口) 의(意)가 지은 업을 참회해 버리겠다는 원력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이 진심으로 다시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참회하면 그 한 생각에 다 탕진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바싹 마른 풀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과에 어긋난 말이나 행위를 하지않고 또한 마음 조차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단독운행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마련인데 양심에 빗대어 좋은 일만 하세요. 그것이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즉 선업을 저축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되면 업장소멸은 저절로 됩니다. 업의 노예가 되지말고 업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큰스승 발자취」 전하기 운동

「큰스승 발자취」를
소중한 분에게 전하십시오.
받으시는 분과 드리시는 분의
芳名을 고운 書標에 적어 드리며
(100부 이상은 인쇄)
郵送도 代行하여 드립니다.

2540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인의문화 서울 · 서대문구 충정로2가 47
전화 363-2555 팩스 392-4619

2540 부처님 오신 날!
아름답게 피어오른 연꽃 열세송이!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소중한 분에게도 전하십시오!

2540 부처님 오신 날
숨돌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우리는 사람이 걸어야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 혼탁하고 메마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스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큰생각으로 크게 사셨던 분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큰스님들의 삶을,
일화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설로 엮은 책이 이제 열세권이 됩니다.
큰스승 열세분에게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듬뿍 얻으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분에게도 전하십시오.

BBS 인기드라마/구도소설/윤청광 지음
고승열전 13권출간!

1 청담 마음에 타는 불 무엇으로 끄려는고
2 효봉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고
3 만암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
4 동산 벼슬도 재물도 풀잎에 이슬일세
5 금오 큰생각 크게 먹고 크게 살아라
6 만공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서 괴롭고···
7 전강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8 고암 도를 묻지 말고 나눠주며 살게나
9 경봉 물처럼 사노라면 후회없으리
10 용성 작은 솔씨가 낙락장송 되나니
11 한암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간들 무엇하리
12 운허 영원한 내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네
13 영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네

● 13권 출간/각권 300쪽 내외 ● 각권6,000원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선사

총무원
총무원장 전운덕
총무부장 김도원
교무부장 박덕수
교육부장 김국성
재무부장 남궁도재
사회부장 이문덕
규정부장 변춘광
종정사서실장 박법전

종의회
종회의장 윤덕산
부의장 김국성
부의장 김길두

감사원
감사원장 주정산
감사위원 조진덕

참의원
참의원장 박형철
중앙신도회장 김유혁
종전역경원장 이창섭
종전연구원장 김영태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
구인사전문강원 김지복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전화: 0444 - 423 - 7100 ~ 8 ■팩스:0444 - 20 - 3399

대한불교 진각종

총인 각해 /총인 사서실장 휴명

통리원
통리원장 락 혜
총무부장 진 산
재무부장 혜 인
홍교부장 덕 혜
건설부장 대 경

종의회
의 장 혜 일
부의장 일 정
부의장 복선정

교육원
교육원장 성 초
교법부장 혜 정
교법부장 관 중

사감원
사감원장 진 당
사감부장 혜 명

진각대학
학 장 성 초
교무부장 의 현

서울 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전화: 02 - 913 - 0751 ~ 3 ■팩스:02 - 915 - 6032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석혜암

승정원장 석정원
총무원장 석마정
부원장 이진공
중앙종회의장 석죽산
부의장 육대월
부의장 민유공
사정원장 석해성

부원장 석보공
교육원부원장 함연호
포교원장 지혜봉
문화원장 석해우
수선원장 장태조
사무총장 석덕치
총무부장 석청강

교무부장 서영암
사회부장 양벽암
규정부장 석해석
의전부장 석마운
재무부장 한묘덕
홍보부장 조법운성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6 - 18호
■전화: 02 - 425 - 0108 ■팩스:02 - 424- 6639

대한불교 진언종

종정 제산 양승윤

원로원장 현주 서영욱
원 로 석암 박준석
종리원장 보인 송만석

총무부장 손임숙
사회부장 변덕희
부녀부장 최귀분

종회의장 혜경 정재진
호법원장 육자 이정희
감사원장 해공 현대락

전국 신도회 회장 조광남

종리원: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52 - 2 (용두진광원내)
■전화: 02 - 967 - 2479 ■팩스:02 - 968 - 3350
※본종 종리원 사무실이 부산에서 위 주소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오니 사무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김대천

총무원장 이홍파
총무부장 김지섭
교무부장 황법명
재무부장 김경철
사회부장 김성철
포교부장 정법성
조직부장 이종현

원로원장 이혜웅
종회의장 정법륜
부의장 신무본 · 정춘담
교육원장 김동령
수교부장 홍지묵
역경부장 오혜원
감찰부장 김화엄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 - 3
■전화: 02 - 763 -3109 ■팩스:02 - 763- 5851

불교 총지종

종령 록정

통리원장 법 공
총무부장 원 봉
사회부장 혜 암
교정부장 사홍화
재단사무국장 지 성
법장원장 효 강
법장원기획실장 화 령
중앙교육원간사 법 경

종의회의장 송 하
부의장 우 승
사감원장 총지화
서울 · 경기 교구장 경 판
부산 · 경남 교구장 의 강
대구 · 경북 교구장 수 성
충청 · 전라 교구장 사홍화

서울시 강남구 역삼 2동 776 - 2
■전화: 02 - 552 - 1080~3 ■팩스:02 -552- 1082

대한불교 해동종

종정 석봉

원로원 원장 인 현
위원 경호, 선기, 대경, 순주, 상근, 해상, 덕균, 용우, 제형
총무원원장 송 산
부원장 법 성
중앙종회의장 성 타
사정원원장 법 봉
연수원원장 선 기
포교원원장 대 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대 경

서울 종무원장 무 주
강원 종무원장 대 근
경기(인천)종무원장 담 원
충북 종무원장 법 운
충남(대전)종무원장 경 희
경북(대구)종무원장 지 원
경남 종무원장 백 담
전북 종무원장 혜 원
전남 종무원장 혜 암
일본특별종무원장 평 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 - 1
■전화: 0331 - 281 - 0606, 262 - 1577 ■팩스:0331 -262- 1577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한귀하
의장 정회수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인천 직할시 남동구 간석 3동 산 21
■전화: 032 - 422 -2066~7 ■팩스:032 - 422- 0413
서울 사무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101호
■전화: 02 - 730 -0798~9 ■팩스:02 - 722- 3205

財團法人 大韓佛敎一鵬禪敎宗
江原敎區宗務院

宗務院長 金大宇
宗務局長 姜法光
布敎局長 朴光宣
社會局長 李寶海
事務局長 尹雪岩

宗務委員 金圩畔
宗務委員 鄭明菴
宗務委員 金月谷
諮問委員 金大虎
諮問委員 李枋俸

江原道 寧越郡 寧越邑 永興八里 〈光德寺〉 內
■전화: 0373 - 374 - 3936 ■팩스: 0373 -73- 3936

사단법인 한국 불교 교화원

총 재 이외윤
부총재 김병희
이사장 직무대행 이원산(용천사)
교화원장 정창교(도림사)
포교사회장 백운월(불교여래원)
통신대학원장 한정섭(상락향수도원)
이 사 안경우(안양원)
이 사 배창륜(송암사)
이 사 이상하(수월사)

이 사 배정길(청소년 독서실)
이 사 권세철
이 사 주명식
이 사 김차례
이 사 양승희
이 사 김익순
이 사 이정명(유마정사)
감 사 허기림(기관차 법우회 회장)

기획·연꽃세상

부처님오신날 특집

"진흙에 몸 맡겨도 청정자태"

다년생 초본식물 원산지 인도… '상락아정' 비유
3천년된 씨앗서도 꽃피워 생명력 입증
함평 우포 늪지대·영암 백련사등 '연꽃 장관'



◇진흙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워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연꽃. 사진은 작가 이승민씨의 작품.

"극락세계의 보련화(寶蓮華)에는 백천억개의 많은 꽃잎이 있고 그 잎은 무량한 광명을 나투며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는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타난다"

〈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의 연꽃을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이 나투는 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십대승론석〉에서는 '연꽃에 네가지 덕이 있어 첫째 향기, 둘째 깨끗함, 세째 부드럽고 연함, 네째 사랑스러움이다. 저 법계진여를 총괄하면 네 덕이 있고 상락아정에 비유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화경〉 '용출품'에서도 연꽃이 진흙탕 물속에서 나도 그 진흙물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람이 세상의 더러운 티끌에 오염되지 않음을 설하고 있다.

번잡스러운 세간을 초탈한 성자와도 같다는 의미에서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인도 이집트 티벳지역을 비롯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등 동양권에 고르게 자생하고 있는 연꽃은 장수 건강 명예 행운 군자를 상징 하기도 한다.

불보살 비유 설화 다양

연꽃을 국화로 삼고 있는 인도나 이집트를 비롯 연꽃이 자생하는 나라 대부분에서도 존귀한 의미로서의 연꽃이 등장하는 설화가 많으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권의 나라에서 연꽃과 관련된 불교 설화를 듣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부처님께 연꽃을 바치는 것을 소중한 공양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극락세계를 연화세계라 하고 극락정토에 나는 것을 연화왕생, 연꽃 모양의 불좌를 연좌, 깨끗한 가사를 연화의, 법화경을 묘법연화경, 건물 모양의 등을 연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교와 연꽃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게 한다. 불교건축이나 조각작품에서도 연꽃 문양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려 연등을 밝히는 것도 부처님의 무량한 지비로 사바세계를 밝힌다는 뜻이다. 그만큼 연꽃은 오랜 세월동안 불교의 꽃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 받은 것이다.

연꽃은 수련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원산지는 인도다. 수련과 연으로 나뉘어 지는데 불교에서는 수련보다 연을 중요하게 여긴다. 연은 꽃과 잎 줄기 뿌리로 나뉘지며 잎은 땅속 줄기에서 나온다. 잎자루는 길고 물위로 올라오거나 물에 떠서 자란다. 잎의 지름은 40센치 정도나 되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잎자루와 뿌리줄기 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와 꽃이 핀다. 꽃이 지고나면 10월에 벌집 모양의 열매가 갈색으로 익으며 그 속에 타원형의 씨앗이 들어 있다. 씨앗의 강한 생명력은 40여년전 일본에서 입증된 적이 있다. 1951년 일본에서는 3천여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단한 씨앗 3개를 발견 53년에 토쿄의 박물관에 심었다. 3년 후인 56년 봄에 싹이 텄는데 연잎이었으며 8월에는 연꽃이 피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지금도 토쿄에는 그 연이 번종하여 이룬 연못이 구경거리로 사랑 받고 있다.

연은 색에따라 청련 홍련 백련 황련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하(荷) 연방(蓮房 극락이란 의미) 연자 연실 연적 연육 우자 우절 우수 우분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흰빛을 내는 백련은 더욱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연꽃은 각 부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일컬어 진다. 열매 속의 씨앗을 연방 연밥 연자 연실로 부르고 연엽 하엽 연입등은 연 잎을 연근은 뿌리를 부르는 말이다.

연은 화강암계 반암계 화강편마암계 변성퇴적암계등의 토질에서 잘 자라며 종내육종법 분주법 실생법 생태육종법등으로 번식되지만 주로 분주법에 의해 번식된다. 연꽃은 우리나라의 중남부지방에서 많이 자생한다. 연못에 소규모로 피기도 하고 대단위 늪지대에 피기도 한다. 뿌리가 식용으로 호평 받기 때문에 대형 재배지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꽃을 심은 곳이 경북 상주지방이라 하나 지금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연못으로는 함평의 우포 늪지대(가시연꽃이 자생하는 유일한 늪)와 전남 무안의 일노, 영암 백련사 인근, 전주 덕진공원, 경북 경산지역, 경기도 양수리 일대등이 꼽힌다. 연근 농사의 경우 연근채취의 잎이 함들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신설 공원에서 연못의 조성은 필수적이기도 하다. 일노 지역의 경우 무안군이 10만평의 연못에 연을 번식시켜 연꽃 축제를 매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예술가들에게도 사랑

연꽃은 예술의 소재로도 오래동안 사랑받고 있다. 묵화를 치는 사람들이 연을 많이 그리고 시인들도 연꽃에 시상을 즐겨 담았다. 특히 시각적으로 연꽃이 주는 이미지가 강해 사진예술가들의 포커스를 많이 받기도 한다. 불교계에서는 선암스님 동욱스님등 승려 작가와 이승민 이영자씨등이 전국의 연못을 누비며 카메라에 연꽃을 담고 있다.

암연태 기자

식용·약재로 쓰이는 蓮

연근 건강식…떡·국수·차 재료

잎—지혈제·야뇨증 치료
열매·씨—부인병에 효능
꽃—불면증·신장염·요통

연꽃은 관상용 이외에도 식용과 약용으로 긴요하게 쓰여 왔으며 그 쓰임새는 지금도 계속 연구 개발 되고 있다.

식용으로는 연근이 가장 많이 쓰인다. 가을에 캐어 갖은 양념을 해 졸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식이 가능하기도 한 연밥은 곱게 부수어 떡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기도 한다. 잎과 열매로 술을 담가 먹기도 한다. 건조하여 차로 음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방이나 민간에서 약재로도 애용되는데 잎은 알칼로이드와 타닌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수렴(收斂) 혈관의 오므라드는 현상)이나 지혈제로 사용하거나 야뇨증을 치료 하는데도 쓰인다. 산전후상, 피를 맑게 하는데도 효능을 보인다. 연근은 강장제로 오래전부터 효평 받아 왔으며 열매와 씨는 부인병 치료에 좋은 효능을 보이기도 한다. 꽃은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안면(安眠)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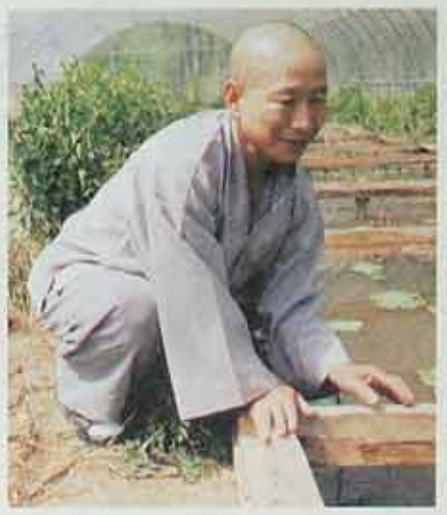
이밖에도 폐렴 신장염 각혈 해열 건위 신경쇠약 임질 요통등 여러 병에 다른 약재와 함께 쓰인다.



◇연밥이라고도 하는 연의 씨앗은 약이나 식용으로 요긴하게 쓰인다.

인터뷰

백련 가꾸기 수행삼는 인취사 혜민스님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백련의 모종을 돌보고 있는 혜민스님.

"무언의 설법으로 번뇌를 녹여줍니다"

백련 음용차로 개발…매년 만개때 축제 열어

"백련은 연꽃중에서도 으뜸입니다. 고운맵시와 짙은 향은 세속의 번뇌를 녹이는 무언의 설법이거든요. 그 설법을 듣기위해 백련을 기르는 겁니다."

아산 인취사의 백련은 7년전부터 혜민스님이 연못을 조성해 심으면서 해마다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백련에 관한한 도가 텄다'는 평을 받고 있는 스님은 백련을 심고 가꾸며 번식시켜 나눠 주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 있다. 스님은 절 입구의 5백평짜리 연못 외에도 2백평 규모의 연못을 새로 조성해 올해부터 연 모종을 심을 계획이다.

연 모종이 쉽지 않아 스님은 고무통에 멸루리씩 육묘를 하여 안전하게 모종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절 주변에 고무통 수 백개를 묻어 조성한 모종밭이 그대로 연밭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백평 넘는 비닐하우스도 설치해 흙을 곱게 채 쳐 넣고 연을 가꾸고 있다.

해마다 백련이 만개하는 7월 초순이면 시 서예 그림 국악을 즐기는 동호인들을 초대해 시사(詩社)를 열어 흥을 돋구기도 한다.

스님이 연못을 조성한 것은 간송박물관 학예실장 최완수씨로부터 백련 몇송이를 분재 받은 인연에서 시작된다. 그 백련은 조선초기의 학자이자 원예에 조예가 깊었던 강희안의 가문이 대대로 가꿔 온 연못에서 분재된 것이었다. 백련을 정성스레 가꾸면서 스님은 연꽃이 갖는 우주적인 오묘함에 놀라게 됐다. 그 오묘한 경지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 못한다"고.

"연꽃의 원산지인 인도에서는 백련을 특별히 생각 했습니다. 백련을 라지브라고 부르는데 신을 낳은 어머니란 뜻이지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백련을 바쳐 예의를 표현합니다. 원래의 모성으로 돌아 간다는 의미로 통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백련은 따로 관리인을 두고 관리했다고 합니다. 백련만도 10여종이 있는데 우리 절에는 필때 큼이 붉은 빛을 띠는 것과 희다 못해 푸른 빛을 띠는 것이 있습니다."

향이 홍련의 세배나 되는 백련을 음용 차로 개발 하는 것이 스님의 화두다. 여러차례 실험을 통해 스님은 백련꽃을 그대로 냉동건조하여 차로 우려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한송이로 30여잔의 차를 우려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엽차보다 값싸게 보급할 수 있을 겁니다. 건조시설과 포장시설을 갖추고 연을 농가에 보급해 꽃을 다시 사들이면 어렵지 않게 양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거고요"

스님은 올해 절에 백련을 연구할 연구실도 지어 연잎 엑기스를 개발 상품화 할 생각이다. 백련을 가꾸며 사진을 찍다보니 이제 스님은 웬만한 작가보다 높은 안목으로 연을 렌즈에 담는다. 그간 찍을 사진만도 몇권의 작품집을 펴낼 만한다.

또 스님은 40여년간 추사의 서법을 사숙해 왔다. 매년 추사의 생일(음력 6월 3일)과 기일(음력 10월 10일)에는 다례를 올린다. 스님에게 서도를 배운 사람 가운데 국전에 특선한 사람도 있지만 스님은 한번도 전시회를 열지 않았다. 다만 평생의 원력불사로 〈화엄경〉 금사경을 하고 있다. 스님은 명주에 순지를 배접해 만든 독특한 바탕에 금분으로 〈화엄경〉을 사경하는데 20년을 잡고 하는 불사다. 완성되면 그 길이가 2키로미터가 넘는데 그 작품은 화엄대탑을 세워 봉안할 계획이다.

아산=임연태 기자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종교사회 종교화합

"남의 종교 인정…대화로 공존을"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저하지 않고 '종교간의 갈등'을 꼽는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이기심과 배타심으로 무장된 종교집단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사회도 '종교의 박람회장'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서로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사회불안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폐쇄적 종교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화합과 공존을 위해 세계 다종교국가 현황과 종교갈등사례를 점검하고 종교학자 및 각 종교지도자들에게 해결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강춘오/교회연합신문 발행인



1. 화합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 다종교사회인 우리 사회만큼 종교적 갈등이 없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2.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이기주의로 인한 경쟁심리 때문이다. 종교 내부의 교권 갈등이 타종교를 비난하는 것으로 선명성을 유지하려는 치졸한 사고도 영향을 미친다.

3. 종교간의 갈등 방지는 무슨 선언이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진솔한 이해가 중요하다. 목사와 스님이 자주 만나는 모임이 필요하다.

김재일/불교 동산반야회장



1. 종교갈등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찰이나 법당에 불을 지르거나 부수는 현실은 심각할 지경이다.

2. 종교집단이기주의, 타종교배타주의, 종교 본래의 목적 망각, 종교만능주의의 만연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쉽다.

3. 종단 내적으로는 평화제일주의, 생명의 존엄성 선언 및 신도교육의 활성화. 각 종교끼리는 사회봉사 연합 행사, 종교마찰 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하다.

김상근/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장



1. 화합분위기를 깨뜨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될 소지는 곳곳에 있다. 불상에 대해 모욕적인 행위를 한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종교가 같은 15대국회의원 총선 당선자들을 모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모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2. 정복주의적인 신앙유형이 파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나의 신앙이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다른 종교나 세상에 대해서 세를 과시하려는 세속주의적 사고도 문제이다. 다른 종교와 이른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종교적 패권주의도 종교갈등의 큰 원인이다. 기독교의 유일신관은 반드시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갈등의 원인을 기독교쪽에서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3. 가르침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 타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인류가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선 추구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인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종교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종교의 대표자가 공식으로 사과한다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종교지도자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개하며 함께 일하는 솔선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외형적인 규제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재중/천도교 교령



1. 종교간의 갈등은 없지 않으나 우리 사회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해 요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2. 타종교를 무조건 이단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3. 대표자들의 모임을 통한 화합선언 등 매스콤에서 지도자들간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준철/천주교 서울대교구 선교국장



1. 일부 종교들에 의해 초래된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낀다. 특히 상대 종교를 비난 매도하는 행위는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몇몇 종교들 간에는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가 나날이 깊어지기에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2. 타종교에 대한 무지와 자신의 종교로써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숙되지 못한 신앙심에서 기인한다.

3. 보다 많은 종교인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서로 만나 대화를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종교체험과 수련방법도 나누며 사회에 대한 종교의 역할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석희/천주교 안동교구 주교

1.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의 많은 종교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



2. 어느 종교에서든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소수의 종교인이 있다. 이들이 종교간의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3. 종교지도자들과 교역자들이 신도들에게 타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대화는 타종교인을 개종시키겠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 자기 종교의 진리와 선을 바로 파악하는 진실된 종교인에게 이런 설문 자체가 쑥스러울 뿐이다.

박진탁/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장



1. 심각한 상태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남을 짓밟거나 비하시키는 등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흔히 본다. 가끔 개종자들이 과거에 자신이 섬기던 대상을 비하시키고 새로 만난 대상을 턱없이 부추긴다. 그럴 때 슬픔을 느낀다.

2. '큰 나'를 보지 못하고 '작은 나'를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면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미 바른 의미의 종교가 아니다. 종교갈등의 원인은 종교가 종교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3.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불교의 새생명나눔실천회와 가톨릭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연합하여 납골당건립과 골수기증운동을 펼치는 등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다. 크리스찬아카데미 등에서 벌이는 종교간의 대화 프로그램은 좋은 예이다.

방윤석/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장



1. 사회의 화합을 해칠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개신교와 불교사이에 약간의 마찰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잠재적이라고 본다.

2. 특정종교 신자들의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등이 불교계의 반감을 샀다고 본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일괄징수하는데, 사찰을 종교간 대화의 장을 열어 서로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심각한 종교갈등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종교지도자에 듣는 화합방법

설문내용

1. 종교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화합 분위기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례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2. 종교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종교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종교간의 화합을 도모할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예, 종교마찰방지법, 각 종교대표자들의 화합선언 등)

백남익/천주교 주교회의사무처장



1. 종교간의 갈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화합 분위기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자신의 종교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타종교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경우. 타종교의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성급히 판단하는 태도. 잡단이기주의화 현상.

3. 사랑의 실천을 위한 활동의 공동 추진.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에 식량보내기, 주왕산 산불 이재민돕기, 장애인 복지사업 등. 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연 상태에서 종교간 대화의 장을 열어 서로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심각한 종교갈등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성타/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1. 김영삼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와 이에따른 불교도의 법회활동 방해, 교육개혁위원회의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제의 도입으로 우리 불교도는 편치 않은 심정이다. 그러나 화합을 깨뜨릴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한다.

2. 화합과 관용 그리고 종교의 요체인 자비정신의 발현이 인색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3. 종교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각 종교지도자와 종도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도 북한수재민을 돕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을 종교인들이 함께 펼칠 것을 제안한다.

교황청 봉축메시지

폭력·증오로 분열…"서로 협력하자"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은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를 발표하고 사랑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프란시스 추기경은 메시지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는 불자들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며 "부처님 오신날은 다른 종교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축하를 보냈다.

또 "부처님 오신날은 각자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함께 성찰해보는 기회"라며 "불교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다같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관용'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프란시스 추기경은 "관용은 참아주는 것으로 또는 정중한 대접 정도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체념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는 참된 화합과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실제로 이웃을 우리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력과 증오로 분열된 세상에서 사랑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최근덕/성균관장



1. 어느 정도 사회불안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청와대의 특정종교에 대한 편애가 은밀히 종교갈등을 느끼게 하였다. 단군성조의 부정, 강한 교세의 과시는 서구의 약육강식적 자세이다. 종교가 세력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있는 정책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특정한 종교가 타종교에 비하여 세력화를 과시하고 있다. 동양적 전통종교인들은 민족의식을 전제하나, 일부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종교인이 있다.

3. 종교대표자들의 화합선언도 나쁘지 않으나, 그것은 형식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공중질서를 방해하는(예:길거리 전철안, 가가호호 방문 전도) 전도활동을 방지하는 법률 성안이 필요하다. 특정종교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안의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최영길/한국이슬람교 재단이사장



1. 종교간의 갈등은 나의 욕심과 각 종교의 본분을 망각한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부처님의 자비는 나보다는 중생을 먼저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2. 종교간의 갈등은 바로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의 참된 진리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 각 이해집단에 맹종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선하고 착한 종교인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또는 물질적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사회 각 이기적 집단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불교는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타종교인을 초청하여 자비를 베풀고 기독교는 불교인 이슬람교인 타종교인을 초청하여 사랑을 베풀며, 이슬람교는 불교인 기독교인 타종교인을 초청하여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을 제의한다.

한상범/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장



1. 타종교에 대한 대립의식이 보인다. 또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종교간 차별로 모순구조를 만들어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를 피부로 느낀다.

2.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과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 누적됨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3. 우선 정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층과 공권력을 움직이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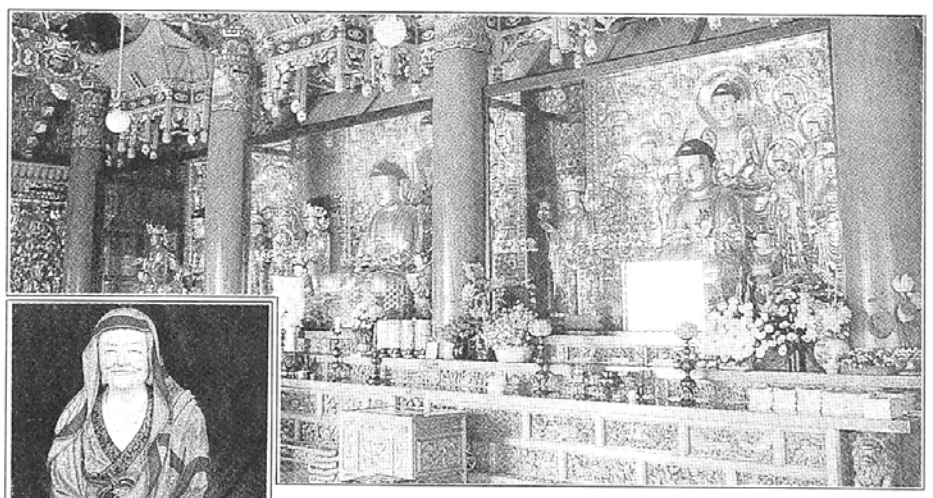
1. 종교갈등은 최근의 일만이 아니다. 기독교가 한국땅에 오면서 효사상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흔들었다.

2. 근래의 광신자의 작태는 종교갈등의 차원을 넘어 일부 종교의 근본병폐가 표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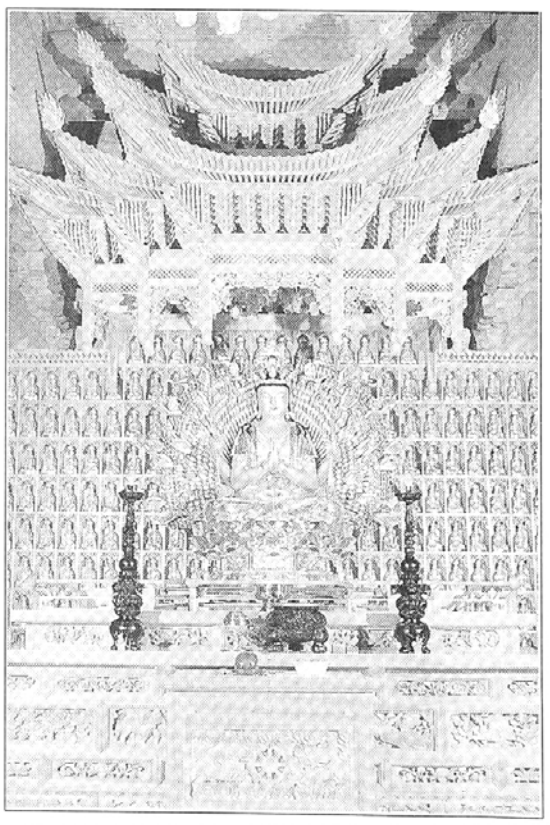
3. 선교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려는 자세가 고쳐져야 한다. 선교는 대상에 대한 고려가 우선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례이다. 그러나 양보와 관용을 요구하기에는 갈등의 폭과 넓이가 너무 깊고 넓다. 불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가나다 순〉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다종교사회 종교화합

부처님오신날 특집

전문가진단

"남의 종교 인정하지 않는 광신적행태 종교충돌 야기"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근래에 여러 사찰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 예년에 일어난 비슷한 시기의 비슷한 사례들을 비롯하여 이런 저런 정황을 참작하건데 아마도 다른 종교의 광신자가 주지른 짓 같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상황,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오래전부터 종교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종교상황에 들어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왔다. 종교의 절대적인 신념을 무기로 해서 서로 찔러대면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갈등의 실제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종교적인 절대 신념의 명분을 옷으로 입었을 때에는 아주 쉽사리 파국을 가져오고 만다는 점은 인류의 역사와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실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왕에 다종교상황을 맞고 있는 이상, 그런 위험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 곧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그러므로 그에 저해가 되는 그런 테러행위는 특정 종교에 대한 위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녕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종교상황이 안고 있는 위험성은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매우 민감하게 구체적인 충돌로 터져나온다. 패나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가기 어렵다. 그 갈등이 개인의 문제에 그칠 때에는 그나마 사회적인 충격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행여 종교집단 사이의 갈등이 되어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예년의 비슷한 사건들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범인이 검거된 경우 대부분 정신병자로 판명되어 처리되었다고 한다. 즉, 특정 개인의 정신병적인 광신이 그런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이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정신 상태 문제로 귀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개인의 정신 상태에 달린 문제라고 해도,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아주 버릇없이 구는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민망한 처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믿음이 나눔으로 승화될때 종교간 공동체의식 싹터"

길희성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얼마전 모 일간지에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청량리의 다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다. 다일 공동체는 주로 가난한 노인들이나 행려자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모임으로서, 조그마한 정성의 손길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일을 계획하여 무료 진료소의 건립까지 꿈꾸게 되었고, 이 꿈 역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실현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흐뭇한 이야기다.

일인 일백만원씩 성금을 내는 사람 1004명을 구해서 '천사의 집'을 짓기로 했는데 이미 그 숫자가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이 모금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는 불교 스님 20명, 가톨릭 신부 50명도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의 실천 운동에 스님들과 신부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무어 그리 특기할만한 일이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이 운동이 한 개신교 목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기에 나에게는 그 사실이 또 다른 종류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직감적으로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을 푸는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적으로 말해 종교는 교리나 제도, 사상이나 조직이기에 앞서 마음이요 실천이라는 생각이며, 종교간의 일치와 평화는 모든 종교인들이 바로 이 점을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부처님 같은 마음과 행동은 결코 불교인들만의 독점물일 수 없으며, 예수 같은 마음과 행동 또한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려는 것 외에 불교가 무엇이며, 예수의 마음을 닮으려는 것 외에 기독교가 무엇이겠는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존재로부터 남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다. 사랑은 종교간의 울타리마저 뛰어넘는 힘이며, 사랑을 외치는 종교들의 마지막 시험대는 종교가 사랑을 위해 굳게 닫힌 자신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터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의 물줄기가 종교간의 담에 의해 막혀 버린다면 아무도 종교가 전하는 인간구원의 메시지를 곧이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화·승려비하등 훼불사건 잇달아

종교갈등 사례

▨불교는 지옥?(1982년)—개종선교회를 뒤에 업은 명진홍씨가 '예수 천당, 불교 지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진행된 불교비방집회에서 '불교법당은 귀신의 종합청사'라고 주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승려사칭 불교비방(1985년)—허위로 승려를 사칭한 광명전도단원 김진규씨가 '나는 왜 승복을 벗고 목사가 되었는가'라는 현수막을 걸고 불교비방집회를 열어 물의를 빚음

▨예수재 오해 훼불행위(1990년)—사찰에서 봉행하는 예수재(豫修齋)를 자신들이 믿는 예수에 대한 모독행사로 오해, 여성들과 신학대학생이 불교비방 경고문을 부산 시내의 각 사찰과 신행단체에 부착 혹은 송부한 사건.

▨불교방송국 피습(1990년)—불교방송 개국 하루전 이교도로 보이는 괴한 2명이 침입해 경비원을 구타하고 불상과 기자재를 파손, 불교도들을 경악케 한 사건.

▨법당을 창고로(1993년)—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부대창고가 비좁다는 이유로 법당을 폐쇄하고 불상을 포대에 넣어 뒷산에 버린 사건.

▨스님에게 개종 강요(1994년)—목사 유승환씨가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비난하고 수도사 주지스님에게 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개종을 강요, 이기적 전도행위라는 비난을 받음.

▨사찰거주 노인 말다툼 후 사망(1996년)—법당에까지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온 광신적인 기독교인과의 말다툼 끝에 70세 노인이 숨져 세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

▨현직 교사의 교실전도(1996년)—경기 포천 송우초등학교 이모교사가 담당학급 어린이를 상대로 교회출석을 강요하고 이를 확인키 위해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등 학교에서 특정종교 선교활동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반발.

▨卍字가 십자가로(1996년)—동국대 경주캠퍼스 국기게양대의 卍字 회양목이 누군가에 의해 十자로 바뀐 사건이 발생. 상아탑에서조차 타종교를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준 사례.

▨공공관서 공문에 특정종교 문구 삽입(1996년)—부천시 원미구청이 부천 탁아소, 석왕사 룸비니 어린이집 등 7개 시설에 발송한 업무연락 공문에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이라는 특정종교를 표현한 문구를 삽입해 물의를 빚음. '주의' 조치로 해결.

▨김영삼 대통령 국군중앙교회 예배사건(1996년)—김대통령이 국군중앙교회 예배과정에서 기독교인 장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타종교인의 경계근무자를 변경하고 법당 및 성당의 출입을 통제, 불교계 거센 항의.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추진(1996년)—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관계법 시안이 개신교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불교계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불교계 여론을 무시한 방안이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사찰 연쇄 방화(1996년)—북한산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이교도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 방화사건이 발생. 정신착란 이교도에 의해 86년 금산사 대적광전, 87년 제주 관음사등 전소.

싱가포르 '종교간 마찰방지법' 제정

다종교국가 갈등현황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다종교 사회를 인정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점차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종교간의 미묘한 긴장관계 속에서 평화적 공존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종교간의 갈등이 표출돼 인명이 살상되는 등 심각한 유혈사태를 빚는 나라도 적지 않다.

인도의 경우 지난 92년 힌두교와 회교도간의 종교갈등으로 무려 9백여명이 사망하고 교통이 두절되는 사태를 빚었으며, 95년에는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간의 전투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갈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2년 다수계인 수니파와 소수계인 시아파 회교도의 충돌로 1주동안 최소 50여명이 사망하고 2백여명이 부상당하는 유혈충돌이 발생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도 신교도 극단주의자의 총기 무차별 난사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가톨릭과 신교도간의 종교분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불교국가인 태국의 경우 지난 93년 회교도들이 불교사원에 난입 수류탄 테러를 가해 예불 중이던 승려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불교와 회교도간의 종교분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전 인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톨릭과 6%의 소수인 개신교간의 갈등으로 곳곳에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기독교의 공격적 선교행위로 인해 타종교와의 마찰이 계속되자 '종교간 마찰방지와 평화공존을 위한 법안' 제정을 고려하는 등 정부차원서 종교간 마찰방지와 평화공존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종교연합·연구단체 사회참여·갈등개선 모색

종교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연합단체 및 연구기관은 현재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비롯해 대략 8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불과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교관련서적 출판이나 세미나 개최 등 활동이 한정돼 있어 명실상부한 종교화합을 다지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는 설립취지 및 중점사업, 활동상황 등을 중심으로 개별 종교연합단체 및 종교연구단체를 소개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불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개신교 등 6개 종교단체의 종교인들이 종교간의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1986년 창립했다. 종교인평화회의는 남북교류, 인권·환경, 여성, 청년, 종교간대화위원회 등 5개 분과를 기초로 남북종교교류 등 對사회문제를 종교적 시각에서 각 교단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가장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종교지도자 세미나, 종교인 환경워크숍, 북한수재민돕기 등 서울과 지방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종교인의 위상 확립에 전력투구해 왔 다. 특히 올해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종교지도자 세미나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해 종교인의 화합을 꾀할 방침이다.

◆**한국종교인협의회**=1965년 각 종교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 창립했다. 1988년 불교, 천도교, 개신교, 유교, 원불교, 천리교, 이슬람교, 통일교, 대종교 등 9개 종교 10개 종단이 참여한 종교연합단체로 창립 이후 종교간의 대화와 이해를 위한 세미나·간담회·연구모임 등을 개최해 왔다. 계간지 〈종협〉 발간과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국제 종교인 교류 협력, 해외성지순례,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對사회적 노력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종교간 공존과 상호존중의 토대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민족종교협의회**=1985년 민족종교 상호간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주체사상을 정립해 국가·민족의 융성과 세계평화건설에 기여함을 취지로 창립됐다.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태극도, 갱정유도, 증산법종교, 미륵불교, 증산교본부, 수운교, 천존회, 미륵대도, 청우일신회, 한불교 등 13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세미나 개최 및 각 교단별 도덕성회복운동, 자연보호운동 등을 전개, 민족종교 발전을 통한 사회발전을 꾀하고 있다.

◆**삼소회(三笑會)**=1988년 교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권견과 아집, 독선의 타성을 깨고, 종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불교·원불교·천주교 3개 교단의 여성성직자 90여명이 창립했다.

창립 첫해인 88년 서울 세계장애자올림픽때 이들을 위한 '삼소음악회'를 개최하고, 국내 뇌성마비장애자와 제3세계 기아들을 돕기 위한 사회전을 개최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여성문제에 대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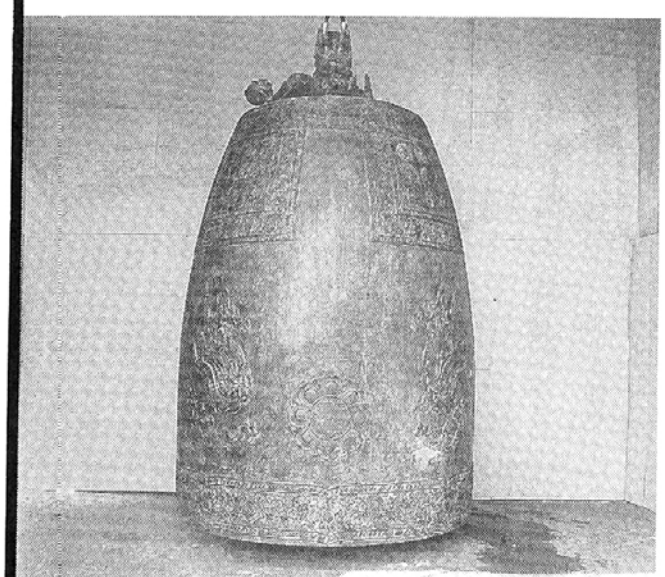
◆**국제종교문제연구소**=1970년 국제적 종교교류와 국내 종교 실태조사, 제반 종교문제, 사이비종교 및 이단의 척결을 취지로 창립됐다. 특히 이단 사이비종교 척결을 위해 활동하던 중 초대 회장 탁명환씨가 피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계속허서 사이비종교에 대한 피해상담 및 학문적 연구에 주력, 일반에 사이비종교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월간지 〈현대종교〉를 통해 각종 종교에 대한 소개 및 사이비종교 현황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종교문화연구원**=1989년 다양한 종교전통과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각 종교전통이 지닌 수행체계를 이해·실천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올바른 종교문화 정착을 취지로 창립됐다. 중점사업으로 종교학관련서적 출판과 종교간 대화모색을 내세우고 있으며 종교학 교실, 명상교실, 동양학교실, 국악강습 등 종교화합을 위한 대중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재단**=1989년 현대종교문제연구소와 이문출판사를 흡수통합해 재단법인으로 창립됐다. 한국종교문화연구재단은 오늘날 전세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국교간의 갈등, 도덕적 가치관의 전도 등 제반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능성은 종교에 있다는 인식하에 제종교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종교사회연구소**=1988년 한국의 다종교상황과 세계종교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종합적 연구를 통해 종교학 발전과 종교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창립 첫해부터 종교문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계속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종교의 對사회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신라범종과 고불의 재현



"범종 주조의 기술혁신과
이조부처님의 재현을 위해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연구끝에 특수주조 정밀공법을 개발하였으니
고승 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을해년 한해도 불사의 현장에 창업 45주년 경험과
성실을 바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성종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2(조계사 앞)
■서울사무실 (02) 733-6141
■공 장 (0331) 283-2083
■부산지사 (051) 803-0781
대표 원광식(梵山)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집

불교국 기행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영엄사 불교전문대학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자못 진지하다.



◇51개의 탑마다 사방으로 2백4좌의 관음보살상이 모셔진 캄보디아의 앙코르톰.



◇캄보디아 프놈펜시의 어린이들이 한국의 '은해사'가 적힌 T셔츠를 입고 놀고 있다.

캄보디아 불교부흥 "내일이 보인다" 베트남



◇베트남 전쟁 당시 백마부대 주둔지 안에 조성된 백마사의 시멘트 탑. 총탄흔적이 선연하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불교가 되살아나고 있다. 오랜 불교국가로서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내전과 공산화로 찬란한 불교문화를 세계에 드러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가 작년 9월부터 세계적 관광지로 문을 열었고 베트남 불교도 여행객들에게 속속 소개되고 있다. 고난의 역사를 딛고 새롭게 일어서는 두 나라 불교의 모습을 현장취재기를 통해 본다. (편집자 주)

전쟁·가난 훌훌 털고 전국민 희망심기 분주

김형준 불교TV PD 기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이들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킬링필드'로 불리우는 대학살과 지루한 내전 그리고 월남전과 고엽제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는 계어나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오롯이 귀의한 순박한 눈동자와 불가사의의 문화유산들이 불교와 함께하는 두 나라의 밝은 내일을 얘기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캄보디아 불교는 7년부터 되살아나기 시작 지금은 전국에 3천 4백여 사찰을 두고 있으며 스님은 5만여명에 이른다. 상좌불교 보다는 대승불교의 특징을 지녀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작년에 승단 대표 7명이 스님 양성과 포교 사찰건립 지원 지방촌락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구호중앙회 불교연합'의 구성과 목적은 헌법으로 규정되고 보호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 90%가 불교신자인 캄보디아에서는 스님들이 각별한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은 누구나 출가생활을 해 보는 것을 원해 소수의 청년들은 과거의 단기출가 전통을 살려 2주간의 행자생활에 참여하기도 한다. 프놈펜에서는 긴 탁발승의 행렬을 볼 수 있으며 노천에 설립된 불단 앞에서 향을 사르고 무언가를 염원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인구 1백만의 이 도시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사찰들이 곳곳에 있어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프놈펜에서 약 120킬로미터 떨어진 깜퐁 크난 지역. 이곳에서 대규모 불교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았다. 교단차원의 회의와 지방순회법회를 겸한 행사였다. 스님만 4백여명이 모인 이 행사장은 덕 높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모인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스님들을 호위하는 군인들의 모습은 매우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지역으로 오는 길에서 만난 다섯명의 탁발행렬은 캄보디아 불교의 재건을 잘 말해 주었다. "우리는 삼보우란 절의 신도들입니다. 절에 학교를 세우고 법당을 중축하기위해 닷새째 탁발을 하고 있는데 목적지는 프놈펜입니다" 느릿느릿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은 매우 성스러웠다.

캄보디아 불교의 지도자인 벤볼스님도 나라의 재건과 불교의 중흥은 하나의 문제임을 역설 했다. "캄보디아의 오늘에 있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라의 재건입니다. 빈곤을 물리치기위해 국민은 즐고 낡은 사찰을 복원하고 무엇보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우물 파주기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만족스런 생활이 나라와 불교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국내선 여객기가 30분마다 내려 앉는 시엔립 공항. 70인승 여객기를 가득 메웠던 관광객 모두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곳은 앙코르와트였다.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크메르제국의 수도였으며 북으로는 라오스 서쪽으로 미얀마 남으로는 말레이 반도 그리고 동으로는 남지나해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도시 앙코르에는 경탄 이전의 감동을 요구하는 압목적 힘을 가진 불가사의의 문화유산이 있었다. 2백 30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드넓은 불토(佛土)에 세워진 앙코르와트. 2백80여 사원과 아름다운 석조불들이 이방의 관광객들에게 크메르루즈의 폭압적 정치 아래 훼손되던 아픔을 토해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시골벅적한 매표소, 관광객을 상대로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의 현실은 5백년전에 지어진 거대한 사원의 한 부분으로 오늘을 지탱하고 있는듯 했다. 수르야바르만 2세의 원력이 무엇이었는지 모를지라도 역사는 이 위대한 건축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간의 연력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오늘의 앙코르와트와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힌두신앙과 불교신앙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스며 있는 사원의 유불들은 오늘날 세계인의 눈길을 모으는 문화유산이지만 안타깝게도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다.

지난 9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 다각적인 보수 복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20여년에 걸친 내전과 베트남의 침략 속에서 피폐된 동안 군화에 짓밟힌 상흔을 치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같아 가슴 아팠다.

앙코르와트에서 북쪽으로 3.5킬로미터 간 곳에 앙코르톰이 있었다. 앙코르톰은 앙코르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사원군이다. 자야바르만 7세가 관세음보살에게 바치기 위해 중건한 불멸의 업적 바이욘을 보는 것은 앙코르를 찾은 즐거움의 극치였다. 51개의 탑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2백 4분의 관세음보살상과 고대 크메르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조불들에서 세계인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앙코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베트남으로 가는 호치민행 비행기 아래로는 누렇게 급이치는 메콩강과 구획정리가 잘된 논밭들이 보였다. 또 언뜻언뜻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보이기도 했는데 월남전때 미군기의 융단폭격과 고엽제의 피해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공산화 21년의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다.

호치민시에서 가장큰 절인 영엄사(퓨아빙니엠). 1964년 한국과 중국 일본의 사찰형태를 본떠 지었다는 이 절은 베트남에서 3곳 밖에 없는 불교전문학교가 있어 베트남불교교육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불교전문학교에는 26명의 교수와 8백 80명의 학승들이 있으며 학승들은 3단계로 나뉘진 교육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학비는 안내지만 하루 6시간씩 9개월을 공부해야 다음단계로 넘어 간다니 쉬운 코스는 아닌 것 같았다. 교육과목은 불교학 영어 한문 법률등 다양했는데 전천후 전법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베트남 중앙불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70%가 불교신자로 파악 되고 있다. 전국에 1만여 사찰이 있고 스님은 5만여명에 이른다. 베트남 사람들은 집안에 불단을 모시고 아침 저녁마다 참배를 하는데 불단에는 부처님뿐 아니라 도교의 신이나 조상의 사진도 함께 모셔져 있는데 이것은 도교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불교의 특징이라고 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양식의 불탑과 한국에서 조성한 불상을 볼 수 있었다. 불탑은 28년전 닌호아에 주둔했던 한국의 백마부대 안의 백마사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시멘트로 만든 탑의 곳곳에 총탄 자국이 선연해 전쟁의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불상은 닌호아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닝꾸앙이란 마을의 작은절 장광사(쥬아 중왕)에 모셔져 있었다. 69년 한국의 중앙신도회가 조성 백마사에 봉안 했던 이 불상은 공산화 직후 한국 불상이란 이유로 훼불 위협을 해서 이곳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장광사를 증축하고 싶다며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불자들이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공산화전 파월 국군법사단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틱항하이 스님(닌호아 천보사주지)은 백마사와 탑과 부처님 얘기 말고도 당시 백마부대장이 선물했다는 불화 두루마리도 보여주며 새로운 감회에 젖어드는 것 같았다. 베트남 불교는 사회주의 통치 21년동안에도 국민들의 신봉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불교는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해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호치민시의 번화가에 서 있는 '불교와 민족을 위한 소신공양'의 주인공 틱광득 스님의 불탑에는 오늘도 누군가가 공양한 향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90% 불자·3400여 사찰·스님 5만명

캄보디아

사찰복원·학교건립 "성스러운 탁발행렬"

사회주의 이념보다 불교사상 구심역할

베트남

불교학·영어등 교육 전천후 전법사 양성

현암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27-1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알기 쉬운 불교 시리즈

영한 대조
불교성전 신간
아함경 이야기
법구경
부처님 말씀
열반경의 세계
불교개론
화엄경의 세계
반야·유마경의 지혜

동양 고전의 정수

虛辭辭典
한문을 해석할 때 걸림돌이 되는 허사 730여 개의 용법을 설명한 국내 최초의 가장 방대한 사전!
공재석 감수 김원중 편저 ■ 값 25000 원

虛辭小辭典
한문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기본 허사 100여 개의 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원중 편저 ■ 값 10000 원

채근담
명심보감
도덕경
莊子

봉축
†부처님 오신날†
5.18~5.24 '96 서울국제도서전 부스번호 320으로 오시면 현암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팔만대장경 (전 3권)

불심가족

부처님오신날 특집

일가족 15명 불교조각 '동고동락'

부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가족의 연으로 묶인다는 것은 전생부터의 수없이 지중한 인연이 쌓여서 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 전부가 돈독한 불심을 지닌 불자들로서 '승화된 예술의 최고봉이 불심'이란 신념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의지하며 척박한 '木彫' 땅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 이제는 꽃을 활짝 피워가는 것은 무슨 인연들이 쌓인 소산일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박찬갑씨(조각가·56세) 형제들이 오래간만에 조계사에 모였다. 서로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한데 모이기는 너무나 바쁜 이들 가족은 조계사 부처님께 참배도 드리고 연등거는 모습도 구경하며 서로의 근황도 얘기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박찬갑씨의 3남 2녀 형제자매들은 예술, 특히 조각의 길을 걷고 있는 포교사가족이다. 박찬갑씨는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하늘새' 시리즈를 비롯 인간과 자연, 자유의지 등을 주제로 하여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온 중진 조각가. 그의 세번째 동생이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장으로 유명한 불모(佛母) 박찬수씨(48세)다. 막내동생인 찬성씨(35) 역시 조각을 배워 맏형인 찬갑씨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다. 둘째인 여동생 찬순씨(50)의 남편되는 김한수씨(58)는 조각을 위한 나무를 현장에서 고르고 다듬는 재단 일을 수십년째 해오고 있다. 넷째 여동생인 찬도씨의 남편인 김인호씨도 목각을 30여년 해오고 있으며 박찬수씨와 돈독한 친구사이다.



박찬갑씨 一家

이렇게 형제 자매 부부 모두가 '조각'에 관련된 한길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대학에서 불교공부까지 열심히 해 포교사 자격증을 가진 포교사들이다.

찬수씨는 지난 89년 몇 안되는 일본지역 국제포교사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찬순씨와 찬도씨 부부도 불교교양대학을 수료해 포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등 북유럽쪽에서 자주 전시회를 가지며 교류를 펴온 찬갑씨는 덴마크에 한국사찰을 건립해 포교에 나서겠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떠한가. 찬수씨의 두 아들 모두 조각을 전공하고 있다. 큰아들 우택과 작은 아들 우명씨는 강릉대학교 조소과에 재학중이다. 지금은 둘다 군대에 가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각의 맥을 이어갈 계획으로 있다. 찬갑씨의 큰딸 우미씨는 대학에서 섬유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으며 찬순씨의 1남2녀중 큰딸 윤주씨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고 있다. 윤주씨의 남편 노재명씨는 예술계통인 전통음악평론가이고 찬도씨의 둘째아들 대성씨는 동대 선학과 3학년이다. 장차 불교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그 역시 조각에도 솜씨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재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들 가족들은 한결같이 할머니 강재상보살의 지극한 불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는 고향마을에서 유명한 보살이었다. 경남 산청군 지리산 근처 산촌리 가까이에는 성철스님이 출가했던 절인 대원사가 있다.

"할머니는 무엇이든 밭에서 거둔 첫곡식, 첫야채는 제일 먼저 절에 공양올렸습니다. 일하실 때나 쉬실 때나 자리에 누워서나 언제나 입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송이 떠나지 않았지요. 비록 무학이셨지만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마음은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만큼 지극하셨지요"

할머니 손은 마을에서 유명한 약손이었다고 한다. 동네사람 누구가 아프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 기도해 주며 간호해 주었다. 손으로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나았을 정도로 할머니는 남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할머니의 보살심은 마을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다는 것.

"지리산 정기를 받은 맑고 수려한 고향의 자연과 할머님의 지극한 불심이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예술로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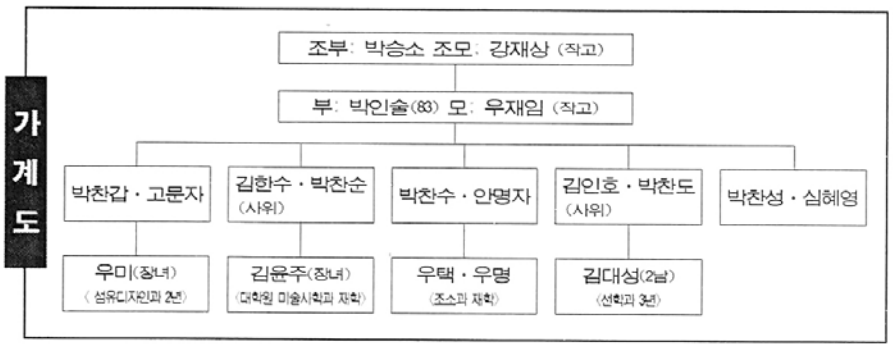
이들 형제들은 같은 조각이라도 분야가 다르다.





◀ 조계사 참배에 나선 박찬갑씨 가족. 가족 대부분이 돈독한 불심의 바탕위에서 예술의 길로 정진하고 있다.

▲ 왼쪽부터 찬갑, 찬성, 찬갑씨 부인 고문자, 찬순, 찬수, 찬도씨 남편 김인호, 찬도씨.



할머니 강재상 보살 불심 '자손들에 영향'
예불로 하루시작…대부분 포교사 자격 지녀
4년후 대규모 가족전 예정…자녀들도 미술전공

맏형 박찬갑씨는 현대조각쪽이다. '불꽃' '혼의 소리' '하늘새' 'DMZ-혼소리' 등 그동안 개최한 개인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간결하고도 절제된 조형방식으로 인간 본질적인 문제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민족분단 등을 설치미술 이벤트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공예대전 대통령상

박찬수씨는 불교미술전람회와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전통조각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단순한 전통재현을 탈피해 전통목조의 현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관 3주년이 된 목아불교박물관은 이제 불교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번쯤 들르는 명소가 됐다. 두 형제의 작품은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김인호씨는 같은 전통조각쪽으로 목아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일본쪽 일을 맡고 있는데 현대적 조형의 목조를 창조하고 있다. 막내 박찬성씨는 소목분야이다. 이들에게는 거듭된 전란으로 변변히 남아있지 못하는 우리나라 전통목조계보를 세워놓는 것이 원(願)이다.

"문헌을 찾고 얼마 남아있지 않는 전통 작품을 꼼꼼히 살핍니다. 장르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학하다시피 배웠지만 전통의 맥을 살려 그 옛날 우리 장인들의 빼어난 솜씨를 면면히 이어갈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현대와 접목시켜 발전시켜가겠다는 큰 과제가 저희 가족에게 있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 65년 원주에서의 찬갑씨와 찬수씨의 2인전, 72년 두형제와 김인호씨가 합쳐 국립공보관에서 조각 3인전을 열었다. 72년 전시회는 이들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뜻깊은 행사였다. 전시회 첫날 개막 행사는 언론등 일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왜냐하면 큰형 박찬갑씨의 주례겸 사회로 전시장에 온 관람객들이 하객이 되어 찬수씨와 안명자씨, 찬도씨와 김인호씨의 합동결혼식이 열린 것이다. 한복을 입은 두 쌍의 신랑신부가 나와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라는 인사로써 식은 5분만에 간략하게 끝났는데 전시장결혼이라는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장안의 화제를 모은 것이다. 같이 목공예학원을 하면서 그의 동생과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 결혼까지 이른 김인호씨는 찬수씨의 오랜 친구이다. 목아박물관에서 함께 일하는 찬수씨와 김한수씨 그리고 김인호씨는 서로서로 처남 매부 동서지간이면서 또한 든든한 후원자다.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보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앞으로 4년뒤면 맏형 박찬갑씨의 회갑을 맞는다. 그때쯤 전체 가족의 작품을 모아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가족展을 마련해 볼 계획이다.

이들 가족은 아침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예불로 하루를 마감한다. 제사도 찬수씨 집전으로 불교식으로 지낸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방학이면 사찰수련회에 참여해야 했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다. "아이들이 혹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벌을 주는 대신 '목탁에 맞춰 반야심경(또는 천수경)을 몇번 외워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큰소리로 경전을 암송하다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줄줄 외우게 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따라온다. 가훈은 '큰 마음 큰 행동 인간답게.'



◇강릉대 조소과에 다니고 있는 우택(오른쪽)과 우명 형제. 장차 아버지 목아박물관장 박찬수씨의 뒤를 잇는 훌륭한 조각가가 꿈이다.

"반야심경 외워라"

"회광반조(廻光反照)정신으로 항상 자신의 삶을 돌이켜 비쳐보아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품안에서 살자는 우리 가족의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어렵게 어렵게 조각을 배울 때 닦았던 그 오롯한 마음,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처럼 일심으로 모든 일을 성심껏 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찬갑씨 형제들의 아버지 박인술거사는 원래 농사꾼이지만 초창기 어려울 때 아들들의 조각을 거들다보니 그도 이제는 프로 못잖은 조각쟁이가 되었다.

큰아들 막내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박인술거사는 83세 노령이지만 근력이 정정해 가끔 〈천수경〉을 느릿느릿 독송하며 칼을 쥐고 나무를 다듬는다. 아버지의 독송이 무르익을 무렵 옆에 있는 자식들도 저절로 독송에 동참한다. 이럴 때의 이들 가족들의 모습은 그럴 수 없이 정겹다.

이경숙 기자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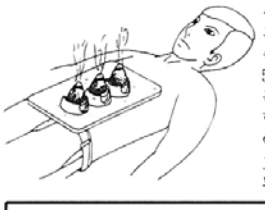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액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액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변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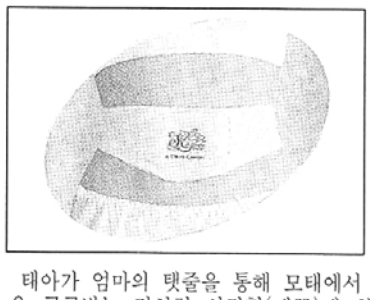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61번지 (한신상가5동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로교원(원장 각주 스님)
● 무설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이진/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 (053)323-2598
대전지회 (042)222-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C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 (C596)73-0039
경남마산지회 (0551)123-9016
경남울산지회 (0522)74-7536
강원지회 (0551)62-0076
제천단양지회 (0443)46-3023
의정부지회 (0351)873-0532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고은 불교대하소설



78

다시 지진

두번째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진이야말로 불안을 촉발시키는 무욕도의 장래이었다 "지진도 경전입니다 비법도 불법일 때는"

우녀의 말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방바닥에 펴진채 마구 떨어대고 있었다.

인담이 게으른 뱀이 뙤리를 천천히 풀듯이 그의 결가부좌를 풀어서 두다리가 각각 떨어댔다.

"지진이 아니라 인진(人震)이로다"

라는 어설픈 농담에도 불구하고 인담의 표정은 정직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우녀의 떠는 몸을 보고 한마디 위안의 말을 잊지 않았다.

"곧 가라앉겠지요. 하기야 우리 몸이 오온(五蘊)의 거짓 화합(和合)으로 된 것이니 우리 몸이 지탱하고 있는 땅덩어리인들 어찌 거짓 화합이 아니겠오. 이왕의 나날은 다만 지진이 잠들었을 뿐이고 지금이야 오랜 잠에서 깨어나 한번쯤 괜히 하품이라도 해보는 것이 아니겠오."

그들의 몸을 흔들어대고 바닷가의 바위와 바위 위의 본채 건물까지 흔들어대는 일은 무려 금강경을 절반쯤 읽을만한 시간내내 이어졌다. 꽤나 긴 지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욕도의 두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은 본채조차 아무런 손괴가 없는 무사고의 지진이기도 하였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속에 있는 지진의 기록으로 보자면 한반도의 각처가 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으로 큰 재앙이 생긴 적이 없는 세월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지진이란 한갖 오래된 풍문이기 십상이었다.

그런 나머지 옛 민담 속에 이따금 나타나는 지진도 귀신의 장난 쯤으로 그려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진은 이번의 무욕도에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온갖 암벽이나 산등성이와 평면이 크게 갈라지거나 집 몇채들이 갈라진 틈으로 파묻혀 버리거나 하는 엄청난 규모는 으레 큰 화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화재가 죄악의 업보와 지옥의 고통을 면제받기 위한 불의 정화(淨化)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화상(火傷)에 관한 것이 민담 속에 끼어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과연 지진의 큰 규모는 지옥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지진이야말로 이 세상이 결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의 운동은 쉬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까지 있었던 냇물이나 강물의 줄기가 지진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새로운 줄기를 낳는 일 역시 이 세상의 고정이나 불변을 보장하는 일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영속적인 집착으로서의 탐욕과 어리석음 따위에 의존하고 있는 세상에의 경종(警鐘)으로 삼아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 지진이다.

지진은 드넓은 들녘을 둘이나 셋으로 갈라 놓는 단층운동으로 그치는가하면 그 지진의 영역이 바다 밑까지 망라되고 있을 때는 해면파(海面波)에 의해서 먼 바닷가를 밀어 붙이는 해일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무욕도를 한동안 떨게 만든 지진도 장차 그런 해일을 위한 전진(前震)이 아닌가. 지진에도 전진과 주진(主震) 그리고 여진(余震)이 있기 마련이라면.

방바닥이 부들부들 떠는 정도의 지진도 그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안심하기보다 떠는 정도가 상당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방바닥이나 바깥의 바위까지도 떨 정도의 지진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진 뒤의 평상(平常)이야말로 그 동안의 평상과는 또다른 긴장을 유발하고 있었다. 인담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이 다 이런 덧없는 데에 바탕을 둔 것이었오. …하기는 너다 나다 하는 이 자아라는 것도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 것으로서의 무아(無我)인가를 새삼 깨달을 일이오. 어디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밤을 세워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이겠어? 이렇게 조기새끼나 밴댕이새끼 한 마리나 우리 두 사람이 어느날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만고의 진리라고 말하지 못할 바 아니겠지."

"그럴진대… 임춘의 시문이나 찾아온 식자(識者)인 인담님 보다 시 한줄, 글 한 구절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그 비문자(非文字)의 진리야말로 능히 가르침 밖에 전해지는 진리가 아니겠어?"

이 말은 인담이 지난 날 뒤늦게 무욕도 식구가 되었던 불이 못지 않게 시를 좋아했던 것을 은근히 건들여보는 우녀의 가시 돋힌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어린 선인장의 그것이어서 실로 보드라운 터럭과 다를 바 없었다.

그만큼 우녀는 인담과의 격의 없는 사이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라고 인담이 옷깃을 세우며 말을 이었다. "문자를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 문자 아니고도 이 세상의 궁극을 깨달을 수 있음을 실증함이겠지… 그래서 소경(무식장이)이 눈뜬 사람(식자)을 앞장서서 이끈다는 말이 있겠지…"

그들은 특별히 선(禪)의 불입문자나 교외별전 따위의 직관 직입을 주장하지 않고도 글자 한자 모르는 사람들의 정신현상 자체로서도 진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놀이에서 저 놀이로 옮겨가며 심심풀이를 하는 것처럼 서로 확인한 것이었다.

"아침에 뜨는 해는 철이 없어서 빛나지만 저녁에 지는 해는 다 지난 일이라서 아무런 눈부심도 없이 풍덩 빠지는가요?"

라고 우녀가 정녕 장난하는 어린아이처럼 말하였다.

"아침 해 저녁 해 따져볼 것은 또 뭐요? 우녀님의 눈빛이 푹 꺼져서 잠이 덜 깬 눈 같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눈에서 시퍼런 귀기(鬼氣)가 서리거나 살기까지 돌아 그 빛나는 것이 가히 두려운 바 있었는데… 그때는 만화나 곰보 남각이 우녀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무전도 파현도 그 고기잡이 우락부락한 사나이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빛이란 빨리 내버리는 것이 좋아요. 참다운 빛이 그 뒤에 나타나는 법이니까."

"참다운 빛은 빛나지 않는다(眞光不輝)라 그것인가요?"

"아무렴… 진짜배기 빛이건대… 벙어리 돌멩이와 다를 바 없게 눈부신 빛살 따위



두 사람은 불상을 쳐다보는 눈이 방구석의 벽에 걸려있는 횃대의 가사(袈裟) 두벌도 횃대와 함께 흔들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호읍!"

그것 뿐이 아니었다. 다시 방바닥이 움직였다. 두 사람의 앉은 엉덩이에도 그런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지진입니다. 또…"

라고 인담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마치 지진 자체가 들기라도 하면 노발대발할 것이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그 지진은 한동안 있다가 자취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주위, 특히 그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죽비 세번을 쳐서 세번 큰절을 올리는 대상인 불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진은 첫번째의 지진과는 달리 주위로부터 그들 자신에게 옮겨오는 것이었다.

일정한 공간인데도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먼저 흔들리는 것과 주위의 것이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는 것도 기이하였다.

"갔습니다."

라는 인담의 말에는 어떤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지진보다 지진 이후에 되찾은 평온이 제2의 공포가 되고 있었다.

다음번에는 언제 어떤 규모로 닥칠지 모르는 그 지진의 다스릴 수 없는 힘이야말로 인간의 역량 밖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빨리 손님과 친해지는 도리 밖에 없겠지요."

이 말은 우녀가 내뱉은 것이었다. 손님이란 지진을 뜻한다. 그들이 결코 초청하거나 환영하는 손님이 아닌데도 벌써 두번째나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진이야말로 이를테면 막 떨어지기 직전의 병든 원숭이가 죽은 나무가지에 매달려있는 불안을 촉발시키는 무욕도의 장래이기도 하였다.

"지진도 경전입니다. 비법(非法)도 불법(佛法)일 때는."

그림 · 조향숙

지상의 허공에도 지하의 암흑에도 힘이 있다. 지하의 탄성(彈性)을 가진 힘이 전혀 다른 파동(波動)의 힘으로 바뀌어지면 그 힘은 결코 조용한 부동자세의 긴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엄청난 지하세계의 동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발전한다.

그 힘은 지상이나 바다 밑의 지면에 예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한다. 그 규모의 폭 또한 살아있는 물체의 촉감으로 느낄 수 없는 미미한 상태로부터 엄청난 지각변동의 폭력을 과시하고도 남는 상태에까지 걸쳐 있다.

무욕도에 지진이 일어난 일은 이제까지 없었다. 이 사바세계의 하루하루가 수천년의 지진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진의 하나가 실로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미진(微震)의 규모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지진이 나서 벌채의 기둥이 쓰러졌다던가 바위너설에 금이 갔다던가 하는 일은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다.

몇천년 전의 규모가 큰 지진은 이제 하나의 민담(民譚)으로 변하여 지진의 실감이 없다. 그런 민담이 아니면 10여년전 무욕도 수행자를 섬기는 육지 신도의 어린 딸이 신들린 나머지 '섬이 가라앉는다' '섬이 불탄다!' 따위의 야릇한 예언을 외친 일과 함께 그 뒤로는 심심풀이도 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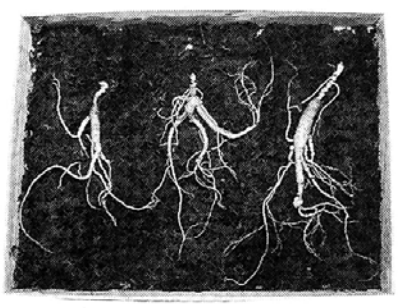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 무욕도의 두 사람이 앉아있는 방 전체가 마치 바쁜 조랑말등에 안장 없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동요로 채워졌다.

"어허… 완석(頑石)이 움직인다(動也)더니 이 방바닥이 제법이네."

불기 2540년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長腦(장뇌) 山蔘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부모님, 수험생,운동선수,병후 몸조리를 하시는 불자님께 최상품 산삼을 최저가격으로 인연을 맺어드렸습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드리겠습니다.(산지확인가능)

장뇌산삼의 효능

· 기사회생의 영약(靈藥)으로 간(肝), 당뇨(糖尿), 고혈압(高血壓), 저혈압(低血壓), 암(癌), 심장병(心臟病)등 성인병에 좋으며 정기(精氣)를 강화해 줍니다.
· Stress에 의한 신경과민, 빈혈, 냉증에 좋습니다.
· 눈이 맑아지며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 건위(建胃), 조혈(造血), 신진대사(新陳代謝) 촉진작용을 해줍니다.
·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 줍니다.

※특전:각종 자연건강 보조식품 및 보약을 염가로 알선해 드립니다.

● 10년 ~ 15년근 이상

◐별도상담 : · 자연산삼,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봉삼문의 · 상황버섯 문의
· VIP단체선물 환영

※ 그동안 산삼과 인연을 맺고자 관심은 있었으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접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大物民藥院 서울(02)207-8387

직원채용

자비동산 소향원은 노인복지 시설로서 무료 양로원 입니다.
기장 인간적인 것이 기장 선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요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생각을 하시는 정원곡(관음불교회 관장)님의 발원으로 설립된 소향원은 지난 5년간의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1990년 9월 7일 첫 삽을 뜬지 9개월간에 걸친 공사 끝에 건물을 완공하고 주변환경 조성 및 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정신으로 노인분들을 지극정성껏 봉양함으로써 참다운 자비를 깨우치고 실천해나갈 직원을 모집합니다.

❶ 모집부분 및 자격
· 생활지도원 0명 사회복지사자격 2급이상 취득자로 만30세 미만인 자
· 간 호 사 0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
· 세 탁 부 0명 5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한 여성
· 취 사 부 0명 5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한 여성
· 생활보조원 0명 5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한 남, 여

❷ 제출서류
1)이력서 1부 (사진부착)
2)최종학력증명서 (생활지도원, 간호사)
3)주민등록등본 1부

❸ 제출기간 : 1996년 5월 30일
❹ 신청방법 : 서류심사후 면접 (개별통보)
❺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38
■문의 : (062) 222-6030, 227-7842

사회복지법인 소 향 원

부처님 이땅에 오심을 기뻐합니다.

대한불교 산악회 (가칭) 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산을 사랑하시고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는 전국의 모든 불교산악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묵묵히 오르는 산행의 길과 오롯이 가는 수행의 길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

먼저 연락이 닿은 서울, 성남, 대구, 부산불교산악회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불교산악인과 함께 보다 여법한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 문의처 : 준비위 사무국
전화 (051) 464 - 2020

서울금강메아리산악회장 김대원
성남 불교산악 회장 임선교 합장
대구 불교산악 회장 김장근
부산 불교산악 회장 한계수

"신라석불은 한국인 얼굴"

TBC—TV 초파일특집 '경주 남산부처님의 얼굴' 24일 방영

성형의학·등고선 촬영등 과학적 접근



◇경주 남산부처님의 얼굴에는 신라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불심이 반영돼 있다. 사진은 남산 삼화령석조삼존불상중 본존불의 얼굴모습.

천년전 만들어진 신라석불얼굴과 현대한국인의 얼굴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TBC(대구방송) TV가 개국 1주년과 부처님오신날 기념특집으로 '경주 남산부처님의 얼굴'(PD 김도현)을 제작하여 오는 24일 저녁 7시 방영한다. 보리사석불좌상 칠불암마애석불군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삼화령아기부처님, 석굴암부처님 등 남산의 석불얼굴과 현대인의 얼굴과를 비교·조명함으로써 양자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신라석불의 얼굴이 당시 사람들의 얼굴모습을 그대로 따온 것인지 혹은 마음(불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유추해 보는 프로그램.

〈한국인의 얼굴〉 저자인 조용진교수(서울교대)와 성형외과의사 최시호박사, 정병국교수(동국대 고고미술학과)가 출연하여 성형학 고고학 미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통도사 효범스님이 종교적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이 프로에서는 전형적인 경상도인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남산석불의 중안과 하안의 비율이 1:0.9로 현대미인의 기준인 1:1에 비해 약간 짧다는 사실을 밝힌다. 석불의 대부분이 둥글면서도 각진 얼굴형으로, 현대미인의 기준이랄 수 있는 달걀형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초기 석불의 눈은 행인형(杏仁形 살구씨모양)이나 후기로 갈수록 가늘고 길어지며 양볼은 패여져 근엄하면서도 자애로운 얼굴모습을 가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이 특집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객관적 타당성을 높였다. 석불 하나하나에 대해 실측 및 등고선 촬영을 했고 아울러 과거 신라인의 인골을 등고선 촬영한 후 현재의 경상도사람의 얼굴과의 비교도 시도했다. 김도현 PD는 "기존의 막연한 조사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노력했다"며 "현대표준미의 눈 코 귀 등의 형태및 수치와 석불의 그것을 비교해 보았다"고 말한다.

'경주 남산부처님의 얼굴'의 구성작가 이진이씨도 "석불의 모습은 신라인의 모습 그 자체이기보다 주로 신라인들의 이상적인 생각과 신앙심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온다"고 결론지었다.

대구=이윤호 기자

초파일 일반방송 하이라이트

방송사		프로그램(시간)	내 용
21일	대구 KBS	대륙의 신라왕자, 김교각스님 (밤 10시15분)	열반이래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스님의 사상과 행장을 영상으로 고증했다.
23일	KBS 2TV	암자 (밤 10시15분)	여수 향일암, 선운사 도솔암, 지리산 상무주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
	SBS	특집 대담 큰스님과의 대화 (밤 11시)	조계종 총무원장스님과 서울대 종교학과 정진홍교수가 대담했다.
24일	KBS 1TV	월하 종정스님과 함께 (오전 10시55분)	월하 종정스님을 찾아 한국불교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다큐멘터리 출가 (오전 11시 50분)	출가에서 사미(니)계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영상다큐로 소개한다.
		특집 봉축음악회 (오전 12시30분)	불교합창단과 관현악단이 조과일의 노래, 영산회상, 회심곡등 음성공양을 선보인다.
		특선영화 소림사 달마대사 (낮 1시60분)	인도불교를 동양에 전한 달마대사와 그 수제자 혜가스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
	KBS 2TV	사리 (밤 10시15분)	부처님과 대덕스님 등 깨달은 사람들의 몸에서 나온 사리의 신비를 집중 조명.
		TV인생극장 천도재 (밤 8시25분)	박삼중스님이 만난 두 사형수의 훈훈한 이야기가 깊은 자비를 실감케 하는 프로.
		특집드라마 산란 (밤 12시)	김성동 원작, 최경식 극본.
	SBS	특집 남방불교의 정수 미얀마 (오전 11시)	위빠사나 수행승들의 모습과 미얀마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된 불교를 소개.
		다큐멘터리 소림사 1, 2부 (오후 4시15분)	소림권법의 시조가 된 소림사의 무술훈련 과정과 수행모습을 다큐멘터리로 그렸다.
	EBS	특집 새로운 경험 직지사의 하루 (오후 5시15분)	직지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직지사에서 하루동안 경험한 불교 세계.
	MBC	월하 종정스님과 함께 (오전 11시)	월하 조계종정스님의 일상생활 모습과 말씀을 듣는다. 탤런트 김희애씨가 인터뷰했다.
		특선영화 만다라 (낮 12시)	인기배우 전무송, 안성기가 주연을 맡고 임권택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불교영화.
	MBC FM 라디오	드라마 모정불심 (밤 8시15분)	윤청광 극본, 김흥배 연출, 어머니의 불심과 사랑으로 사형수에서 재가법사의 길을 걷게 된 양동수씨의 이야기.
	Q 채널	다큐멘터리 운문사 (오후 4시)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 비구니스님들의 수행과 운문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다.
		성철 큰스님을 말한다 (밤 9시)	영원한 스승 성철스님의 사상과 행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리틀부다'를 만들기까지 (밤 11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감독이 만든 영화 리틀부다의 제작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센츄리 TV	다큐멘터리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오후 4시)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신비를 조명.
	케치원	특선영화 우담바라 (오전 10시20분)	김양득 감독, 윤지호 이영하 주연.
		특선영화 리틀부다 (낮 1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키아누 리브스 주연.
	A&C	사찰(오후 1시)	사찰 속에 깃든 문화적 향취를 소개한다.
26일	KBS	부처님오신날특집 열린음악회 (밤 7시)	천년고도 경주 불국사서 개최된 봉축특집 열린음악회가 중계된다.
		일요스페셜 황룡사 (밤 8시)	사라진 동양 최대의 사찰 황룡사를 영상으로 복원한다.

문화 단신

'영한대조 불교성전' 발간

〈영한대조 불교성전〉이 현암사(대표 조근태)에서 발간됐다. 해운스님이 일본 불교전도협회에서 발간한 〈화영(和英)대조 불교성전〉을 번역해 엮은 이 책은 영문부분은 원전을 그대로 실었고, 한역은 일본판을 직역했다.

이 책은 크게 △부처님의 생애 △가르침 △정진 △법우(法友)등 네 장으로 나누어진다.

부록으로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등 각나라 불교사를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한국 불교사도 첨가했다. 많이 쓰이는 불교용어도 풀이해 놓았다.

서암스님 법어집 '훨훨…'

숨 돌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이 배어 있는 생활禪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의 법어집 〈훨훨 털고 갈이 가세〉(정토출판 刊)가 나왔다.

이 법문집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점들과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는 이들에게 바르고 알기 쉽게 근본을 꿰뚫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혼탁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23일 '만해 시낭송의 밤'

만해스님 시집〈님의 침묵〉발간 70주년을 기념하는 '만해 시낭송의 밤' 행사가 오는 23일 북촌 창우극장에서 개최된다. 만해스님의 생애를 다각도로 조명한 시에 맞춰 춤 노래 시창 등이 적절히 배합한 이번 행사는 시와 시학회가 마련했다. (02)736—8320

"사상수용등 내적조건 갖춰야 불교문학"

조계종은 민족정신과 민족문화의 맥을 이어온 불교예술이 서구화 및 왜곡된 시각으로 인하여 경시되어가는 풍토를 극복하고 찬란한 불교문화의 진수를 재발견해 계승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20일부터 23일까지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불교미술 문학 음악 성보등 불교문화전반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21일 '불교문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과)와 김재홍교수(경희대 국문과)의 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홍기삼·김재홍교수 '불교문학현황과 전망' 세미나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홍기삼교수는 "불교와 문학은 언어라는 공동의 토대를 갖고 있고 불교문학의 본질적인 조건을 논의하는 데 있어 언어와 상상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전제했다. 불교문학의 개념규정에 대해 △불교경전및 부처님가르침에 관계되는 저작물일체 △경전및 불교적인 것을 표현한 문학일체 △불교적인 관심을 문학형식으로 창작한 것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소개한 홍교수는 그러나 작품의 구체적 연구가 수반되지 않는 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등장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 표면적 조건보다 내적 조건에 따라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지혜를 통해 추구되는 최상의 가치며 진리사상이 불교라 할 때 거기에 살아숨쉬는 호흡이 되는 것이 문학의 언어"라 지적한 홍교수는 "생명이며 힘의 원천인 언어가 무상의 지혜와 궁극적인 진리를 수용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어디에 서도록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불교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작가의 몫"임을 강조했다. 이어 "불교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할 것은 외형적인 불교사상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한 문학의 정신이나 방법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현대불교문학의 전개와 반성-현대詩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김재홍교수는 불교문학이란 사상성 종교성도 구현되고 아울러 문학으로서의 예술적 감동도 획득해 내야 한다면서 "불교문학은 불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인 동시에 문학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함께 지닌다"고 설명했다. 1920년 근대문학초창기부터 십년단위 년대별로 불교시인들의 성과를 열거한 김교수는 불교와 문학이 탁월하게 승화된 대표적 작품으로 만해 한용운스님의 〈님의 침묵〉을 들었다. 또한 서정주는 불교문학의 질과 양을 크게 고양시킨 대표적 인물로 대중과의 친화력도 깊게 형성시켰고, 김지하의 연작시집 〈애린〉과 오현스님의 연작시 〈절간이야기〉는 불교문학의 탁월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불교문학의 저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문학인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위있는 불교문예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展



생명의 근원전 오는 27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생명의 근원전'.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강행원 김상섭 김영만 김형섭 두시영 김운성 문인상 박찬갑 박홍순 이덕환 서영석 서보용 이미숙 정경연 하수경 황남채 홍기자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동성스님 선서화전 동성스님(마산 봉국사 주지)의 선서화전이 지난 15~21일 조형갤러리에서 개최됐다. 파격적 달마상을 통해 깨달음을 향한 선정삼매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는 월탄 성타 현해 시현 현광스님 김용정·전영화교수 이상범시인 등 1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불미협 회원전 제3회 한국불교미술인협회전이 지난 15~21일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영화 이억영 김대열 박찬갑 박명순 서보용 진철문 현정 이덕환 손연칠 김길연 김양수 오용경 이호신 최영애 허만욱 김영덕 홍재연 이화자 김신교씨등 31명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생활 속의 불교 ⑦④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법



누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했던가. 꽃은 화사하고 숲은 신록으로 빛난다.

만물은 약동하고 뭇 생명은 너도 나도 다투어 삶의 노래를 부른다. 숲으로 발길을 옮기면 여기 저기서 일제히 '나로소이다' 하고 뽐내는 소리가 들린다.

5월은 긍정의 계절이다. 평등의 계절이다. 거부하지 않고 일체를 살리는 계절이다.

이런 싱그러운 계절이면 해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다. 무더운 여름도 추운 겨울도 아닌 것이 불자들에겐 작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불법은 일체를 살리는 법이다. 무명에 잠긴 중생을 건져 올려 대긍정의 세계로 이끄는 법이다. 무더위처럼 만물을 지치게 하는 법이 아니고, 추운 겨울처럼 만물을 움츠리게 하는 법이 아니다. 5월처럼 만물을 기르고 키우는 신록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뭇 생명이 봄을 맞아 제각기 존재를 뽐내듯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기량껏, 재주껏, 마음껏 삶의 가치를 발견토록 하는 법이다. 불법은 평등의 법, 열린 법이다.

5월이 생명을 차별하지 않듯이 불법도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이듯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웃은 이웃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수용하고 살린다. 불이(不二)의 법이요, 무분별의 법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일러 주신 불이법, 무분별의 세계는 무엇인가.

그 법은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인식에 머물지 않는다. 그 법은 옳으니 그르니의 가치 분별을 넘어섰다는 말 속에조차 들지 않는다. 그러한 인식, 그러한 말이 우리를 선행과 화쟁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부처님께서 일러 주신 법은 그 너머의 경지를 가리킨다.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려, 보시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은 가치가 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도 뜻이 깊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심성은 순화되고 사회는 건전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사바 세계에 몸을 나투신 뜻은 무명을 넘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시려 한 데 있다. 그저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싸우지 말고 화합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셨다면 그런 말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와 내가 참으로 둘이 아닌 경지, 시비분별을 넘어선 진리의 세계 - 온갖 생명이 그대로 싱그럽고, 그대로 다툼이 없는 차원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불법공부는 죽는 공부라고 한다. 첫째로 내가 죽고 둘째로 나와 남이 죽고 셋째로 나와 남과 일체가 죽어야 비로소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나'로서 온전하게,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뿐 아니라 뭇 생명, 자연도 마찬가지다. 고로 서로가 둘이 아니려면 먼저 '나'가 죽어야 한다. 깡그리 죽어야 한다. 나로서 죽고 남과 더불어 죽고 일체와 함께 죽어야 '나'니 '너'니 '대상'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은 죽는 법이다. 내가 죽음으로써 부처가, 부처로 사는 법이다.

둘이 아닌 법, 대긍정의 법, 무분별의 법, 평등의 법은 죽어야 안다. 죽음으로써 참 삶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일체를 살리는 불법은 죽어야 만나는 생명의 법이다.

부처님 오신 달, 싱그러운 5월에 모두 죽어 진짜 봉축을 해 보자. 싱그러운 삶의 길을 찾아 나서 보자.

협찬 : 주 인 공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관 음 성 지 낙 가 산
보 문 사
사부대중일동
▶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
전화 : 032-933-8271-3
팩스 : 032-933-8270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여래원
성남 지장사
원장 운 월
대중 일동
▶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62-10
전화 : 536-3349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 재 웅
회원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전화 : 742-0172

경 수 사
주 지 김 보 경
신도회장 조 상 래
신도 일동
▶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목신리
전화 : 0334-72-3668

불 광 사
주 지 조 광 현
신도 일동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5-1
전화 : 359-5367

대한불교조계종
관음기도도량
남해 보 리 암
주지 동 욱
대중 일동
신도 일동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전화 : 0594-6500, 6115

정 토 사
배달문화 선양회
설 산 장 학 회
주지 설 산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전화 : 379-5502

대한불교 조계종
작약산 구천암
회주 예 약 산
주지 각 명
신도 일동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성포부락
전화 : 0525-35-9253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오 백 나 한 기 도 도 량
보조국사 정혜결사도량
거 조 암
주지 혜 해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종무소 : 0563-35-1369
주 지 : 0563-35-2609

낙 산 사
주지 송 지 홍
대중 일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전화 : 0396-672-2448

고덕산 남 고 사
주지 도 정
신 도 일 동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1가 724
전화 : 0652-84-9640

구천산 광명정사
주 지 도 성
신도회장 오 창 환
신 도 일 동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38-1
전화 : 0527-356-1960

날마다 좋은 법회
대한불교 법화종 **구 화 사**
주지 도 광
지장회장 류행자 화엄회장 서복계
관음회장 소경희 신도회장 조현규
총 무 우대자(김영애,김난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520-2번지
전화 : 053-323-4984, 324-0865

법운 포교원
원 장 법 운
신 도 일 동
▶ 서울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전화 : 889-4003
팩스 : 871-6995

남해 망운암
주 지 박 성 각
대 중 일 동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번지
전화 : 0594-63-3095~6

대한불교총화종
귀 현 사
주지 법 성
신 도 일 동
▶ 대전시 동구 중동 51-17
전화 : 042-257-6733

정병산 도 덕 암
주지 김 명 현
신 도 일 동
▶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122
전화 : 0551-91-7263

한국승가대학원
법주 최 공 덕
▶서신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2동 486-13
전화 : 대구연구실 053-952-8711
부산강의실 051-645-6224

대한불교조계종
보 림 사
주지 손 도 견
연꽃모임회원 일동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수월동 65-1
전화 : 0542-73-4255, 4256

불 교 미 술 관
관장 김 성 호
임직원 일 동
▶ 전시관 : 서울 종로구 견지동 33-2
전 화 : 사무실 02-733-4800
02-739-2991
팩 스 : 02-739-2992

대한불교조계종
동리산 태안사 서울포교당
대 명 사
주지 허 원 명
금강선원 회 장 이 돈 우
대 명 사 신도회장 배불성화
금강선원 참선회 :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정진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10호
전화 : 553-4856~7

대 흥 사
주지 김 혜 담
신 도 일 동
▶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내리 411
전화 : 0334-675-7100, 750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장 이 두
대중일동
신 도 일 동
▶ 충북 청주시 우암동 산14-1
전화 : 0431-56-6254

대성사 원융원
주지 법 신
신 도 일 동
▶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40-8
전화 :237-9796, 252-3067

삼 보 사
주지 윤지원
신도회장 임 석 순
거사림회장 홍 성 걸
연 화 회장 차 정 순
▶ 서울시 은평구 역촌 1동
전화 :352-6406

佛心으로 모시는
제일건국화원
대표 전 병 탁
임직원 일동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5-2
전화 : 02-732-2971
팩스 : 02-737-5932

구파발 흥 국 사
주지 최 홍 선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203번지
전화 : 02-381-7970~1

대한불교조계종
호 암 사
(아동복지 룸비니)
주지 현 종
대 중 일 동
▶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293
전화 : 0582-541-7863

대한불교조계종
보 광 사
주지 자 성
대 중 일 동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61
전화 : 0565-82-3004
82-5183
83-3154

만 의 사
주지 성 직
노전 응 진
대 중 일 동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전화 :0339-72-6005

청 계 사
신 도 일 동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11
전화 : 0343-26-2348, 26-2670

신 흥 사
(청소년 수련원)
주지 오 성 일
신 도 일 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전화 : 0339-57-2695/3916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정사
성동불교 포교원
주지 법 경
육바라밀회장 성장엄각
능인불자 일동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
전화 : 462-1335, 1339
팩스 : 462-1339

수 안 사
주지 박 세 민
이 사 장 서 대 광 명
신도회장 이 여 래 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번지 12호
전화 : 587-4677, 3213

대한불교조계종
송 광 사
주 지 한 지 원
신도회장 이 광 영
대 중 일 동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전화 : 0652-243-8681,8091 / 244-7832

약 사 암
주지 성 곡
신 도 회 장 조 동 환
신도운영회장 주 영 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2번지
전화 : 937-9132

문화재 수리:단청기능 708호, 도금기능 821호
탱화 · 단청 · 불상조성
한국불교미술원
원장 정 규 진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전화 : 730-8072 / (야)648-0930

한국불교태고종
백련사 포교원
원장 박 지 상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2-16
전화 : 547-8268, 8269

진 관 사
주지 진 관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전화 : 359-8410

대한불교총화종
정 은 사
주지 이 기 태
신 도 일 동
▶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4동 18번지 21/2
전화 : 032-875-5280, 3459

안산 유마정사
주지 이 정 명
대 중 일 동
▶경기도 안산시 와동 762번지 유통상가 1동 303호
전화 : 0345-87-1315

청 룡 사
(청룡유치원)
주지 이 진 우
신 도 일 동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1
전화 : 763-4031

대한불교법화종
무 량 사
주지 무 량
신 도 회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64-1
전화 : 02-355-5264, 351-3789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성 상 륜
총무 이 정 호
신 도 일 동
▶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1번지
전화 : 379-2996, 379-9665

사 천 왕 사
주 지 성 덕
신도회장 김 경 라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주공3단지 일신플라자401호
전화 : 939-3900, 938-3900

옥수동 미타사
주지 재 호
교무 명 수
재무 법 련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 성동구 옥수동 395
전화 : 297-1992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진 우
신 도 일 동
▶ 전남 완도군 · 읍 성내리 168번지
전화 :0633-54-2634

청 룡 사
마야 합창단
주지 김 법 운
합 창 단 · 신 도 일 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전화 : 612-0609

청 룡 사
주지 양 서 암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산200
전화 : 0582-32-9808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위탁운영체: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관장 이 명 우
실장 맹 경 륜
임직원일동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8번지
전화 : 646-6815~9/646-0181~5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류 진 수
상임부회장 임 채 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전화 : 464-2020

생기자화수기 전시관
천불사 문화원

대 표 김정순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 현대빌딩
전화 : 644-4915~6

천 불 사

회 주 허 도 봉
신도회장 허 보 은

● 경남 양산군 웅상면 매곡리 304
전화 :0523-84-6541, 82-1463

BBS 나눔회

회 장 정 수 관
부 회 장 김 귀 정
사무국장 옥 명 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3-13 보성빌딩
전화 :466-2618~9

正法弘布를 위하여 惠步登一段하는
釜山佛敎實業人會

회 장 김정태
고 문 강병중
상임부회장 서춘석
부회장 조영준 감 사 정호철
부회장 백봉도 감 사 박수복
부회장 최 창 총무이사 박영근
부회장 최용원 재정이사 배영호
부회장 김윤환 특별사업이사 김진석

회 원 일 동

● 부
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7-14 국제O/T 1805호

불교전시관

대 표 조 재 원
※탱화, 동불, 특수불, 개금, 단청, 범종, 탁자
※불교서적, 테이프, 4·8용품
※불교용품 일체 도산매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
전화 :647-7393, 632-7393, 644-8092

불자예식의 새명소
지장기도도량 조계종 정 수 사

주 지 원 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10-52
전화 :051-758-6021~3

· 부산불교 자비원
(자비의전화,무료법률상담) 원장
· 사회복지법인 대각자비원 이사장
· 부산불교대학 학장
· 봉래산 미륭사 주지

김 정 각

● 자비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3-4
전화 :461-0009, 465-8307, FAX441-2719
● 미륭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전화 : 404-4300, FAX404-2100

인삼당 건재약국

대표이사 박 정 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4 자유시장 3층
전화 : 632-0023

동도꽃방
자유시장 번영회

회 장 심 용 보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4 자유시장 3층
전화 : 645-3331

부산불교 교육대학

학 장 이 하 우
이 사 장 한 재 구
부 학 장 박 주 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성원서면주차 빌딩2층
화엄회관 내 전화 :818-8659 / 팩스 : 807-7351

통도사 부산포교원

원 장 태 응
주 지 심 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전화 :816-2241

해동용궁사

회 주 주 정 암
신도회장 허 정 순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16-3
전화 :722-7744 / 팩스 : 722-7755

부산불교녹야회

회 장 이 종 판
총 무 황 덕 규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2동 동보빌딩 4층 830-267
전화 :634-5114

바라밀 포교원

신도회장 양 수 명

신도일동

● 전화 :051-633-6413

BBS 사진가회

회 장 옥 명 수
부 회 장 강 윤 성
총 무 한 용 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3-6
전화 :466-2168~9

부산불교여성불자회

회 장 왕 선 자
부 회 장 이 윤 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성원서면 주차빌딩
전화 :817-3166, 806-6718

대경기획

기업홍보물, 행사기념품, 선물용품,
답례품, 상패, 트로피, 각종명패, 천
목회기, 청첩장,
각종인쇄물

代表 金 春 植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1262번지
전화 :051-633-2019, 644-7475 / FAX : 633-2019
호출 : 012-574-7481 / 휴대폰 : 011-562-7481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주 지 혜 도
신도회장 이 하 경
박 성 빈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중리 522-1
전화 :403-7077 / 팩스 : 403-1077

산사선행회

회 장 이 숙 향
부 회 장 강 행 자
총 무 마 명 순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5동
전화 :627-8334

부산불교 신용협동조합

대출이 쉽습니다!

이사장 사 상 호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4-20
전화 633-9120-3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장 이 상 대
외무부회장 전 도 영
내무부회장 천 진 황
사 무 처 장 최 병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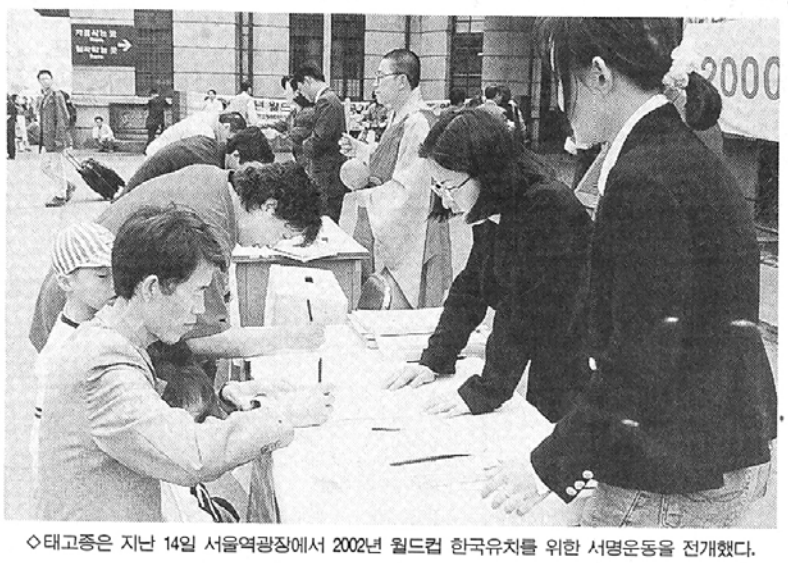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3동 393-12
불교회관내
전화 862-0680 / 팩스 853-9082

불교계에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 바람이 뜨거워지고 있다.

영국 로이터연합통신은 지난 16일 태고종 총무원의 2002년 월드컵유치 기원을 위한 아침 기도 장면을 취재하고 한국불교계의 월드컵유치 열기를 각국에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세계 각국에 한국에서의 월드컵유치가 유력하다는 기사를 실어보냈다.

불교계의 월드컵유치운동은 태고종이 오는 29일 월드컵유치를 기원하는 대규모법회 개최와 지난 13일부터 21일에 걸쳐 '월드컵유치기원 3·7일기도'에 들어가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태고종은 5백만 종도의 원력을 모으기로 하고 전국 2천



◇태고종은 지난 14일 서울역광장에서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태고종 21일간 월드컵 유치 기원

14일 서명운동…29일 한강서 10만관등 영산법회

6백여 소속사암에서 동시에 아침예불과 사시불공 저녁불공 이후 월드컵유치를 기원하는 축원을 하고 있다. 총무원도 총무원장 혜초스님을 비롯하여 각급기관장·부장스님 10여명과 30여명의 종무직원들이 총무원 삼천불전에서 매일아침 9시 기도및 축원을 올리고 있다.

이와함께 태고종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무원 간부스님 10여명과 직원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1천4백여명이 서명에 동참하여 '월드컵을 한국에서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국민적 열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지속적으로 벌이게 될 서명운동은 이달말에도 국내의 축구열기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국가대표팀과 외국팀과의 친선축구대회 경기장에서 계속 접수하여 국민홍보와 불자들의 원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고종의 2002년 월드컵유치 성공기원 10만관등 영산대법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2천만 불자의 기원과 힘을 축제형식으로 구성하는 제1부 식전행사에서는 비행선 연막쇼등이 펼쳐지고 2부 기원법회 3부 영산재 4부 불자연예인 특별공연순서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북녘에 방송으로 초파일 법문"

한상길법사 진행 '우리곁으로 오신 부처님'

24일 대북종교방송 봉축법회

북녘땅 군인과 주민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문을 듣게 된다. 대북종교방송은 부처님 오신날인 24일 한상길법사의 진행으로 방송법회를 열고 봉축법문 '우리곁으로 오신 부처님'을 방송으로 전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대북종교방송은 휴전선 155마일 전지역 인민군과 북한주민이 청취가 가능하며 국방부 자유의 소리 확성기를 통해 불교는 매주 금요일 하루 4회에 걸쳐 방송되고 있다.

대북방송 봉축법문 '우리곁으로 오신 부처님'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북녘의 동포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20년전 룸비니동산에서 태어나 29세에 출가하시고, 6년의 고행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맨발로 인도땅 곳곳을 다니시며 중생을 위해 45년간 법을 설하시다가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날입니다.

늦은 밤 추위와 졸음과 싸우면서 피곤한 몸으로 남녘을 향해 보초서고 계신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처님 오심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앞으로도 한량없는 백천억의 모습으로 우리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종의 삶으로부터 주인의 삶으로 평등한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실것입니다.

북녘의 동포여러분, 마음속에 등불을 켜고 마음속의 번뇌를 씻어냅시다. 그리하여 남북동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동무하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통일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종교방송법회 공덕으로 모든 북녘의 동포들과 인민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보람과 영광의 삶이 되기를 두손모아 축원드립니다."



스승의날 보은의 꽃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중앙승가대학인스님이 교수 태원스님(불교학과 학과장)에게 보은의 꽃을 달아 주고 있다. 이날 승가대학에는 정진관에서 대동제 개회식에 앞서 스승의날 기념식을 봉행했다.

통일기원 점등법요식

극락사, 월정리 전망대

포천 극락사(주지 신명)는 지난 13일 오후 육군 청성부대 월정리전당대에서 전총무원장 서봉스님 전교무부장 우담스님 안정사주지 벽파스님 남재준 청성부대장 김호연 철원군수 임승중 철원경찰서장 극락사신도 동방대학생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기원 점등 법요식을 거행했다.법요식에서 서봉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온누리에 밝혀 북한 동포들의 평화와 안락을 기원하자"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 극락사주지 신명스님은 육군 청성부대에 위문품과 운동용품을 전달했으며 청성부대에서는 서봉스님과 신명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포교지 의식테잎 제작

군승단, 군법당 배포

군승단(단장 강남석)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군불자 신행진작을 위해 군불교 포교지와 법회의식테잎을 제작, 지난 15일 선보였다. 군승단은 설법과 지상교리강좌, 법당탐방, 신앙상담 등을 실은 월간 '군불교지'를 발간하고, 전국 군법당에 창간호 2만5천부를 배포했다.

또 군승단은 법사가 직접 법회를 주관하지 못하는 각 예하대 법당의 소규모법회를 군종병이 인례자가 돼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한 법회의식테잎을 제작하고 각 예하부대에 보냈다.

대성사 '찬불가의 밤'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용암)는 지난 12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천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회 찬불가의 밤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민요 연곡이 2부에서는 음악대서사시 '봇다'가 공연, 대성사 풍락합창단 대구불교대합창단 소프라노 김성녀씨가 출연했다.



'환경수행 안내서' 발간

스님과 불자들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수행 안내서가 최초로 나왔다.

조계종총무원은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6월 1~2일 여는 '청정국토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환경수행 지침서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를 발간했다. 집필은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이 맡았다.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과 사찰내의 생활협동조합운동, 다양한 환경교육과 환경캠페인 운동 등 불자들이 알아야 할 환경관련 정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불자들에게 교리와 수행의 측면에서 환경운동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봉축 단신

26일 청소년 예술제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오는 26일 오전 9시 부산교육대학에서 제5회 전국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한다. 시조백일장과 시조창 경창대회로 나누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직교사들이 참가하는 지도교사부와 초·중·고생들이 참가하는 학생부로 진행된다. 시조창은 학생부의 경우 평시조 사설시조 질음시조등 12곡중 한곡을 선택하며 지도교사부의 예선은 질음시조로 본선은 평시조로 한다.

예술제에 참가할 사람은 참가신청서와 학교장추천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문의 (051)816-2241

신행단체 장기자랑

5월 한달동안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다양한 봉축행사를 벌이고 있는 봉은사(주지 무상)는 부처님오신날 전야제로 28일 저녁 6시부터 대웅전 앞에서 공옥진씨 초청공연과 신행단체 장기자랑을 갖는다. 봉은사는 지난 20~22일 3일동안 봉은사앞 도로에서 영업용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호신염주달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불교문화대제전 '취소'

영등포구청 상업성이유 허가 안해
불교TV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계획

2천만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속에 오는 23일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불교문화대제전이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청의 횡포로 사실상 무산됐다. 〈77호 19면 보도〉

이같은 사태는 당초 7천평 규모로 열릴 예정이던 불교문화대제전 중 주요부분인 생활관 3천평에 대해 영등포구청이 지난 10일 "행사내용대로 허가할 경우 상업성에 치우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갑작스런 허가불가 공문을 보내온 것.

불교TV는 지난해 12월 행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 허가를 받고 이미 전체행사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생활관 임대관매 계약등을 마쳤고, 생활관을 열 수 없을 경우 사실상 행사예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교문화대제전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문화대제전 준비를 총괄해온 불교TV 경영관리국 이호국장은 "각종 단체의 여의도 행사때마다 생활관부분의 설치는 관례적으로 허용돼 왔다"면서 "지난 4월말 여의도에서 펼쳐졌던 타종교단체 행사에서 야기된 불미스런 문제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불교문화대제전에까지 적용, 이같은 갑작스런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불교TV는 "영등포구청의 이번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넘어 종교편향적 조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불교문화대제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불교TV는 행사취소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앞으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목탁소리

노인들의 실망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복지재단이 지난 14일 탑골공원에서 개최한 노인공양법회는 자원봉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사 주최측으로 참여한 스님들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동참으로 아쉬움이 컸다. 당초 행사취지가 '적극적인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 사회의 냉대와 소외속에서 생활의 무료함, 건강의 약화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자리'라는 행사 개최의 의미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이다.

주최측 스님들은 10시30분부터 시작한 행사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해 의례적인 인사말 몇마디를 남긴채,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는 물론 노인들에게 "맛있게 드시라"는 한마디 인사조차 없이 행사장을 휑하니 떠나 버렸다. 오랫동안 행사준비에 고생한 봉사자들 뿐만아니라 불교계 행사에 기대를 갖고 몰려든 3천5백여 노인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한국불교사회봉사회 관음화보살은 "절에 가면 스님들은 언제나 저희들을 향해 자비행을 강조하시죠. 그러나 스님들 스스로는 실천하는 모습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라며 못내 섭섭한 마음을 감추질 못했다.

최순식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도 나는 그저 밥이나 얻어 먹으러 여기에 온게 아니여. 스님도 뵙고 스님들의 모습과 말씀에서 감흥을 얻으려 했는데, 내 욕심이 너무 과한거였나?"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날 법회는 오직 행사개최자라는 생색내기에 급급하게 보였던 스님들의 무성의한 참여로 실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龍頭蛇尾) 행사에 머물렀다.





현불뉴스

동대학생등 322명 수계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14일 정각원법당에서 개교 90주년기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계사로 동국대 교직원, 학생, 일반불자등 3백22명이 수계를 받았다.

불국사등 보궐선거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현해)는 지난 15일 회의를 갖고 불국사와 금산사 종회의원 보궐선거를 6월14일 실시키로 결의했다. 또 효림, 송산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직능직 종회의원 선거를 5월29일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소년원 봉축수계

천안소년교도소는 지난 8일 부처님 봉불식 및 어버이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여성문제연구회(회장 윤용숙)의 후원으로 치뤄진 이날 행사에는 법광스님(강원도 칠불사)의 집전으로 3백여명의 소년수용자들에게 수계를 했다.

청소년불자 사생대회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초중고등학생 글쓰기 그리기대회가 지난 12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청소년불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청교련대구지부(지부장 지성스님)와 바른글쓰기모임이 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참가상은 보현사학생회가 글쓰기부문 최우수상은 '내 리사랑 부모님사랑'을 쓴 한마음선원 김소희양(고2)이, 그리기부문 최우수상은 보현사의 조영주양(초등 6)이 각각 차지했다.

구룡사 어린이 큰잔치

구룡사(주지 정우)는 지난 12일 문화회관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1회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했다.

분당 아름유치원을 비롯 어린이집 1곳을 포함 11개 유치원 2백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구연동화와 율동, 노래자랑 등의 발표회를 가졌다.

월주스님 소송 '기각'

서울지법 민사 합의 13부(부장판사 성문용)는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무효확인소송'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선고공판에서 두건 모두 일부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려 사실상 소송을 종결했다.

"고속철 경주통과 문화위기"

종교·학계대표 77명 지식인 선언 대구-부산 직통 주장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대표 77명은 지난 15일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지식인선언'을 통해 "고속철도의 경주 경유는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정되었을 뿐으로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결과는 천년의 역사도시를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주통과를 취소하고 대구-부산으로 직진하는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 형산강노선안의 지하구간은 지상구간보다 4~5배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매장문화재 발굴로 공사기간 또한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결코 이득이 없다"고 지적하고 "불가피하게 경주를 통과해야 한다면 경주 외곽인 건천-화천을 잇고 건천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자는 문체부의 대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중운동 등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추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 고속철도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원장, 시인 고은, 한병삼 문화재위원 등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대표 20여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지식인선언에는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혜초 태고종총무원장, 운덕 천태종총무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한광도 천도교종무원장, 범하 법정 설조 태능스님, 황수영 정재각 민병천 전 동국대총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박윤흔 대구대총장, 김찬국 상지대총장,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 강원룡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김보현 원불교 은혜심 기본부장,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종서 교육개혁위원장, 시인 서정주 구상 조병화 김지하, 소설가 이문열 남지심, 임효재 한국고고학회장, 손봉호 권태준 경실련공동대표,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공동대표,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 유재현 경실련사무총장, 최열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장 등 77명이 서명했다.

〈정성운 기자〉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대표 77명은 지난 15일 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지식인선언을 발표했다. 고은 이기영 서돈각박사 등 지식인대표들은 경주고속철도 통과는 천년 역사도시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범교민 종교인 대북지원기구 발족

수재와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범교민 초교파 지원기구인 '북한동포돕기 후원회'가 지난 4월2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식 발족됐다.

토론토 한인사회봉사회에서 열린 발기인 모임에서 공동위원장에 양일스님(대각사 주지) 조이식 목사, 이인주 신부, 조성준 메트로시 의원을 선출하고 국제적십자를 창구로 대북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봉축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보은에 7번째 노인병원

연꽃마을, 6월부터 무료의료서비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지난 6일 이구섭씨(45)로부터 충북 보은군 소재 '동제의원'을 기증받아 오는 6월 노인무료병원을 개원한다.

서울 마포·송파, 군포, 안양, 대전, 청주에 이어 7번째 노인무료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연꽃마을은 기증받은 동제의원을 빠른 시간안에 노인질환 전문의원으로 전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제의원은 기증자 이구섭씨의 선친 이희철씨가 40여년전 개원한 것으로 보은지역내에서는 가장 역사깊은 의료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사 대웅전붕괴 항의 신도 6명 부상당해

한국일보 사옥 신축공사로 인한 조계사 대웅전 붕괴 대책을 요구하는 조계사 신도들이 현대건설 직원들과 충돌, 신도 6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조계사 성전수호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채식)는 지난 11일 신도 3백여명과 함께 현대건설 본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 현대건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괴청년 2백여명이 신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조계사 대책위는 사태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17일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용주사 주지에 정락스님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는 지난 13일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주지에 전 포교원장 정락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2백여 분도가운데 선거자격이 있는 44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주지로 선출된 정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선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포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승가대학장에 지하스님



중앙승가대학(이사장 월주)은 지난 13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송산스님의 사표수리에 이어 지하스님(종단협 부회장)을 후임 학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지흥(낙산사주지) 정수(용문사주지) 원우(총무원 재무부장)스님을 후임 감사로 선임했다.

파라미타 첫 문화축제

서울지부 발대…사찰·학교 93곳 가입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총재 성타)는 지난 12일 잠실역 도경기장에서 서울지부 발대식 및 제1회 청소년문화대축제를 개최했다. 3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청소년문화대축제에서는 동대부고의 탈춤공연, 동대부중 명성여중등의 청소년들의 무대가 마련됐다.

오는 5월말까지 1백20개의 분회가입을 목표로 하는 파라미타는 현재 사찰단과 학교단을 포함 93개가 가입되는 등 조직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파라미타는 오는 6월중 부산지부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말까지 전국 15개지부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사업과 함께 청소년 법요집발간(5월말), 덕유산캠프(8월6일~9일)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ASEM 경주유치 위덕대서 서명운동

위덕대(총장 손제석)는 지난 16일 2000년 ASEM 유치신청 제출마감과 관련, 경주유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홍보지 배포와 서명운동 플랜카드 홍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ASEM 유치캠페인은 15일부터 22일까지 학생회간부와 교수·교직원이 참가하여 학교와 경주역 버스터미널 대릉원 불국사 보문단지에서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4일 탑골공원에서 3천5백여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공양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탑골공원 노인 의료·급식 공양

조계종 복지재단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월주)은 지난 14일 탑골공원에서 노인공양행사를 개최, 사회의 냉대와 소외속에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날 노인공양행사에서는 복지재단과 한국불교사회봉사회가 마련한 무료급식, 신농백초한의원 한의사와 조계사내에서 농성중인 한의사, 아산재단 중앙병원 무료진료팀의 무료진료, 이미용기술자들의 이미용봉사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됐다.

외국인 노동자 50명 조계사서 봉축법회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가 지난 12일 조계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법회에는 외국인노동자 마을,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집 불자외국인노동자와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했다.

중앙신도회 창립중지 요청키로

전신회 7인대책위, 조계종에

전국신도회는 지난 14일 오후 송현클럽에서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7인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수)의 권한을 회장단 선출 때까지 연장키로 하는 한편 7인대책위를 통해 중앙신도회 창립중지를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키로 했다.

이에대해 총무원 총무부장 법타스님은 "조계종의 유일한 신도조직은 중앙신도회 뿐"이라며 신도법 규정을 상기시켰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애초 회장단 선출과 정관개정을 논의키로 했으나 새회장단 구성의 어려움으로 두 안건 모두 안건으로 상정치 않고 곧바로 활성화대책위원회의 권한 연장을 의결했다. 활성화대책위는 회장단 및 이사회 구성, 8월 하기수련회까지 전신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게 된다.

"혐오시설 이미지 불식시켜야"

영각사 '불교납골문화정착' 토론회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총 1천7백40여평에 3만기의 납골묘를 봉안할 수 있는 극락영묘전 기초공사와 주변공원화 작업을 추진중인 영각사가 지난 13일 '납골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법스님(영각사 주지)은 "화장·납골제도의 장려를 위해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도록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장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책임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복교수(한국토지행정학회장·증부대)는 "불법묘 호화묘 무연고 묘지가 성행하여 국토의 효율적 운용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매장제도를 갑자기 화장·납골제로 바꿀 수 없을경우 15년 동안 매장한뒤 납골하는 시한부매장묘지제도의 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이어 지호실업 이병호대표는 영각사 사원극락영묘전 공사진행을 설명하고 교계 최초로 사원내에 허가받은 영각사 납골당은 지난 4월 기공식을 갖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규묘는 지하3층의 납골당과 부속시설, 지상에는 영묘전법당이 들어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대표는 "앞으로 양평지역과 백양사 등의 납골당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김원우 기자

마음 내 몸은 생명 집합소

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생명의 집합소입니다. 고로 밥을 먹어도 내가 먹는게 아니라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나에게는 고정된 이름도 붙질 않습니다.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봉축 부처님 오신날 불교성지순례 봉축 부처님 오신날

혜초의 특별기획 <한정파격요금>

스리랑카 ····· 5박6일
▶출발일 : 6/4, 25, 7/9, 23, 8/6, 27 동참금 : 89만원

일정표

일자	방문지	교통편	일정
제1일	서울 콜롬보	국제선	서울출발 콜롬보 도착
제2일	콜롬보 아누라다푸라 미힌탈레	전용차량	스리랑카 최대 불교유적지 아누라다푸라 도착 사원, 이수로무니아 사원,루완웰라세야 대탑, 보리수사원 순례, 스리랑카 최초의 불교 전래지 미힌탈레 순례, 미힌탈레 출발 / 하바리나 도착
제3일	폴론나루와 담불라 캔디	전용차량	폴론나루와 불교유적 순례 시기리야 암산 요새 방문 담불라 석굴 사원 순례후 캔디 도착
제4일	봉치사 콜롬보 라비니아	전용차량	부처님 치사리가 모셔진 봉치사 순례 캔디시내 관광후 콜롬보 도착 젤러니아 사원, 강가라마 사원 순례후 리비니아 도착
제5일	라비니아 콜롬보	전용차량	휴양지 라비니아 해변 휴식 콜롬보 시내 명소 관광
제6일	콜롬보 서울	국제선	콜롬보 출발 서울 도착 ※성불하십시요.

티벳 중국 네팔 ····· 9일
▶출발일 : 6/9, 7/7, 8/11 동참금 : 230만원
서울-상해-성도-라사-쟝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기내-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 9일
▶출발일 : 6/12, 21, 7/6, 20, 8/5, 17 동참금 : 159만원
서울-상해-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트루판-우룸치-북경-서울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출발 상담환영(일정조정가능)

민족의 영산 백두산
특선1 백두산 연길 ····· 3박 4일
▶출발일 : 6/8, 22, 7/6, 13, 20, 27, 8/3, 14, 24 ▶동참금 : 78만원
서울-심양-연길-백두산-연길-심양-서울

특선2 백두산 연길 북경 만리장성 ····· 5박 6일
▶출발일 : 6/4, 20, 7/2, 9, 16, 23, 30, 8/13, 20, 9/3 ▶동참금 : 99만원
서울-심양-연길-백두산-연길-북경-서울

고품격 대만 성지 순례 4박5일
▶출발일 : 6월 5일 ▶동참금 : 65만원
서울-심양-연길-백두산-연길-북경-서울

新기술로 21세기에 도전하는 –
KIA 기아자동차

5월 9일 동시발매
1.5SOHC
1.5DOHC
1.8DOHC

新강자가 떴다

'97년형 세피아 전격등장

국내외 50만고객의 전폭적인 성원 속에 준중형 대단의 강자로 군림해온 세피아…
더욱 늠름하게, 보다 강인하게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마침내 新강자로 거듭납니다.
1500cc급은 물론 준중형 최강의 파워를 실현한 1.8DOHC까지… 기아의 52년 기술력을 총결집해
탄생시킨 97년형 세피아, 고객여러분께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SEPHIA
NEW SEPHIA

新강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 준중형 최강 139마력을 실현한 1.8DOHC 엔진 탑재(1.8)
- 심플한 스타일의 분리형 리어 콤비램프
- 그래픽 기능이 보강된 오디오 이퀄라이저
- 소수석 안전까지 확보한 풀사이즈 듀얼 에어백(선택)
- 보다 산뜻해진 라디에이터 그릴
- 후면 스타일을 살려주는 배기파이프 어댑터
- 더욱 밝고 컬러풀해진 시트

강자에겐 힘이 있다

SEPHIA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부처님오신날 특집

"부처님은 우리들 마음에 계시네"



그림·조각으로 보는 부처님 탄생



조황숙씨의 '부처님 오시는 길'. 마야부인의 꿈에 부처님이 흰 코끼리를 타고 태중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을 토대로 했다.





불교자수연구가 남상인씨가 한땀한땀 수놓은 '팔상성도' 중 부처님 탄생모습. '아홉 용이 목욕을 시키네'란 제목이 붙여졌다.



◇캐나다 턴린곡엔 재단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佛門(Buddhist Door) 사이트의 부처님 일대기중 한 장면. http://www.tunlinkok.ca/



◇손연칠作 '송-그 일곱걸음'.

김영희씨의 닥종이 인형. 중생들을 감싸안은 자애로운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해 부처님 오신 뜻을 상징화 했다.



돈황석굴 제277굴의 서벽 남측부분에 그려진 부처님 탄생도. 당나라때 제작된 것으로 선의 부드러움과 색상이 돋보인다.



룸비니 마야데비 사원에 모셔진 우리나라 탄생불을 네팔의 화가가 그렸다. 네팔우편엽서에 인쇄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최호익 홍제초등학교 4학년

엄마손 잡고
시내에 갔다
일렬종대로 매달린
연등
부처님 내려오는 길
만해스님 오시나
성철스님 오시나

그 길에
고무다리
질질 끌면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는 아저씨
연꽃같은
바구니에
엉거주춤
5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
엄마는
부처님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계신다고 하셨다

금동옷 입고
연꽃마차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
소리없이
계시는 부처님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향 한 개의 향기가 퍼져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듯, 바른 수행자의 존재는
이세상의 희망입니다.

大韓佛教曹溪宗
宗　正　老天　月下
總務院長　太公　月珠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부처님은 가르침을 알았으면 사람들을 위해 알려 주어야 한다고 했다. 포교는 과연 어른들만의 몫인가. 새싹불자들도 주위 친구에게 포교해 선근공덕을 쌓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어린이불자들의 포교사례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박정미(서울 중평초등 5년)



절에서 배운 노래·놀이 알려주니 친구들 좋아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가느니보다 친구를 이끌고 절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불교를 믿는 친구들은 잘 알 것이다. 나는 엄마를 따라 절에 다니다가 2년전부터는 어린이법회에 가입해 다니고 있다. 교회만큼은 재밌지 않지만 난 스님이 계시는 어린이법회가 참 좋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그저 절이라고 하면 무섭게 생긴 사람들로 가득차고 심심하고 지겨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내가 절에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은 신기해하고 때로는 돌연변이 취급을 한다. 그래서 친구를 이끌어 절에 함께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난 더욱 사찰에 열심히 다녔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어린이회에서 배운 노래를 고무줄넘길때 부르는 노래로 응용을 하고, 스님에게서 배운 놀이를 가르쳐 주며 놀았다. 물론 나도 즐거웠지만 친구들 역시 즐겁고 재미있어 했다. 그 친구들 중에 민지와 영옥이는 내가 다니는 어린이법회에 다니게 돼 일요일이면 함께 절에 간다.

스님과 엄마는 이 일을 놓고 내가 친구를 포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특해 하셨다.

이렇게 전법 했어요

김병수(부산 혜화초등 6년)



일단 절에 데리고 와 스님 법회분위기 등 보여줘

50여명의 반 친구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절에 나가는 친구들은 25명 정도로 다른 학급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래서 나같은 경우엔 불교 어린이회의 몇몇 다른 친구들처럼 종교를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은 없다. 그것이 무엇보다 나에게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난 때때로 용기를 얻는다. 절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일단 절에 가 보자'고 억지아닌 억지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친구 수진이를 내가 다니는 관음사에 데리고 간 적이 있다. "절에 가면 '마귀' 같은게 많은데 너 무섭지 않니"라며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던 수진이가 이제는 나보다 더 어린이회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매주 절에도 빠짐없이 나온다.

난 불자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친구들을 일단 절에 데리고 와 어린이회와 스님, 절의 분위기를 보여주라고.

어머니가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걸 보면 내 '작전'이 성공적인 것이 틀림없다고 자신한다. 친구들아 화이팅!

부처님오신날 특집

24일은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이 싯달타 태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다. 부처님은 아기태자로 나시기 이전에 흙, 돌, 나무, 새…그리고 수많은 다른 동물로 태어났던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메추라기 새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일이다. 〈편집자 주〉

부처님오신날에 듣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아기 메추라기

이 전생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을 여행하고 계실때 산불이 꺼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옛날 마가다국 어떤 숲속에서 귀여운 새끼 메추라기가 태어났다. 알이 깨지면서 마치 둥실 떠오른 보름달처럼 포동포동 살찐 귀여운 얼굴이 나왔다. 엄마아빠새는 매일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새끼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물어왔다.

"자! 맛있지? 많이 먹고 하루 빨리 날개와 다리가 튼튼해지렴!"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아빠새는 맛나게 먹이를 먹는 아기새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마침 그때 새들이 살고 있는 숲에 큰 산불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건조해 있던 숲의 나무들은 서로 가까운데 엄마아빠새는 안절부절하며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곧이어 인근의 숲에서 빠작빠작 나무들이 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저녁 노을에 물든 것 마냥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부모는 그런 광경을 보자 아기메추라기를 둥지에 남겨두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랴부랴 날아갔다.

새끼 메추라기는 번져오는 연기 속에서 산불이라는 난생처음 보는 끔찍한 비극이 파도처럼 다가오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네. 갈광질광하지도 않고 오로지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맹세합니다. 옛날부터 존재하고 계시다는 모든 부처님처럼 계율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며, 자비심을 지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구제해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이 숲의 모든 목숨들을…."

자신만의 구제가 아닌 부모와 다른 동물들의 무사까지 정신없이 기도하였다. 어린 메추라기의 그런 모습에서 타인의 고통까지도 구제하려는 존귀한 자비심으로 넘쳐나는 진실한 수행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의 참다운 이치를 판별하는 현자의 모습이었다. 새끼 메추라기



삽화·이희탁

불이나자 숲속 동물들을 걱정하는 모습에 자비심…

벱게 부딪치기만 해도 불이 와락 옮겨 붙었다. 그리하여 맹렬한 속도로 나무에서 나무로, 가지에서 가지로, 잎에서 잎으로 옮겨 붙더니 마침내 불은 온 산 전체로 번져나갔다.

메추라기 새끼는 아직 날개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으며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니, 세상에! 저편 하늘이 벌겋게 달아올랐네!"

어미 메추라기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게다가 연기와 매캐한 냄새까지 나잖아?"

아비 메추라기도 불안한듯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숲의 여기저기 나뭇가지에서 퍼드득 하며 새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어쩌지? 아직 우리 아기새는 날 수가 없는데…."

"게다가 땅위를 뛰어다닐 수도 없잖아!"

점차 불기운이 강하게 다가오는 아, 고통스러워. 연기가 너무매워 숨쉴수가 없어. 날 좀 도와줘!"

새끼는 목청을 다해 울었다. 하지만 이미 숲속에 살고 있던 새란 새는 모조리 날아가 버리고, 아무소리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아직 날지도 못하는 걸! 잘 걷지도 못하고 뛰는 일은 더욱 못해. 저렇게 하늘을 물들이며 뜨거운 바람을 실어오는 불 속으로 삼켜지고 말겠지. 아아, 어떻게 해야한담!"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둥지 안을 맴돌면서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더이상 어떻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고서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구원받을 방법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짜내었다.

"죽는 것은 싫어. 어떻게든 살아나야 해!"

중얼거리는 가운데 점점 간절한 기도의 말이 저절로 나왔다. 더이상은 온 마음을 기울여 노래하였다.

"날개가 있다지만 날지 못해요.
다리가 있다지만 걷지도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도 곁에 없답니다.
오오, 불이여! 사라지소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토록 기세좋게 타오르던 불이 새끼 메추라기가 살고 있는 숲의 바로 앞에서 일시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꺼져버렸다. 새끼 메추라기는 놀람과 동시에 감동을 받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린 메추라기의 가슴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전율하기 시작하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산불이 번지지 않은 것은 전생에 내가 메추라기 새끼로 있을때 실현한 진실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때의 양친은 지금의 내 양친이고, 그때의 어린 메추라기는 지금의 나였다."

〈자타카 35〉

타종교 친구에게 쓰는 편지

부처님 오신날 초대하고 싶어

김효정(부산 상리초등 6년)



하나님을 믿는 친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에게 불교가 좋다고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그냥 내가 절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또 절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야.

친구야! 나는 처음 엄마와 함께 이웃에 있는 사찰에 나가게 됐단다. 그런데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처음 절에 나왔을 때 나는 그곳이 무엇을 하는지 왜 절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머리를 깎은 스님과 목탁소리, 먹물바지를 입은 아줌마들밖에 보이지 않았단다. 엄마와 함께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세번 절을 하고 스님들께 두손 모아 인사하는게 무척이나 어색했단다.

그러다가 어린이법회에 참석하여 스님과 지도교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야 절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한다는 걸 알게 됐어.

아무튼 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귀신이 있는 곳이 아니야.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이 모셔져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좋은 곳에 가시라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야.

친구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절에도 놀러오고 해서 스님들과도 알게 되고 불교를 믿는 친구들과도 친해졌으면 해. 며칠 후면 부처님오신 날인데 그때 꼭 한번 사찰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어.

이만 줄일게.

자신의 주인공 믿고싶지 않니…

박혜민(대구 수성초등 6년)



친구야 안녕. 나는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에 다니는 박혜민이야.

혹시 넌 선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니? 나는 참선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믿지않는 생활은 어떠니? 나로서는 너무 허무할 것만 같아. 마치 내가 내 자신을 못믿는 것처럼….

참, 내가 믿는 불교에 대해 설명해 줄께. 아까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말은 나 자신의 주인공을 믿는다는 말과 같아. 주인공이란 나 자신속에 있는 참주인이라고 생각해. 넌 누굴 믿고싶은 생각은 없니? 믿고 싶다면 누굴 믿고 싶니? 혹시 우리 선원에 다닐 생각은 없니? 아니면 한번이라도 나와 볼 생각은? 내가 내 주인공을 믿는다는 것은 정녕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부처님과 하나님도 싸우실까

이상민(전주 남초등 3년)



안녕.

날씨가 무척 포근해졌어. 요즘 우리절은 무척 바쁘단다. 24일이 부처님오신날이기 때문에 연등준비로 부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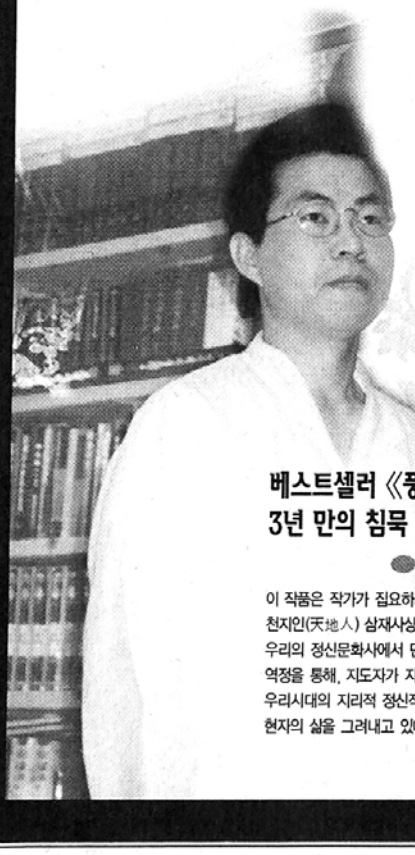
절에서는 이날 케익대신 연등을 밝힌단다.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불빛은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는 뜻이 담겨있대. 부처님은 선생님과 같은 분이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단다. 나는 그중에서 특히 항상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을 좋아해.

왜냐하면 어른들을 보면 항상 싸우기만 하잖아.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서로 좋을텐데 말이야.

수영아,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언젠가 네가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훌륭하다고 큰소리친 적 있었지. 만일 하나님과 부처님이 만났을 때도 싸울까? 그렇지 않을거야. 앞으로 너는 하나님처럼, 나는 부처님처럼 열심히 살도록 하자. 이번 부처님오신날 너를 우리 절에 정식으로 초청할께. 다음 성탄절때 너희 교회에 초대해 줘.

그럼 안녕.

해동국을 거대한 만다라로 장엄해 보라!



전국서점 화제의 베스트셀러!

김 종 록 장 편 소 설

제왕의 길

이 땅을 불국토의 거대한 법당으로 비보하려 했던
옥룡자 도선국사의 역정을 더듬는다.

베스트셀러 《풍수》의 작가 김종록이
3년 만의 침묵 끝에 내놓는 힘찬 소설!

이 작품은 작가가 집요하게 탐구해가고 있는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과
우리의 정신문화사에서 만난 거인 도선국사의
역정을 통해, 지도자가 지녀야할 미덕과
우리시대의 지리적 정신적 통합의 논리와
현자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그 쇠락의 끝에 선 신라왕실,
그 난세(亂世)에 삼한강토를 주유하며, 이 땅의 청사를 빛낼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한 선각자 도선국사!
유불선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되 서로
어그러짐이나 축남이 없었던 대인(大人)이었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는
대당 유학승이 행세하던 시절 원효성사가 그러했듯
이 땅에서 득도하여 비유비불비선의 해동 지성의 길을 걸었다.
그가 살았던 신라 말이나 오늘 우리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여
천년 전의 그의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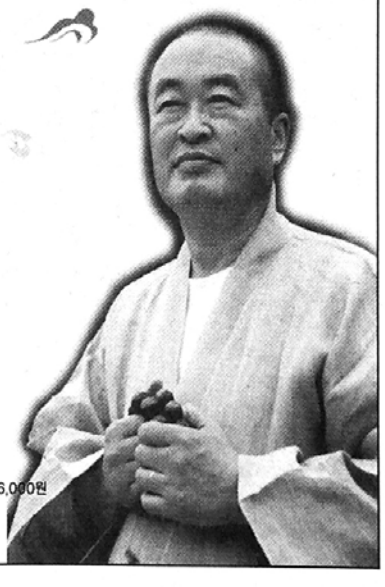


신국판/328쪽/6,800원

삼중스님 에세이

걸망에서 배운 인생

어머니의 애잔한 눈길은 아직 가슴에 있고,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신국판/320면/6,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좌 담

부처님오신날 특집



"어린이 포교 불국토 여는 보험"

'어린이 법회 하는 사찰 찾기 힘들다' 한국불교의 새싹을 키워야 한다는 당위명제가 교계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본사는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현직에서 활동중인 어린이법회 교사들의 포교·교화체험담을 중심으로 특집 좌담회를 마련했다. 화사한 연꽃을 피우기 위해 새싹을 가꾸고 있는 '푸른보살'들의 보람과 어려움등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린이 포교의 효과적인 실천방향을 설정해 본다. 〈편집자 주〉

어린이법회 교사들 교화 체험담



참석자
- 박동원(은석국교 교사)
- 이성주(칠보사유치원 원장)
- 홍소연(부천석왕사 교육주임)
- 이성훈(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실장)
- 박성희(조계사어린이회 간사)
- 진행·정리:김원우 기자

1996년 4월27일 녹수청산

▲이성주원장:새싹불자를 키우자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불교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믿을만한 보험이라 표현하고 싶군요. 70여년 전 용성스님의 대각교운동으로 어린이 포교가 인식되었으나 맥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후 1962경부터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가 시작됐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어린이 법회가 일반화됐으나 아직까지 가장 기본적인 법회용 교재도 없는 것이 새싹포교의 현실입니다. 씨뿌리고 싹 나오기를 기대하는 조급함과 경제적 지원의 미비로 교사도 자주 바뀌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싹불자를 키우자는 당위성은 20년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원교사:어린이 포교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이 돼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그 당시 개척자의 정신으로 학습지도안과 법회 순서를 만들어 개운사에서 첫 교사 강습회를 열었는데 그때 만든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안자체에 변함이 없고 교사들이 자주바뀌어 스님과 신도, 자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겠습니다.

▲이성훈실장: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열의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사찰에서 부수적 형식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법회운영과 보시차원의 교사들 봉사활동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단차원에서도 정책보다는 실천적인 모습이 아쉽습니다.

즉 앰프 등을 구입하여 행사시 무료로 대여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지원이 아쉽습니다.

▲홍소연주임:포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린이 법회를 하면서 수련대회 장소를 섭외해보면 대부분의 사찰이 꺼려합니다. 수행도량이 시끄럽다는 것이지요. 본사급 절주변에 작은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했으면 합니다. 또 교사들의 봉사 신심을 요구하기보다 교사대우체제등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불교계는 어린이 법회 운영이 교사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이 고수되고 있는 곳이 많은 형편입니다.

▲박성희간사:2년 남짓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다보니 교사의 연수교육기관과 지도교안을 연구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와함께 교사들 예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적은 교통비와 빠듯한 시간을 내기가 힘든 현실이 교사들의 유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아닐까요.

▲박교사:대체적으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인지되는 현실이지만 그에 수반한 부수적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생활하며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어린이 포교의 기본은 흥미 즐거움, 보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사교육과 연간,월간계획을 미리 정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착한어린이 표를 이용하여 상벌제도를 뚜렷이하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도 권유보다는 스스로 생각토록 하고 놀이도 스스로 고안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홍주임:그렇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정신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석왕사 어린이회에서는 최근 원미산에서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더군요. 또 보시금을 어린이들에게 받아 수련대회 정규프로그램으로 소쩍새마을을 방문하였더니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데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교사:저도 르완다 난민돕기, 연꽃마을 할머니에게 편지쓰기, 책읽기 판에 표를 붙이게 하여 책읽기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공동 저금통을 마련하여 매달 보시금으로 장애인시설의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전달하는 운동을 펼쳐보니 어린이들 스스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실장:저희 레크리에이션포교회에서는 3년전부터 교계최초로 연꽃캠프를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단위사찰에서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기 힘든 것도 대형모임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면 새로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장:그래요. 어린이들은 작은 것에서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면에서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많은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찰'을 설명하고자 할때는 가까운 절에 어린이들을 데리고가서 대웅전의 부처님은 어떤분이고 종의 유래는 무엇이다는 설명을 시각적인 것과 곁들이면 효과적입니다.

▲이실장: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저학년은 레크리에이션에 중점을 두고 고학년은 아이디어게임과 놀이적인 요소가 효과적입니다. 이와함께 전래놀이인 공기놀이 딱지치기 재기차기 종이공예 등을 활성화하여 완성품을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만들도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창작의욕을 심어줘야해요.

▲박간사:요즘의 어린이들은 토·일요일에도 특별활동과 학습보충을 위해 학원에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주부 수화반 음악 무용등과 국어 영어 산수등 학습과의 연계를 통해 특별활동을 보충해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교사: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구기관을 설립해 시청각 자료와 조작자료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원장:이와함께 타종교의 어린이 포교자료를 참조하여 응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요. 자꾸 방식을 새로해야 합니다.

▲박간사:사찰이 불자어린이의 관심이 높을수록 어린이들의 불교친밀도가 높아지고 어린이 법회도 활성화됩니다. 어린이들은 스님과 함께했던 놀이 등의 기억이 아주 강합니다.

▲박교사:어린이 법회가 포교에 중점을 두다보니 맹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려고만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부처님께 참회하도록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소풍이나 단체 여행장소로 전통 관광지 사찰을 찾습니다. 절 입구에 절 유래, 절에서 배출된 고승소개 등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교재를 팜플렛등 인쇄물로 만들어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원우 기자:어린이 포교교화에는 전문인력양성과 교재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단과 스님차원의 관심과 예산투자가 되어야 하며 먼저 사찰이 어린이 포교공간으로 개방되어야 함을 공감했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원력으로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본사급 사찰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사찰 안내책 비치했으면
교사들 대부분 자원봉사자
박동원 교사



현장학습 통해 불심 배양
절공간 활용…어린이집 개설
이성주 원장



홍소연주임
시설확대 교사대우 등 경제적 지원 서둘러야



이성훈실장
저학년 흥미유발 프로그램 고학년 아이디어게임 '효과'



박성희간사
스님과 함께하는 놀이 개발 취미·학습지도안 마련도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들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욱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핑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영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새싹불자 설문

"친구에게 포교경험 있다" 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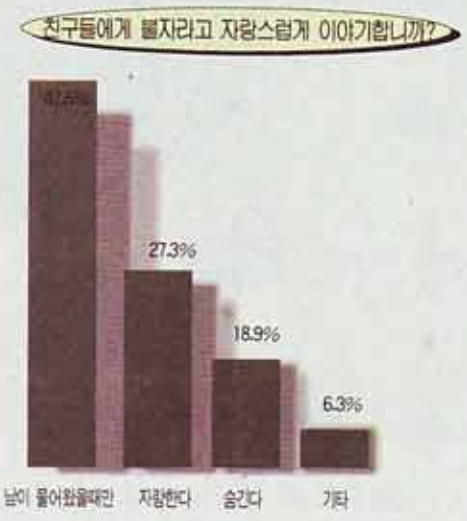
미래불교를 일궈갈 '새싹불자를 키우자' 연중캠페인으로 벌이고 있는 본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린이법회 현황과 실태 등 새싹불자들의 기초신행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어린이불자들은 대부분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회에서 가장 지루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염불하고 절할 때 라고 응답해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정기법회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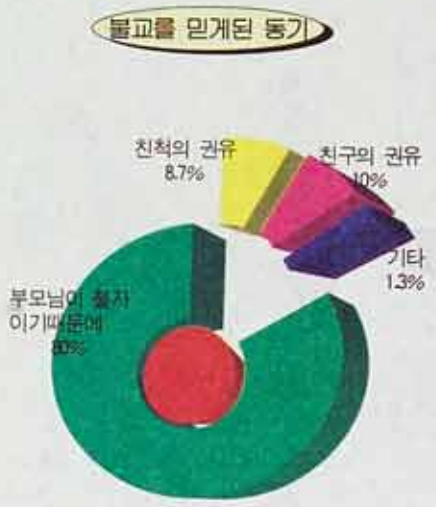
본지 어린이법회 회원 564명 대상 조사

어린이들은 불교입문의 동기가 부모님이 불자이기 때문에가 80%를 차지해 어린이 대부분이 부모의 종교에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의 권유도 10%에 달했다. 이 결과는 '부모에 이끌려 절에갔다'는 근세 우리 국민의 신행풍토가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는 어린이 포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포교의 방식보다는 부모를 통한 간접포교에 머물고 있음도 확인됐다.

누구하고 절에 같이 가느냐는 질문에도 어머니(34.4%), 형제자매(24%) 친구(22.7%)순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등이 종교관 정립과 신행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4.4%가 어른이 돼서도 자비로운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제자가 될 것이라고 응답해 어린이불자들이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79.5%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에게 절에 같이가자고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방법으로는 절에가면 유익하고 재미있다가 51.6%,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 11.6%, 좋은 친구들을 사귈수 있다 10.7%로 순으로 응답했다.







"오계를 받았다" 48.2% … '나는 불자' 27%만 자랑

즐겨부르는 찬불가 '찬양합니다' '산회가' '청법가'

존경하는 스님 '원효스님 29.3%' '사명대사 20.7%' '성철스님 19.3%'



이밖에도 26.1%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우리절은 공기좋고 스님도 반갑게 대해준다,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며 반긴다, 예수님은 땅을 만들었지만 부처님은 우주를 만드셨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친구들을 절에 가자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포교활동이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뒤늦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어린이 불자들이 자신의 종교관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불교미래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반면 처음 절에 갔을때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39.4%가 낯설고 무서웠다로 가장 많았다. 좋았다 31.3%, 매우좋았다 16.3% 엄숙하다 6.1%, 기타 8.8%순으로 응답했다.

또 절에 다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느냐는 질문에는 남이 물어왔을 때만(47.6%), 자랑한다(27.3%), 숨긴다(18.9%) 무응답(6.3%)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이유로는 친구들 가운데 불교를 믿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33.3%), 쑥스러워서(21.7%), 친구들이 무시하고 놀리기때문에(18.8%)로 응답해 아직까지 새싹불자들이 타종교인에 비해 자신이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또는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설문응답자를 특성별로 분류하면 남학생(54.7%)이 여학생(45.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성인불교신자의 경우 남여의 비율이 약4:6인 것에 비해 연령층이 젊어질수록 여대남소(女大男小)의 비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2학년이 21.3%, 3-4학년이 44%, 5-6학년이 34.7%로 나타나 학년별로도 큰 편차없이 고르게 정기법회에 참석,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결과 어린이들이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린이법회진행에 있어 아직까지 의식위주와 성인불자의 신행활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회활동이 재미없었다고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2%가 프로그램 자체가 흥미가 없어서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또 법회에서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을 묻는 질문에 염불할 때가 33.8%, 절(108배)할 때가 26.2%, 법문이 길어질때 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 포교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교계의 지적이 다시한번 검증됐다.

반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정기법회에 이어 2부법회로 진행되는 레크리에이션시간(44.6%)과 법사스님의 재미 있는 설법(32.4%)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은 딱딱한 분위기의 법회진행보다는 다소 화기애애한 법회진행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문의 경우 싫어하는 시간이면서 또한 가장 좋아하는 내용으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법문에 대한 어린이들의 선호도는 높으나 방법적인 면에 있어 교리주입 위주의 설법이 장기간 진행돼 아이들의 정서와는 걸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재미있고 교훈적인 불교설화나 유머러스한 설법이 첨가된다면 아이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설법에 대한 호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즐겨부르는 찬불가로는 찬양합니다(21%), 산회가(11.8%)를 비롯 청법가, 삼귀의 등으로 나타난 것은 법회운영이 의식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동요처럼 쉽게 부를 수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만 덕 사
신도 일동
전화: 02 - 715 - 3600
서울 미포구 노고 3동 109 -24

국립경찰병원
경 승 실
실장 혜광
자원 봉사자 일동
신 도 회 일동
전화: 02 - 430 - 2555
서울송파구 가락본동 58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법 장 사
주지 설정
신도 일동
전화: 053 - 471 - 0414
대구시 남구 봉덕동 산 148

대한불교 조동종
불모산
관음정사
주지 윤송정
신도 일동
전화: 0525 - 45 - 4741, 6404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인 천
법 융 사
주지 방지하
대중 일동
전화: 032 - 817 - 2015
팩스: 032 - 818 - 8173
인천시 남구 동춘동산 9 -5

도 림 사
주지 성도
신도 일동
전화: 02 - 815 - 651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76 -75

대한불교조계종
동산 반야회
법주 무진장 · 회장 김제일
사무처장 구본성 · 기획실장 문종순
전화: 02 -732 - 1206~8
팩스: 02 -732 - 1207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대한불교 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박종하
신도회장 용무심회
신도 일동
전화: 02 - 582 - 8609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49

대한불교 조계종
호국성지
표 충 사
주지 신허
대중 일동
전화: 0527 - 52 - 1070, 1150
팩스: 0527 - 52 - 1836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번지

인과선원
주지 정덕
신도 일동
전화: 02 - 993 - 3706, 907 - 3706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 - 2

대한불교 조계종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안도장
호국각원사
주지 신법인 / 총무 서대원
대중 일동
전화: 0417 - 61 - 3545, 62 - 5332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 - 8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약사여래 부처님 기도도량
화 방 사
대중 일동
전화: 0594 - 63 - 5011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

약사포교원
정 법 대 학
불교지도자 양성방
장 각 성
전화: 02 - 474 - 0554
팩스: 02 - 472 - 5292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 - 4

삼 보 사
주 지 대평
신도회장 신재철
신도 일동
전화: 032 - 542 - 5131
인천시 북구 입화동 31 -3

대한불교 조계종
신어산
은 하 사
주 지 김대성
금강회 · 금옥회 · 청년회
신도 일동
전화: 0525 - 37 - 0101~5
경남 김해시 삼방동 662

무 학 사
주지 해암
신도 일동
전화: 02 - 238 - 8872, 235 -9900
서울시 중구 신당 1동 304 - 188

대한불교 조계종
수 국 사
주지 자용
대중 일동
전화: 02 - 356 - 2001~2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번지

근본불교
동 해 사
주지 서의륜
신도 일동
전화: 0396 - 672 - 2900
(근본불교) 02 - 831 - 3887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정 각 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전화: 02- 742 - 1231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 - 12

약 사 사
주 지 장영하
신도회장 황대덕월
전화: 02 - 662 - 2551, 664 - 031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 -1

새싹불자 설문 부처님오신날 특집

"반야심경 외운다" 57.8%

성인 신행활동 답습·의식위주 법회 운영 '흥미반감'

수련회·야외법회 참석률 저조… 불교 놀이문화 빈곤

있는 어린이 찬불가가 많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의 계임이나 오락에 대해 묻는 질문에 68.4%가 모른다라고 응답했고 16.7%만이 성불도놀이가 있다고 답해 어린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활동이나 어린이 단체에서 행하는 불교행사에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없다 57.6%, 수련회 18.6%, 야외법회 6.8%로 응답했고 16.9%가 사생대회, 제등행사, 찬불가경연대회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신세대 어린이불자들이 언제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불교놀이문화와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역사상 가장 좋아하는 스님을 묻는 질문에는 원효스님(29.3%), 사명대사(20.7%), 성철스님(19.3%)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법회의 지도스님도 13.6%를 차지해 지도법사가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어떤 불교서적을 읽어보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부처님 일대기와 어린이불교성전(37.3%)이 가장 많이 읽은 것으로 조사됐고 어린이 법구경, 원효 서산 사명대사 등의 전기, 서유기, 불교만화(달공거사 부처님이 좋아요 반야심경…)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오계를 받았다(48.2%), 가족법회 참여한 적이 있다(43.2%) 반야심경외울 수 있다(57.8%)라고 응답해 새싹불자들이 정기법회에서 뿐만아니라 가정에서도 신행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중근 기자



◇어린이 마음은 부처님 마음. 이처럼 깨끗하고 맑은 심성을 지닌 새싹불자들은 미래불교를 일궈갈 주인공들이다. 이들에게 자비로운 부처님 미소와 함께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신행을 돕는다면 불국토의 세상은 밝게 열릴것이다.



주요 사찰 어린이법회 안내

서울

금강정사(일 오후2시) 893-2700
강남포교원(일 오후1시) 539-2631
금선사(일 오전10시) 981-8078
극락정사(일 오전10시) 814-9670
관음사(일 오전10시30분) 582-8609
관음포교원(토 오후2시) 863-9649
광도사(토 오후3시) 979-5183
광명선원(토 오후3시) 564-1108
구룡사(일 오전10시) 575-7766
능인선원(일 오전10시) 554-8411
능인정사(일 오전10시) 402-1335
도선사(일 오전10시30분) 993-3161
도안사(일 오전11시) 936-5936
대각사(일 오전10시) 765-0972
담마사(토 오후3시) 521-5001
법륜사(일 오전11시) 889-7272
미하선원(일 오후2시) 952-0666
반야사(일 12시30분) 715-3600
비타사(일 오전10시) 297-1992
무진법장사(일 오전10시) 922-2333
봉광사(일 오전10시30분) 413-6060
보문사(일 오전10시) 928-3797
보현사(토 오후3시) 939-3307
보현사(일 오전10시) 254-6966
봉국사(일 오전10시30분) 919-0211
법륜사(일 오전10시) 732-2710
법련사(일 오전11시) 733-5322
법안정사(일 오전10시) 646-4975
보리사(일 오전10시) 562-9939
봉은사(일 오전10시) 511-6070
사자암(일 오전10시30분) 825-1046
사천왕사(토 오후3시) 939-3900
삼보사(일 오전10시30분) 552-6404
삼보정사(토 오후2시) 913-2659
삼선포교원(일 오전11시) 925-0582
소림선원(일 오전10시30분) 886-7770
선운사(일 오전10시) 993-3065
석불사(일 오전10시) 712-1765
성룡사(일 오전10시) 336-2052
성심사(일 오전11시) 602-0174
원각사(일 오전10시) 763-5214
원각사(일 오전10시) 742-0065
은적사포교원(일 오전10시) 653-9232
옷산 불광사(일 오전11시) 359-5367
원광사(일 오전10시30분) 736-0230
염불사(일 오전10시) 938-5395
영화사(일 오전10시30분) 444-4321
진관사(일 오전11시) 359-8410
조계사(일 오전10시) 736-9043
정각사(일 오전10시) 742-1231
정법사(일 오전10시) 762-3652
정토포교원(일 오후2시) 737-0853
청룡사(일 오전10시) 763-4031
정수사(토 오후5시) 816-1290
칠보사(일 오전10시) 732-7496
청량사(일 오전10시) 966-2192
하림사(일 오후2시) 932-1411
화계사(일 오전10시) 902-2663

부산

관음사(일 오전10시) 205-0069
내원정사(일 오후2시) 242-0691
대각사(일 오전10시) 245-6781
범어사(일 오전10시) 508-3127
법륜사(일 오전10시) 553-7771
삼광사(일 오전9시30분) 808-7111
옥련선원(일 오전10시) 757-9067
영주암(일 오전10시) 754-2210
정각사(일 오전9시30분) 292-8008
봉도사포교원(일 오전10시) 816-2241
한마음선원(일 오전10시30분) 402-7077
혜원정사(일 오전10시) 866-7772

대구

공덕원(일 오전10시) 741-0077
구도회(일 오전10시) 654-6533
구화사(일 오전11시) 323-6384
관음사(일 오전9시30분) 474-8228
대광명사(토 오후2시30분) 253-0514
대성사(일 오전10시30분) 651-0108
보리원(일 오전10시) 582-7611
보현사(일 오전10시) 254-6966
은적사(일 오전10시) 653-1572
은적사포교원(일 오전10시) 653-9232
원안사(일 오전10시30분) 257-1914
한마음선원(토 오후3시) 426-2779

인천 · 경기

금륜정사(일 오후2시) (0351)866-0849
능혜정사(일 오전10시) (032)519-5554
묘도사(일 오전9시) (0336)71-2295
봉원정사(토 오후3시) (0346)563-7584
부평사(일 오전11시) (032)575-3882
법왕사(일 오전10시) (0333)655-3215
부루나포교원(토 오후3시)(032)676-9741
법왕사(일 오전10시) (0348)33-2959
봉선사(일 오전10시30분) (0346)68-1950
석왕사(일 오전10시) (032)663-7776
성불사(일 오전10시) (032)541-5600
연산정사(일 오전10시) (032)873-1059
연화사(일 오전11시) (032)873-0747
영각사(일 오전10시30분) (0345)498-7700
용주사(토 오후2시) (0331)34-0040
용천사(일 오전10시) (032)502-6058
장안사(일 오전10시30분) (0342)703-7766
천은정사(일 오후2시) (0342)701-0770
한마음선원(일 오전11시) (0343)722-3100

강원

관음사(일 오전9시30분) (0391)43-2965
법왕사(토 오후2시) (0371)46-1300
수타사(일 오전10시30분) (0336)33-6611
석왕사(일 오전10시) (0961)61-5040
상봉암(토 오후2시) (0371)762-4848
삼척사(일 오전10시) (0394)31-4082
삼운사(일 오전11시) (0361)241-1330
삼장사(토 오후2시) (0397)73-2487
상원사(일 오전10시) (0374)32-6666
태산사(일 오전10시) (0364)81-3694
원각사(일 오전10시) (0392)33-3895

경남

대승정사(일 오전10시) (0527)55-4845
안국사(일 오후1시) (0551)96-8449
연화사(일 오전10시) (0525)36-3046
옥천사(토 오후2시) (0566)72-0100
월경사(일 오전11시) (0591)53-6411
정암사(일 오전10시) (0553)43-6255
한마음선원(일 오전10시30분 X(055)21-5454

경북

금룡사(일 오전11시) (0546)52-6570
극림사(토 오후2시) (0562)47-4688
대림사(일 오후2시) (0571)856-2630

광주 · 전남북

금산사(일 오전 9시) (0658)43-4441
관음사(일 오후2시) (0653)54-1578
관음사(일 오전11시) (0631)44-5725
관음사(일 오전9시30분) (062)223-7666
대광사(일 오전10시30분) (062)222-4613
덕명사(일 오전9시) (062)365-0367
보광사(토 오후2시) (0667)63-1192
보현정사(일 오전10시) (0631)76-1730
법인사(일 오전10시) (0861)31-0583
법교포교당(일 오전9시) (0634)33-2810
실상사(일 오전10시) (0671)34-3031
선덕사(일 오전9시30분) (062)263-4660
원각사(일 오전11시) (062)224-0175
연화사(토 오후2시) (062)227-7295
정혜사(일 오전 10시) (0652)64-3732
한마음선원(일 오후2시) (062)225-0174
흥천사(일 오전11시) (0654)45-3769

대전 · 충남북

관음사(일 오전10시) (0431)56-6254
보문정사(일 오전10시) (0431)64-1718
원효사(일 오전10시) (0416)55-2551
연대선원(일 오전10시) (0417)551-2010
영각사(일 오전10시) (0456)37-2430
자광사(토 오후3시) (0421)93-6421
한마음선원(일오전10시30분X(0446)877-0462

제주도

관음사(일 오전10시) (064)22-2829
죽림정사(일 오전10시) (064)56-4233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봉 선 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
원장 초 격 | 거사림회 신 도 회 학 생 회 어린이회 일동
◐ 서초구 방배1동 854-18호
◐ 전화 : 02-584-1108 / 팩스 : 587-3753

대한불교조계종 월악산 덕 주 사
주지 성 일 | 신도일동
◐ 충북 제천군 한수면 송계리
◐ 전화 : 0443-44-9523, 42-1773

경 국 사
조 실 이지관
주 지 대 운 | 신도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753
◐ 전화 : 914-5447, 4326

불암사
조 실 양종명
신도회장 이만수 | 신도일동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5
◐ 전화 : 0351-42-7684, 45-7684

사단법인
伽山佛敎文化硏究院
佛敎原典專門學校 三學院
理事長 李智冠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 전화 : 765-9602~3 / 팩스 : 765-5673

(주)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그동안 향비를 애용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임직원일동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2-6 (제일B/D407호)
◐ 전화 : 02-755-9821, 080-200-4545

북한산
노 적 사
주지 석종후 | 신도일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북한산성
◐ 전화 : 02-353-5016, 4824 / 팩스 : 02-386-4198

팔 달 사
주지 범 행 | 신도일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16번지
◐ 전화 : 0331-251-9918

덕불산 불 광 사
주지 자 현
신도일동
● 인천시 서구 석남1동 덕불산
● 전화 : 032-583-5238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관인)영화유치원
회주 송 월 주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산 9번지
● 전화 : 444-4321, 7215

기적의 손 우 주 정 사
주지 법 현
부처님 氣를 전달하여 디스크 환자, 팔·다리 마비환자, 신경통·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에 손을 치가진 스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8-2
● 전화 : 0331-251-2871, 252-1766

불광불교미술원
원장 박 갑 용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 418-4번지
● 전화 : 0356-84-3952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산 보현사
주 지 도 완
신도회장 한순옥
대중일동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4
● 전화 : 0391-42-9437

대한불교조계종 흑성산 천 불 암
(매월음력 초닷새는 큰스님 초청 법회일)
회 주 : 一古·起然 주 지 : 富佛·印藏
사무장 : 황연선 부회장 : 박돌선, 권오자, 김윤경
관음회장 : 박영순 총 무 : 정옥임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번지
● 전화 : 0417-557-3223, 557-3506
● 주지실 : 557-1388 / 팩스 : 557-3506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한국불교연구원 대구 구도회
●주소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 4동 3052 - 7
●전화 : 053 - 654 - 8533
회장 권 오 주 회원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망월사**
●주소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 1동 421
●전화 : 0545 - 972 - 2700
주지 동진 신도 일동

'열린 마음 열린 세상'
불교교육회관 대구 공덕원
●주소 :대구 광역시 수성구 만촌 1동 617-4
●전화 : 053 - 741 - 0077(0088)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통천사**
●주소 :대구 광역시 동구 효목 1동 3번지
●전화 : 053 - 941 - 3503
주지 이태일 신도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성화사**
●주소 :대구 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1번지
●전화 : 053 - 625 - 9030
주지 인 각 신도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
●주소 :대구 광역시 중구 동산동 714번지
●전화 : 053 - 253 - 2886
신도회장 김 향 란

웨딩 한울꽃 집
웨딩 드레스 맞춤 대여 /턱시도 /약혼복 /연미복 /연주복 /웨딩 앨범 /메이크 업
●주소 : 대구시 남구 이천 2동 195 - 7 덕영빌딩 1층
●전화 : 053 - 475 -7004 ~ 5
대표 박 혜 영

상신 원색 인쇄사
●주소 : 대구시 북구 칠성 2가 161 - 11
●전화 : 053 - 353 -8415 ~ 6
대표 박 상 신

장충면옥
●주소 : 대구시 중구 문화동 9 - 14
●전화 : 053 - 424 -1116, 0006
대표 박 경 옥

다다 인테리어 디자인
●주소 : 대구시 중구 동인 4가 251 동부 빌딩 27
●전화 : 053 - 426 -1110
대표 추 길 자

델리원 제과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본동 225 - 8
●전화 : 053 - 621 -4315
대표 안 수 자

한복집
●주소 :대구시 북구 칠성동 378-1 삼성APT. 104동 1803호
●전화 : 053 - 358 - 9408
대표 이 경 순

서울 우유 평리 보급소
●주소 :대구시 서구 평리 3동 1078 - 5호
●전화 : 053 - 561 - 6049
대표 유 심 관

청도 갈비 식당
●주소 :대구시 동구 신암 3동 242 - 7
●전화 : 053 - 952 - 9466
대표 김 연 금

삼정 광업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삼주APT.101동 1403호
●전화 : 053 - 782 - 1791
대표 석 대 월

성당 쇼핑 정육점
●전화 : 053 - 652 - 4275 ~ 6
대표 하 영 식

천일 가구
●주소 : 경산군 압량면 가일동 92 - 2
●전화 : 053 - 812 - 5617
대표 유 위 현

천일사
●주소 :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 시장 2지구 3층 53호
대표 전 억 종

신라방
●전화 : 053 - 636 - 3579
대표 김 정 숙

동남 자동차 부품
●주소 :대구시 동구 입석동 930 - 5
●전화 : 053 - 983 - 6001~2
대표 박 회 천

대일 약국
●전화 : 053 - 354 - 7080
대표 김 홍 열

가람 약국
●주소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 주공 3단지 상가 114호
●전화 : 053 - 767 - 5655
대표 황 미 경

이우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청팔 · 김연미
"부처님 오신 날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발원합니다."

김종구
삼원건설(주택, 상가, 공장, 시공전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화 : 053 - 656 - 3598

박경순 · 장영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소 :대구시 동구 율하동 865 - 4
●전화 : 053 - 961 - 1270

손문철 · 배명옥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화 : 053 - 628 - 2829

용지 사우나
●주소 : 대구 수성구 범물동 402번지
●전화 : 053 - 738 - 5828
대표 최 만 영

셋별 문구
●주소 :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 4동 3034 - 4번지
●전화 : 053 - 626 - 8257
대표 김 건 우

합천 자동차 정비공장
●주소 : 경북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122번지
●전화 : 0599 - 33 - 2223 ~ 4
대표 이 천 환

불교용품 전문점 불광
●주소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 1동 671 -17
●전화 : 053 - 421 - 4768
대표 정 영 민

여래기획
불교출판기획 · 편집 디자인 전문회사
●주소 :대구 광역시 중구 봉산동 235-11(3층)
●전화 : 053 - 426 - 3395
대표 권 기 철

화동섬유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21 - 116
●전화 : 053 - 582 -1245
대표 김 태 오

모아 주류뱅크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269 -7번지
●전화 : 053 - 744 -1504
대표 장 금 실

함동 약국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중동 590 - 1
●전화 : 053 - 763 -2705
대표 김우룡, 박경남

수레 주유소
●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동 1342 -2
●전화 : 053 - 971 -0101
대표 안병태

보국 윤활류 상사
●주소 : 대구시 북구 칠성 2가 152 -179
●전화 : 053 - 356 -7750~1
대표 안병태

창 스튜디오
드레스 샵 /메이컵 스튜디오 /사진/ 영상사업부
●주소 : 대구시 중구 삼덕1가 9 -3 한창 빌딩 3층
●전화 : 053 - 421 -9873, 422 - 1625
대표 박 정 용

불교 대구 교육원
원장 태일 / 이사장 운성 / 학생 일동
●주소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 2동 531(동아진열장 빌딩 4층)
●전화 : 053 - 253 - 7063 ●팩스 : 053 - 253 - 7064

동성한약방
●주소 :대구 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번지 (약전 골목)
●전화 : 053 - 252 - 6411, 255 - 2769
대표 최 춘 길

이생 약국
●주소 :대구 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동서 상가 1층 1호
●전화 : 053 - 634 - 5776
대표 안 종 석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주지 해 휴
신도 일동
●주소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전화 : 053 - 851 - 1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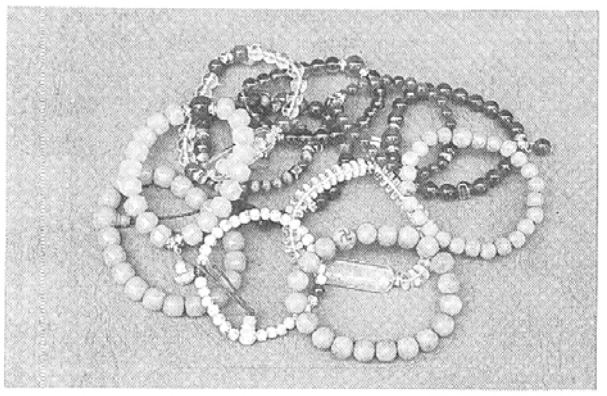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광역시 사원주지 연합회**
회장 원명
수석 부회장 지성
부회장 운성 · 경회 · 현선
총무부장 태일
회원 일동
●주소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 2동 531번지 (동아진열장 빌딩 4층)
●전화 : 053 - 257 - 7114~5

신행돕는 불교용품

부처님오신날 특집



◇새싹불자들의 신행용품과 멋내기용품 학습용품은 놀이도 하며 교리도 배우고 물심도 키워주는 포교의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해준다.



◇물자어린이의 신행을 돕는 다양한 합장주가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불교학습과 신심을 북돋아주는 공부교재와 용품들.

놀이하며 교리도 불심도 키워요

팬시용품

염주·합장주·티셔츠·공책등 풍성
예쁘게 멋내고 학습의욕 북돋워

동심불심(童心佛心). 즉 어린이들의 티없이 맑은 마음과 부처님 가르침이 같다는 뜻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신행을 돕고 정서순화를 하는데 염주목걸이·합장주·목탁열쇠고리 등 불구류를 이용한 팬시용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예쁘게 치장해주고 학습의욕을 북돋워주는 어린이불자의 전유물인 멋내기 팬시용품이 다양하다. 이들 팬시용품들은 비교적 싼 가격으로 판매돼 널리 애용되고 있다.

형형색색의 예쁜 모자와 연꽃과 동자승으로 수놓아진 T셔츠에 꼬마 합장주를 손목에 차고 108염주, 만자 목걸이를 걸치면 깜찍한 아름다움을 맘껏 연출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뺏지를 달고 연꽃오색복주머니에 허리에 걸치는 색을 차면 금상첨화다. 이와함께 손수건, 양말, 지갑, '부처님이 좋아요'라고 씌여진 어린이부채, 책가방, 도시락통, 물통, 목탁열쇠고리 등도 있다.

부처님께서 어린이 불자에게 주는 주옥같은 말씀이 새겨져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의욕을 갖게하는 학용품으로는 책받침과 학습노트, 메모노트, 일기장, 연꽃, 부처님, 법구경연필류, 코끼리, 연꽃이피었어요 볼펜, 자, 지우개, 메모판, 샤프펜슬 등이 어린이들을 정답게 손짓하고 있다.

신심과 불교학습을 도와주는 물품은 부처님을 그림으로 공부하는 색칠공부교재와 불교학습교재, 한자공부교재, 퍼즐 어린이교재테잎, 연습용 목탁, 연꽃용 향꽂이가 있어 불교에 한층 더 가깝게 하고 있다. 또 어린이의 방을 장식해주는 이철수 관화다포와 코팅인쇄물 탁상용시계, 동자저금통, 동자인형, 아기부처님인형, 꾸러기 3동자 등이 있다.

이들 불교 팬시용품들은 어린이들이 더욱더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김원우 기자

놀이

성불도 놀이·촛불제·미니올림픽
친구간 우애심고 재미도 만점

어린이들이 맘껏 뛰고 스님, 친구와 한데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연 불교놀이문화의 활용일 것이다.

불교계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놀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개발돼 어린이법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불교놀이문화로는 부처님의 생애와 칠불암, 일곱왕자들의 성불을 소재로 한 성불재놀이, 부처님이 되는 수행과정을 교육하는 불가만의 놀이인 성불도놀이, 보물찾기, 바리공주이야기 아동극, 목탁이나 연꽃 등 불교의 사물을 친숙하게 익힐 수 있는 모래시계,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게임인 석탑쌓기-그림퍼즐-지구는 초만원(매트위에 올라가게 해 올라선 사람 수를 기록하는 게임)-퀴즈올림픽 등으로 짜여진 미니올림픽, 촛불발원제, 불꽃놀이 등이 있다.

이는 캠프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과 법우들끼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어 법우들간의 유대강화와 신심증장, 소속감을 갖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부처님께 54배하기, 5분참선하기, 합장하고 석가모니불 정근하면서 법당 주위 돌기, 반야심경 독송하기, 연꽃만들기, 보현행원 법장서원 찬불가 부르기 등 11개 코스로 구성된 '선재동자 자성불놀이'는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자아개발과 신앙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도필선 기자

오디오 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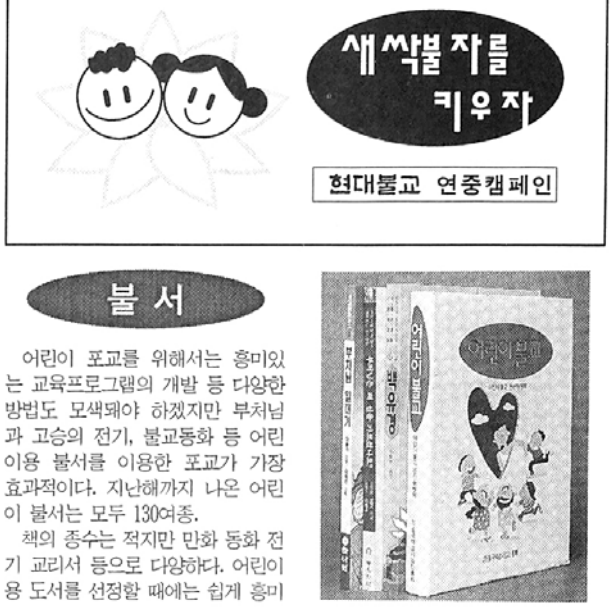
영상물 '우리들…' '찬불가' 테잎 인기
멀티미디어 시대 새싹포교 한 몫

세상은 바야흐로 멀티미디어 시대로 치닫고 있다. 교계에도 머지않아 재택법회, 재택포교라는 말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계 또한 80년대초부터 서서히 오디오 비디오 매체를 통한 포교작업이 이뤄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근래들어 법안정사 어린이법회등 각 사찰에서 어린이불자들을 위한 비디오 상영과 찬불가테잎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법회를 진행하는 등 불자들의 불교비디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고행, 성도, 교화,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방송이 제작한 불자어린이 포교만화 〈우리들의 부처님(상, 하)〉과 연우기획의 〈석가모니 그 인간과 생애〉가 출시돼 있다. 불자로서의 예절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불자예절〉비디오, 재미있는 불교관련 설화를 입체낭독드라마로 재구성한 불교방송의 〈불교설화〉 등이 나와 있다. 이외에 어린이불자들의 중요포교교재로 사용되는 〈어린이 찬불가〉 테잎이 다수 보급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불 서

고승전기·만화·동화등 130여종
그림많고 내용 쉬워야 교육효과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는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방법도 모색돼야 하겠지만 부처님과 고승의 전기, 불교동화 등 어린이용 불서를 이용한 포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지난해까지 나온 어린이 불서는 모두 130여종.

책의 종수는 적지만 만화 동화 전기 교리서 등으로 다양하다. 어린이용 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만화 동화 형식의 책이 오히려 교육효과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산뜻한 그림과 조잡하지 않은 스토리의 구성이 필요하다.

만화와 동화를 통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린이에게는 알기 쉬운 교리서가 좋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 교리를 익히고 〈백유경〉 등의 재미있는 경전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불교편찬위원회의 〈어린이불교〉(동국역경사업진흥회 刊), 문답형식의 교리서인 우학스님의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좋은인연 刊), 6바라밀을 동화형식으로 설명한 이슬기씨의 〈부처님의 이야기〉 시리즈(하나원 刊) 등이 좋은 책으로 손꼽힌다.

김재경 기자

컴퓨터

'동련연꽃' 통신 '돈황…' 게임 유익
첨단영상 통해 불법 생생히 전달

만화 CD롬을 통해 제공되는 부처님의 전생과 불교동화는 어린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대구 전산원 칠엽굴(원장 지월)에서 제작해 보급하게 되는 CD롬 〈어둠에서 밝음으로〉는 음성을 포함하는 만화로 부처님 전생과 불교동화를 제공한다. 또한 역사적인 불교벽화를 애니메이션 처리해 뒷배경으로 사용하면서 법구경과 아함경의 경전을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어 어린이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폭력과 자극적인 환경이 되기 쉬운 컴퓨터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정서를 불러 일으켜 주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LG소프트웨어가 제작한 〈타클라마칸-돈황전기(敦煌傳記)〉. 고대 불교유적지 돈황석굴을 소재로 한 컴퓨터 게임으로 동굴을 탐험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 모든 게임의 진행방향은 연꽃으로 표시되며 게임 중간중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나타나는 등 돈황석굴의 내부구조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됐다. 특히 〈타클라마칸-돈황전기〉는 게임을 즐기는 어린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에서는 오는 6월에 천리안 PC통신망에 어린이 불교동호회 '동련 연꽃'을 개설해 전국에 2천5백명의 회원들과 관련단체들을 묶어 전국규모의 어린이 포교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동련 연꽃' 불교동호회에는 어린이 지도자들의 게시판인 '동련'방과 어린이들의 게시판인 '연꽃'방을 따로 두어 운영하게 된다. 특히 '연꽃'방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알기쉬운 교리 경전공부 신행상담 등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불교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불교계 내에서도 어린이 신행활동에 PC통신과 CD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등을 통한 첨단매체가 적극 활용 될 전망이다.

남수미 기자

2천만에 깨달음을

부처님의 법음을 이웃과 함께 나눕시다.
칠보로 세상을 장식하는 것보다
한자락 법보시가 참 공덕이 됩니다.

현 대 불 교 신 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 표 02-737-8881
· 광 고 국 02-737-0692
· 팩 스 02-737-0697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목포 · 전화 0631-281-2534
공주 · 전화 0416-55-0020
사천 · 전화 0593-32-5160
청주 · 전화 0431-53-4330
여주 · 전화 0337-84-0797
속초 · 전화 0392-31-0543
강릉 · 전화 0391-647-931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태징,요령,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교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5월 1일 ~ 5월 27일
■ 개강일시 : 1996년 5월 27일 오후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3층
전화 : 741 - 0495 ~ 6

海 東 佛 敎 大 學
儀 式 敎 育 院
學長 張 二 斗
院長 鄭 大 隱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난치병,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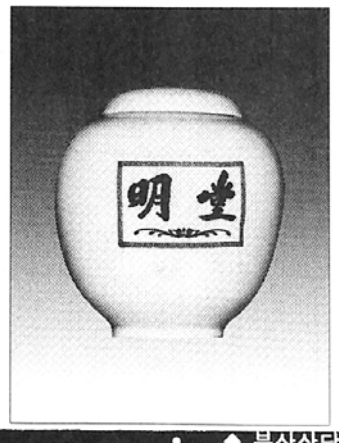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링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링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묘지상담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시는 영혼의 명당유택이 된다.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명당도예에 모셔서 땅에 묻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운명을 가로막는 영혼과 병고와 불행을 주는 고혼을 자극한 효심으로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룩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서울상담 ◆
· 장 소 :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금,토 (2일간)
· 상담접수 : (02) 3401 - 3259

◆ 부산상담 ◆
· 장 소 :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 부산 상담일자 : 월~수 4일간
·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본사
조 계 사
주 지 진 현 근
사부 대중 일동
▶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 전화 : 720-1390, 6742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 주 사
조 실 월산 성림
주 지 혜광
산중 대중 일동
▶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산 사내리 209
▶ 전화 : 0433-43-3615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 실 진제
주 지 무공
부 주 지 태일 선 원 장 진허
총무국장 도영 교무국장 각정
재무국장 선오 포교국장 한우
호법국장 법현
外 大衆一同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 전화 : 053-982-0101~2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조 실 월산 성림
주 지 응면 설조
사부 대중 일동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 전화 : 0561-746-9912~3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 엄 사
주 지 종렬
기획국장 종 홍
교무국장 각 일
재무국장 혜 초
포교국장 진 조
호법국장 각 진
대 중 일 동
▶ 전남 구례군 마신면 황전리 12
▶ 전화 :주지실 0664-782-1100
원주실 782-0016
종무소 782-7600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 음 사
조 실 석 주
주 지 중 원
신도회장 강창식
도 화 주 이순복
관세음합창단장 김순원
청 년 회 장 권오남
▶ 관음사: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387
· 전화 : 064-55-6830
▶ 종무소: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856
· 전화:064-22-2829
· 팩스:064-58-3367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명 예 회 장 월 탄
고 문 호진, 지허, 암도
회 장 혜총
상 임 부 회 장 원성
부 회 장 정산, 일우, 지홍,심지
감 사 정덕,일면
사무총장 지원 기획실장 동성
섭외부장 이정 총무부장 도관
재무부장 종림 조직부장 도진
문화부장 상덕
■ 특별분과위원회
● 장학포상분과위원회위원장 : 월탄
● 종책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 보광
● 언론홍일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 진관
● 포교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 성엽
● 복지문제분과위원회위원장 : 시현
● 법사분과위원회위원장 : 월명
● 동국학원중흥위원회위원장 : 원성
● 부위원장 :법정
● 석림불교아카데미원장 : 혜총
● 사무국장 : 선종
● 사무간사 :유혜주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내자원빌딩 6층
· 전화 : 02-723-5264, 722-2214
· 팩스 : 02-736-6205

서부 은평 사원연합회
회 장 서성운(삼천사)
부 회 장 한자용(수국사)
부 회 장 김혜진(시연사)
부 회 장 이법성(관음사)
사무총장 서혜진(신흥사)
사무총장 김보광(불광한의원)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은평사서함 77호
· 전화 :359-7766, 353-3004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학 교 법 인 청 담 학원
사회 복지 법인 혜명 복지원
주 지 차 동 광 합장
이 사 장
사부 대중 일동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 전화 :993-3161~3
주지실 : 993-5002
· 팩스 : 993-3164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 대중 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0343-72-3100, 1512
▶ 팩스 :0343-72-2746

대한불교 천태종
백양산 삼 광 사
주 지 변춘광
총 무 박자정
재 무 곽수산
노 전 이덕유
부 전 변진달
신도회장 김찬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31
▶ 전화 : 051-808-7111~5
▶ 팩스 : 051-803-1332

대한불교 보문종
보 문 사
주 지 황 법 준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 전화 : 928-3797, 926-9752

두타산 삼화사
주지 이원행(遠行)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 전화 : 0394-34-7661~2
0394-34-7546, 8313
▶ 팩스 : 0394-34-7663

분 황 사
주 지 종 수
총 무 각 천
신도회장 서자비행

원효학연구원
이 사 장 이성타
원 장 김영태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번지
▶ 전화 : 0561-42-9920
▶ 팩스 : 0561-42-9937

과천 관악산
보광사
주 지 강종훈
신도회장 보리성
부 회 장 유수경
부 회 장 장혜경
대중 및 신도일동
▶ 과천시 갈현동 산 126-18
▶ 전화 : 02-502-2262

대한불교조계종
소림정사
주 지 석지협
신도일동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2-12
▶ 전화 : 02-511-6210~6

범 종 사
대 표 정 순 복
▶ 전화 : 02-735-10452
▶ 공장 : 0333-6893-2672

대각사 대각선원
석가여래 부촉법 제70세 법사
조실·주지: 불심 도문
부 주 지 :무심 보광
총 무 :각천 청청
▶ 서울 종로구 봉익동 2번지
▶ 전화 :02-765-0972
▶ 팩스 :02-742-2126

정신 · 육체적 장애로부터 벗어남
선 관 단 식
● 제산제 복용, 자연식 섭취
● 염불삼매, 선관삼매, 연단수련
▶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 전화 :0593-34-1115 ~6

능가산 내소사
회 주 정혜산
주 지 진 원
대중및 신도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서포리 268
▶ 전화 : 0683-83-7234